

3.4. 메일링리스트 사용에 관해

3.4.1. majordomo program setting (안유석)

majordomo는 메일링리스트 프로그램이다. majordomo는 WWW search engine이나archie등으로 찾을 수 있다. 현재 1.93 ver까지 나와있다.

file : majordomo-1.93.tar.Z

어디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 국내 사이트는 ftp.nuri.net에서 구할 수 있다.

■ majordomo의 기능

여러개의 메일링 리스트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동으로 su bscribe, unsubscribe를 처리해주며, 그 외의 리스트의 종류를 알아보거나, 리스트 이용자의 리스트를 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다.

■ majordomo의 구성

wrapper라는 C프로그램과 여러가지의 perl로 되어있다. 따라서 majordom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erl이 깔려 있어야 한다. perl은 현재 ver 5.0000 까지 나왔었다. Perl 인스턴스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perl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몇가지 주의해야 한다. majordomo의 펄 프로그램의 맨 앞부분에는 perl의 실행화일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주는 메적이 있는데, 실제 펄이 깔린 곳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perl이 깔린 곳이 다른 곳이라면 majordomo의 모든 화일 앞부분을 고쳐주든지, symbolic link를 만들어 주어서 perl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majc:domo의 디렉토리, 화일

~ : majordomo는 하나의 계정을 만들고 그 위에 인스톨해야 한다. 계정의이름과 디렉토리 위치를 잡아주고 majordomo.cf화일에 적어주면 된다.

물론 컴파일시에도 디렉토리 위치를 정확히 적어 주어야 한다. majordomo계정이 위치하는 곳.

~/Log : majordomo의 로그 파일. 사용하면서 가끔씩 tail Log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lists : list의 모든 정보가 담기는 곳, 퍼미션을 775로 할 것.(majordomo를 깔고서 readme등을 잘 읽어 봐야 한다. File permission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majordomo : majordomo의 수행프로그램, perl로 짜여져 있다.

~/wrapper : perl은 setuid를 할 수 없으므로 C로 짜여진 wrapper를 사용한다. 따라서, wrapper의 owner는 root이며, setuid로 돌아가면서, 다른 perl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wrapper 프로그램을 인스톨한후에 chmod x+s wrapper를 해주어야한다. 그래야 setuid모드로 실행될 수 있다.)

~/majordomo.cf : majordomo의 configure 파일, 디렉토리에 관한 정보가 주로 실려 있다.

그 밖의 다른 파일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 majordomo의 인스톨

a. adduser 한다.

adduser할 때 정확한 uid, gid를 기억해놓을것. 보통은 ID는 majordom으로 그룹ID는 majordom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해도 좋다. etc) list, mailist...

b. 1번에서 등록한 아이디. 일단은 majordom으로 하자. 로그인한다. ftp나 zmodem등으로 majordomo-1.93.tar.Z를 받는다.

다음과 같이 압축을 푼다.

cd ~

tar zxvf majordomo-1.93.tar.Z

c. 위와 같이 하면 다음과 같이 디렉토리가 생길 것이다.

```
blue: (7) ls
majordomo-1.93
blue: (8) cd majordomo-1.93
blue: (9) ls
Changelog bounce-remind resend
Changes config_parse.pl resend.README
Description contrib sample.aliases
Doc digest sample.cf
LICENSE majordomo shlock.pl
Makefile majordomo.pl test
Manifest majordomo_version.pl wrapper
README medit wrapper.c
approve new-list wrapper.sh
bounce request-answer
blue: (10)
```

d. 위와 같이 확인한 후에 Makefile을 수정한다.

Makefile수정은 다음의 것들을 구해주면 된다. majordom계정의 홈 디렉토리를 다음 변수에 넣어 주어야한다.

W_BIN=/user/clients/majordomo

그 다음에는 posix계열을 따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user-ID와 group-ID를 지정해주는 방식이 다른데, Makefile의 comment를 읽으면서 고쳐 주면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majordom계정의 ID와 그룹의 아이디이다.그리고, sample.cf파일을 고쳐주어야 한다. 일단, sample.cf파일을 고칠때 입력하는 것은 자기 시스템의 domain name등 이다.

\$whereami에 자신의 도메인 네임을, \$whoami에 메이저도모가 위치하는 아이디의 메일어드레스를 집어넣어준다.

이때 중요한 것이 \$listdir이다. 이것은 mailing list가 위치하는 곳이다. 보통 홈디렉토리아래에 lists란 디렉토리 만들어준다. 절대패스로 적어준다.

(참고 : makefile 수정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시스템이 posix계열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majordomo 화일을 풀었을때 readme 화일을 잘 읽어보고 인스톨해야 한다.)

e. 그 다음에 make한후 make install을 해준다.

f. 지금까지는 majordomo를 위해 만든 계정, 위에서 임의로 majordom으로하였음,에서 작업했으나, 여기서 root로 로그인하거나, su하여서 make install-wrapper 한다.

g. 다음을 /etc/aliases에 추가한다.

```
majordomo: "/user/clients/list/wrapper majordomo"
owner-majordomo: simula
majordomo-owner: simula
```

mailing list sample :

이제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보자. 우선 /etc/aliases에 다음을 추가한다.

```
owner-worldcup: worldcup-owner
worldcup: "/user/list/wrapper resend -p bulk -M 10000 -r
worldcup@white.ik.co.k
r -l worldcup -f worldcup-owner -h white.ik.co.kr -s
worldcup-outgoing"
worldcup-owner: simula
worldcup-approval: worldcup-owner
worldcup-outgoing: include:/user/list/lists/worldcup
owner-worldcup-outgoing: worldcup-owner
```

```

worldcup-archive: /user/list/archive/worldcup
owner-worldcup-archive: worldcup-owner
worldcup-request: "/user/list/wrapper request-answer worldcup"
owner-worldcup-request: worldcup-owner

```

이것은 worldcup에 관한 메일링 리스트이다.

~/lists아래에 sport라는 화일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worldcup메일리스트에 대한 정보는 worldcup.info 파일속에 넣어둔다. README 파일을 읽고 파일 퍼미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로 자동으로 list를 add해주는 패키지는 majordomo에 같이 오지 않기때문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쓴다. perl로 되어있다.

```

#!/usr/bin/perl
for($i=0; $i<($num=@ARGV); $i=$i+1) {
    $a=$ARGV[$i];
    open(ALIASES,">>etc/aliases");
    print ALIASES "\n\n";
    print ALIASES "owner-$a: $a-owner\n";
    print ALIASES "$a: \"\`/user/clients/list/wrapper resend -p
bulk
-M 10000 -r
$a@blue.ik.co.kr -l $a -f $a-owner -h blue.ik.co.kr -s
$a-outgoing\"\n";
    print ALIASES "$a-owner: simulal\n";
    print ALIASES "$a-approval: $a-owner\n";
    print ALIASES "$a-outgoing:
:include:/user/clients/list/lists/$a,
$a-archive\n";
    print ALIASES "owner-$a-outgoing: $a-owner\n";
    print ALIASES "$a-archive: /user/clients/list/archive/$a\n";
    print ALIASES "owner-$a-archive: $a-owner\n";
    print ALIASES "$a-request: \"\`/user/clients/list/wrapper
request-answer $a\"\n";
    print ALIASES "owner-$a-request: $a-owner\n";
    close(ALIASES);
    system("/usr/bin/touch /user/clients/list/lists/$a");
    system("/usr/bin/touch /user/clients/list/lists/$a.info");
    system("/usr/sbin/chown list:majordom
/user/clients/list/lists/$a");
    system("/usr/sbin/chown list:majordom
/user/clients/list/lists/$a.info");
}

```

자동으로 add해주는 프로그램은 /etc/aliases 화일을 만져야 하므로 root가 실행시켜야 실행된다. 그 밖의 문의 사항은 저에게 해주세요.

3.4.2. 정보연대 SING 메일링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정보연대 SING의 메일링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정보연대는 그동안 정기적인모임과 함께, 일상적인 내부소통을 담보하기 위해서 메일링리스트를 활용해 왔습니다. 메일링리스트를 통해서 서로간의 안부를 확인하고, 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메일링리스트는 게시판과는 다른 의미에서 매우 강력한 소통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메일링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은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보연대의 회원들은 정기적인오프모임에의 참석과 활동에의 책임을 나누어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만,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과의 교류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공감대를 넓혀가기위해서 메일링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정보연대 SING의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시으로써, 정보연대의 활동과정과 각종 자료와 의견들을나누고, 정보통신운동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보연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이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의 건설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보다많은 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입의 요건은 인터넷 메일을 쓰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근 가능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통하여 자기 계정을 부여받을수 있겠죠. 나우누리같은 경우, 나우계정만 있어도 인터넷 메일을 사용가능하니-go imail 해서-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메일로major@superbear.snu.ac.kr²⁶⁾로 메일을 보냅니다. 제목은 아무렇게나 치고,본문에 subscribe sing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되었다면, 잠시후에 major로부터 succeeded라는 답장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sing@superbear.snu.ac.kr²⁷⁾로 메일을 보내면 메일링리스트에가입된 모든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sing@superbear.snu.ac.kr 로 보내진 모든 메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일링리스트에 관련된 다른명령들을 알고싶으시면, major@superbear.snu.ac.kr로 메일을 보내 제목은대충치고, 본문에 help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major로부터 명령어 목록이 담긴 답장이 올 것입니다.

예) unsubscribe sing : sing메일링리스트 가입해지

who sing : sing메일링리스트에 등록된 사람들 목록

정보연대에서는 sing메일링리스트와 함께, ngo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go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는 방법은 sing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SING A SONG vol.1 #1에 나와있습니다.) 즉, major에게 메일을 보내 본문에 subscribe ngo하면 되는거죠. ngo메일링리스트에도 많은 분들이 가입하길 바랍니다.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디만,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26. 지금은 list@mail.sing-kr.org로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27. 지금은 sing@mail.sing-kr.org로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3.5. 통신연대 월례포럼

SING A SONG 에서는 진보통신단체들의 모임인 통신연대의 월례포럼 보고와자료들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고있습니다. 모임 내적인 언급 등도 있지만, 침착하지 않고 그대로 실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월례포럼에서는 노동자뉴스단 대표이신 김명준님을 모시고 '뉴미디어와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료는 매끄럽게 정리된 글이 아니라 발제문이지만, 그대로 실습니다. 통신연대에서는 2회 월례포럼 이후 01410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 24일 모임을 가졌구요, 사회단체에 대한 '컴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3.5.1. 1996년 2월 11일 통신연대 두번째 월례포럼 보고 (장여경)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참세상 아이디입니다.
얼터너티브: 이현수(알트넷)님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기영삼(물꼬림)님 // 전국대학과학기술단체모임: 원낙연(yanni)님, 양희진(lurlu)님 // 정보연대 SING: 오병일(SING)님, 이진호(narcasse)님 // 진청이네: 오용호(jinyouth)님, 박대균(나우:steinem)님, 이유미(나우:Onyu)님 // 참세상: 김형준(smallake)님, 강경수(ilsf)님 // 청년정보문화센터: 박준호(nowINC)님 // 현철동: 김바로(zspt)님, 전형재(천리안:kdkjkkk)님, 박성범(천리안:nachalo)님, 박소연(천리안:philonia)님, 박찬수(천리안:ghostman)님

■ 주제강연 및 토론

통신연대의 두번째 월례포럼은 김명준님(노동자뉴스단 대표)을 모시고 "뉴미디어와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회는 정보연대 SING 오병일(SING)님께서 보셨고, 진청이네 오용호(jinyouth)님께서 서기를 맡아주셨습니다. 3번 게시판(go jinbo 3)에 강연원고(108번)와 토론내용(109번)이 각각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뉴미디어와 사회운동"이라는 화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해답을 찾아야겠죠. 김명준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혹은 이리저리하게 든 단상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3번 게시판으로 오십시오.(특히 위에 명단이 공개된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 들었으니 필히 숙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쉰렁한 통신연대 게시판은 통신운동에 대한 열기로 채웁시다!

■ 3월 월례포럼

3월 월례포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게시판지가 발제자 섭의를 하고 있는데, 확정되는대로 발제자와 장소를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때: 1996년 3월 16일 토요일 오후3시
* 곳: (장소 다시 공지)
* 주제: 정보 검열과 통제
*주제에 관련이 있고 토론에 도움이 될 글들을 3번 게시판에 추천해주시시오 [포럼]이라는 말머리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01410 접속료 부과

한국통신의 요금부과 연기 발표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이번사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01410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연구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하다면통신연대의 실천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임을 아래와 같이 우선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참여가 힘든 회원 단체들은 의견을 2-3번 게시판에 밝혀주시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때: 2월 24일(토) 저녁7시
 - * 곳: 신촌 전통찻집 한 (전화:334-8568)
 - * 준비: 01410 진행상황에 대한 개괄 파악
- (통신연대 2-3번 게시판(go jinbo 2 3)이나 각 통신망의 01410 대책회의의 게시판 참조)

■ 컴활에 대해

정보연대 SING에서 제안한 "컴활"(1번 게시판 423번 참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간 간간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사회단체 컴퓨터 교육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이 활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활동하는 이들의 의지와 배우는 이들의 필요성이라는 충고를 받아들여 통신연대 내부의 토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컴활에 대한 게시판을 마련하여 정보연대 SING의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여 다음 모임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곧 게시판에 개설되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읽고 반가웠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반가움을 곧 실천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부도 함께하고 의견도 활발히 나눕시다.

3.5.2. 1996년 2월 24일 통신연대 모임 보고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참세상 아이디입니다.
01410 대책회의: 이동영(014xy)님 // 노동문제연구포럼: 황승하(nowlabor)님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최세진(k2barun)님 // 얼터너티브: 정미아(알트넷)님 // 진청이네: 오용호(jinyouth)님 // 찬우물: 이한승(나우:이드)님, 박현태(nowcw)님 // 참세상: 김형준(smallake)님 // 청년정보문화센터: 박준호(nowINC)님

■ 01410 대책회의와의 만남

24일 모임은 사실 지난 2월 월례포럼 자리에서 최근 01410대책회의의 활동 등 유료화 문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활동에 있어 통신연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제안된 자리였습니다. 좀더 심화된 내부 토론과 결의 과정을 위하여 통신연대 회원단체들의 내부 모임으로 진행하고자 했지만 대책회의의 참가로 오히려 더 좋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먼저 대책회의에서 오신 이동영님의 말씀으로부터 모임을 시작했는데, 대책회의가 통신연대에 기대하고 있는 활동은 요컨대 1) 통신연대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의 집단적 결의 등 단체활동으로 통신공간에서의 여론 활동 2) 01410 사태로 바라본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타개책에 있어서의 의견교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단체들은 1)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역량과 시기성의 문제 등으로 일단 보류하기로 했고 2) 부분에서 동참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땅의 정보통신민주화에 대한 장기적인 모색은 이미 통신연대의 활동으로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미 월례포럼 등의 활동을 통해 그 단초들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임의 초반이라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 스스로 확신을 가진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나 순발력있는 대응을 하기 힘든 체제라고 하더라도 01410문제는 우리가 현재까지 어렵게 만나왔던 지점들을 일단계 확대해 반드시 함께 짊고 넘어갈 만 하다는 것이 그날 토론에 참가한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날 대책회의와 통신연대의 만날 지점에 대해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같습니다.

- 1) 통신연대는 01410 문제에 대해 현재처럼 2-3번 게시판(go jinbo 2 3)을 통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책회의와의 의견 교환을 한다. 지금처럼 몇몇 단체들에 의한 단발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01410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단체들은 계속 고민의 성과를 올리고 한편 각 단체들은 이러한 의견들을 각 단체로부터 소개하여 적극적인 온라인 연대를 꾀한다. 이 활동들은 각 단체들이 각 통신망의 대중적인 이용자 모임, 즉 동호회들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와 대책회의의 지속적인 만남을 주선한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
- 2) 4월 월례포럼을 이 주제로 진행한다.

한달여의 기간 동안 풀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집중선정하여 통신연대가 월례포럼 자리를 마련한다. 대책회의는 문제의 선정을 주도하고 통신연대는 필요한 자료나 강사 섭의를 책임진다. 이 자리는 대책회의와 통신연대의 만남의 자리일 뿐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투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근거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

위 1)과 2)의 실천사항들은 현재 수준의 통신연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이라고 하였지만 어쩌면 최소한의 활동일 것입니다. 참가하고 있는 단체 여러분, 특히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계신 각 단체시상 및 간사 여러분의 의지와 동참을 요구합니다.

■ 통신연대 정책팀(?연구팀?) 결성에 대하여

사실 2월 월례포럼에서 제안하기로는, 이번 01410 문제를 비롯한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감시할 정책팀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4일 모임을 소집하기로 하였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팀(?연구팀?)은 통신연대의 지속적인 발전, 월례포럼의 성과 속에서 좀더 고민되어야 할 사항이고, 특히 통신연대 회원단체들이 좀더 많이 모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고민의 여지를 남겨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현재 단체 내부에서 정책팀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연대 SING의 제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얼굴

24일 모임에서는 이번에 총회를 통해 새로 찬우물 시삽이 된 이한승님과, 피뢰침님의 뒤를 이어 새로 통신연대 간사의 자리를 맡으신 박현태님의 반가운 얼굴을 뵈 수 있었습니다. 마침 모임에 참가하신 단체 대부분이 나무누리에서 활동하고 계신지라 나무누리 진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활기찬 토론을 하시던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대책회의 이동영님과 더불어 뒤풀이 자리에서 이숙하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쉬워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오늘의 반가움이 앞으로는 든든한 연대의 끈이 되기를 바라면서 3월 월례포럼을 기대해 봅니다.

사족) 그냥 이야기입니다.

- 3월 월례포럼에 대해서는 곧 공지하겠습니다.

- '컴활' 게시판 등 조금 미루어졌던 일들을 곧 처리하겠습니다.

- 부탁하신 자료를 가지고 모임에 나갔고, 기달렸는데, 이 게시판지기를 배신하신 SING여러분! 이 섬섬함을 어떻게 달래주실 건가요?

- 왜 회망터 분들을 요즘 뵈 수가 없을까요? 지난 11월의 민주노총총범 때 눈부신 활동을 해주셨는데 - 그때 통신연대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에 아직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통신연대가 발걸음에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 어떤 회원분이 그러시더군요 "통신연대가 뭘 할 수(나) 있을까요?"그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뒷면이지요. 그러나 통신연대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필요가 없다면 만들어지지 않았겠지요? 누구의, 어떤 필요였을까요? - 요즘 문득문득 드는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란 왜이리 힘든지요.

- 우리 모임이 있던 다음날 하이텔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의 11차 총회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새로운 시삽진이 탄생했는데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얼굴을 뵈고 싶군요. 간사는 허태영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인가요?

- 단체들의 소식 - 총회소식, 행사 - 이런 기쁨들을 좀더 적극적으로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올려주시고, 거꾸로 통신연대의 이야기도 이리저리하게 각 단체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이참에 부지런히 활동하셨던 피뢰침님이 보고 싶어요! 간사를 그만 두셨더라도 뵈 수 있는 거죠?

3.5.3. 뉴미디어와 사회운동 : 뉴 미디어에 대한 두서없는 걱정 (김명준)

■ (뉴) 미디어 시대

- 민주주의와 행동통일 : 파업기간의 힘은 정보에서 나온다. (CWC) : 조직내부, 혹은 공동체(Cyberspace를 매개로 해서, 혹은 현실공간의 조직에 기초해서) 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특정한 정치적, 정책적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 덧붙여 특정한 행동을 (Cyber or Real) 촉구하고 조직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 창조적, 의사 표현 수단 혹은(동시에) 문화활동으로서 : 멀티미디어로의 전화에 따른 혼재만은 아님

- 정치적 혼란 : 좌파의 혼란, 실패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노동운동의 부활?, 계급적 격차의 확대, 미국의 독특한 상황 : 보수화, 노동운동의 재생,우민화,

인디의 상업화, NPO의 원초적 고전과 편당의 축소, 싸이버 여파의 등장, 한편으로는 뉴 미디어에 대한 대응..., 남아프리카의 고민 : 자본주의사회 좌파의 공식적 영향력이 오히려 좌파의 입지를 축소시킨다? 노조운동의 새로운 방향, 개량과 반복의 역사가 놓여있을 수도 있다.)

■ 19세기말보다 더더욱 암담할 지 모를.

(1) 국가간 불균등성과 사회내의 계급적 재편 확대 (자본주의적 발전)

1) 남북간의 격차 확대 : 회의 시기의 고민, 쟁점 (전자우편 활용 정도, 인프라, 비디오 컨퍼런싱, 테크노 파티의 사치, 한글 전자우편의 발송 불능과 디지털 접속 단자)

그런데, 한국의 위상은? Developed Country but least public interest and most strict control (violent and ideological)

2) 사회내의 편제 : 뉴 미디어가 초래할 사회계급의 재편

가설 1 : info have and have-not

가설 2 : info have now and have then

가설 3 : info elite vs info mass

- 자세한 편제는 과연... (경제적 구조와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의 쇠신이 강제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의 독자적인 영역에서 복지 혹은 액세서로 ... : Homeless의 사례, 기존 기업내부의 전문가 영역의 변화 - 테크노크라트의 대두, 현재 WWW 사용자의 외국 거주 비율과 기관 소속 사용자의 비율)

(2) Convergence (Telematics = Information Technologies + Communications)

신호의 통합이 자본의 각축전으로 전화되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던 제반 산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격변이 시작된다. 공존과 합병, 그리고 전투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산업의 재편은 누구에게나 위기와 기회로 동시에 작용한다. 대자본의 출현과 시장의 변화,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독점과 지적 소유권의 독점. 적은 명확해지고, 균열과 파열음, 시장의 혼미, 대중에 대한 새로운 동의를 창출, 적과의 동침 혹은 적의 적은 가끔은 아군이다.

(3) Interactivity

새로운 미디어는 패키지화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른바 대화형(상호작용성)의 성격을 지닌다. 기술적 진보의 한 양상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대화형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그것이 어떤형태의 진보가 될것인지...

- On-board Interactivity & Out-board Interactivity

- Network상의 Interactivity 의 범주별 구분

- VOD 의 쟁점 : 불균등한 정보 stream

- 상업적 서비스의 자기 모순 : 수동성과 제한된 능동성

(4) Being Digital

비트와 바이트로 대표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각각의 산업 분야에 상호적용성을 주입시키고, 수렴현상을 일으키게 한 근본원인이다. 신호의 디지털화는 (플랫폼 혹은 프로토콜의 차이에 따른 상호 변환이 전제되는 한 복제의 무한성과 변형의 확대 재생산, 그리고 비선형적 신호처리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양상은 산업의 생산과 판매 전략뿐만 아니라 NPO 혹은 진보적인 운동집단의 매체 활동의 양상을 변화시킨다.

- 검열(Yahoo 검게 되다, Decency Act), Encryption, Copyright, (Copyleft : 원리는 간단하다. 누구나 복제할 수 있다.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나 만일 이윤이 발생하면 창작자에게 환원한다. : Media Filter) Printed material의 on line service (NPO의 경우도 편차가 있음),

Non-linear editing facility, Digital Video & Direct Interface (전달 용량 네트워크의 한계), MIT의 경우 - Storytelling, Editing

(5) 잠깐 종합 : Anarchism, Alternative, Grassroots, Democracy, Labor Movement, Left

- 네트워크의 무정부주의적 성격 : 그리고 실제 무정부주의자의 득세 (물론,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박해받는다. Hacker의 대다수 사상적 기반)

- 대안적 성격, 민중적 성격의 부각

- 새로운 공간의 민주주의와 구시대의 민주주의 (정치 혹은 미디어 : 통신 공간의 좌파 엘리트 득세, 노동운동의 상대적인 활용, * 그리고 구시대의 법이 새시대의 법을 강제한다.)

- 노동운동 : 기존 미디어의 절대 Minority, Biased Mass --> 상대적으로 활용이 많다. 그러나, 간부 중심적이고, 관료화 방지의 기능을 가지기는

근관 : 우리 교육의 사례) 그러나, 역사상 지구상의 모든 노동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시기는 결코 없었다.

■ 수용자, Public Interest, Access

(1) 변화는 위기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기도 하다.

(2) 뉴 미디어에 대한 대응의 방식은 거칠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1)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과정에 대한 개입 -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개입의 성격을 지니며, 구사회내에서 새로운 변화의 맹아를 형성해가기 위한 개량과 변혁의 딜레마를 본질적으로 지닐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폭넓은 축적과 그 접근에 대한 제한이라는 모순은 변화를 희망하는 이들의 고통을 수반한다. - 뉴 미디어의 선택적 도입과 보급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개입

2)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과정에서 공공 영역의 확보 - 상업적 서비스의 주도속에서, 공공적 성격의 부각을 통해서 획득해야 할 내용은 다양하다. 1)의 활동의 연장선속에서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쟁점의 제기속에서 다양한 공간과 투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공간내부의 민주주의의 확보 - 이른바 검열, 상호작용과 연관된 쟁점

4) 새로운 신기술을 진보적 사회운동에서 대중적으로 활용 - 시스템의 변화 이전이라도 상용화된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뉴 미디어에 대한 대응과 활용을 대중적 토대에서 전개시켜나가고 기존의 운동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이다. (DTV등)

5) Synergy : 뉴 미디어와 올드 미디어, 미디어와 인간, Cyerspace vs Material World - 빠른 변화에 착목하면서, 지역 사회의 파괴를 반대하고..

(3) 액세스 혹은 보편적 서비스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

이른바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접근권의 개념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가장 중요한 활동의 기축이다.

1) 하드웨어에 대한 액세스

2)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

3) 훈련과정에 대한 액세스

4) 정보 고속도로의 진입로에 대한 액세스

5) 재정적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 진입뿐만 아니라 머무를 수 있도록..

6) Access to Public Policy Decision (Civic Journalism <-> Market Journalism)

* Public Interest Principals (정보 통신 정책 원탁회의) - 통신의 자유, 필수적인 시민의 섹터, 다양하고 경쟁가능한 시장구조, 작업장의 평등성과 노동조건 개선, 프라이버시, 민주적 정책 결정.

■ 뉴 미디어 산업의 등장과 노동력의 재편 : 위기 혹은 기회

* AGENDA FOR ACTION (CWA)

1) 정보산업에 있어서 수렴 현상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고용문제와 산별체계의 변화(미국의 경우), 작업장의 통제 조건(미국의 피자 회사 사례, 블랙 박스), 신기술의 교육, 훈련

2) 산업의 전지구적 변화 상황에서 노동자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 뉴 미디어와 노동자의 역할, 노동운동의 활용, 정책 확보(강령적, 민주주의 투쟁의 일환) 정부 정책에의 개입(캐나다의 사례)

3) 이런 상황속에서 노동운동과 여타 조직은 어떠한 연관을 맺을 필요가 있는가? - 시민운동, 통신운동, 과학자(?)

5. 새로운 네트워크 및 패키지

(1)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 APC : 저렴한 비용으로 앞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슈. 현재 15000명 이상, 94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접속 사용중. 아시아 노드는 페가수스(호주)

- Media Filter, Digital City

- Focal Point의 활동

- Community On-line Network

- Censorship Issue : Software를 통한 대응

- Commercialism : Poland의 사례 (전자우편과 웹 사이트 접속회수에 따라...)

- 온라인 배급 : 올해 Party Girl의 사례 (CU-see Me 로 50,000 \$ 소요)

* www.human.com/inc/ : Non Profit Center

www.igc.apc.org/index.html : IGC

www.ai.mit.edu/people/ellens/non-nopic.html : NPO in Internet

www.eskimo.com/~pbarber/npo-faq.html : Non Profit FAQs

- 온라인 배급 : 올해 Party Girl의 사례 (CU-see Me 로 50,000 \$ 소요)

- 지역 네트워크 활동

- " 현재까지는(!)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의 주요 사용자는 진보주의자이고, 좌파이면서, 사회활동가들이다. " (보수파 연구소 연구원의 표현) : Oppositional Public Space

- 주류 미디어는 당연히 반노동자적이다. (Systematic)

- Global Assembly Line 과 International Solidarity

- Information is everything during the strike.

1) 수렴에 따른 산업 재편

2) 리엔지니어링과 고용문제, 작업 조건

3)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노동자 통제

4) 미디어의 활용 (New & Alter)

- 주류 미디어는 당연히 반노동자적이다. (Systematic)

- New Media 의 강점 : 국제주의의 부활, 민주적 소통(rank and file) --> 그동안의 국제주의가 노조 상층부 중심의 의사소통이었던 것과는 다르다.(관료주의적 노조 체계인 경우 상층부 중심의 논의 구조가 갖는 한계)

5) 인터넷을 통한 활동

* 참고 : 북미 2100만 조직 노동자, 국제적으로 1억 1100만

94.11 샌프란시스코의 Free Press : 12일간의 스트라이크, 독점자본이 대중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접근. 사실, 세기전만 하더라도 유일한 국제적 조직은 노조뿐이었다. 그러나, 이후 관계는 역전되었고, 자본축이 국제화의고지를 독점했다. 이후 70년대의 소수 선구자를 뒤이어 8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의 국제 연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재개되었다. 그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조직활동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고, 때로 일부 노조는 협상 테이블에서 자본보다도 우세한 정보력을 과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까지 하고 있다.

* 공격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다. 짐머만의 경우 / 그리고 1995년 2.28 이태리의 경우 무정부주의 운동가의 가택 급습 - 민주절서 문란죄로 저널, 컴퓨터 등 압수(7-15년 징역 예상), 영국의 경우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을 핑계로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은 정보망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검열,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주목을 끄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로 모아진다.

물론, 상업화의 경향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

* WWW Site 사례

LaborNet : www.igc.org/igc/ln.html

영국 노동당 : www.poptel.org.uk/labor-party

네덜란드 노동당 : www.pvda.nl/indexgb.html

캐나다 신민주당 :

www.ncf.carleton.ca/freeport/government/fedelect/nat/ndp/menu

Economic Democracy Information Network : gamet.berkeley.edu:3333

SF Free Press : www.cnet.com/SF_Free_Press/welcome.html

기타 영국의 Poptel, 러시아의 GlasNet 등..

* 문제점

영어권이 주도, 비용의 문제, 보안의 문제, 남성위주

특히 화이트 칼라들이 적극적이거나, 중심이 없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2) 한국적 뉴 미디어(?) 유선방송의 퍼블릭 액세스

1) 메커니즘과 가능성 - 지자체, 그리고 미디어 민주주의

2) Alliance for Community Media, South Africa의 시범 사업 개시(95.6월)

* 그 의미와 목적 : 제작, 교육, 기타...

* 발원지는 미국, 이후 독일, 인도 등으로

3) Leased Access

4) Independent Specialty Channel

(3) 정보 고속도로의 사업 추진 과정과 그 함의

1) 국제적인 대응 방식과 사례

2) 일국적 대응방식과 사례

* 정책적, 법적 문제의 대두 : 미국의 사례 - 최근 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쟁점

1. 구법의 쟁점은 일정한 규제에 있으며, 새로운 법안의 쟁점은 경쟁의 촉진과 경쟁의 평등성에 있다. 전화회사의 독점 사업권은 철폐되었고, 동시에 전화회사의 영상 서비스는 허용되었다.

2. 지역적인 액세스의 경우, 구법체계에서도 강제조항은 아니었다. 새로운 법안에서도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획득해야 하는데, 연방정부 차원에 비해 어렵다. (한국과 비교하면 ?)

3. Decency 의 이슈 : 사이버스페이스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 통신 서비스상의 검열은 ? : 구법의 한계와 제약, 새로운 쟁점들.

(4) 기타 네트워크 계열

1) 위성

- Deep Dish / Global Access : WETV / Allan Fountain

- Feed : New Media Guerilla

2) VOD 와 인디펜던트

* MacWorld Survey : 투표, 서적 서치, 원격 교육, 지역 학교 정보 등이 상위권

(5) 패키지 - 씨디 롬 혹은 DVD

- Who built America ? Salt of the Earth, Amnesty International...Rehearsal of Memory 의 사례 (다큐멘터리와 씨디 롬의 동시 개발)

- Magazine의 가능성 (네트워크에 대한 관점 ???) 그러나 아직 속도가 느리고...그렇다면 운명은... 교육적 효과, 그렇지만 활용은 가능한가 ? SF 미디어 센터의 사례

(6) DTP --> DTV : Nonlinear Editing Process 와 교육, 그리고 제작활동

- EP의 사례 : 비디오를 16밀리로, 아미가 활용, 극장에 배급

- Digital Vdeo + HDTV

* Nonlinear System (1.5)

- 훈련에 유용 : 랜덤 액세스의 강점

- 효과의 활용 강점, 업그레이드

- 작업의 필리티도 당연히 증대

(7) 문화센터와 디지털 미디어

- 디지털 미디어 센터, 커뮤니티 미디어 센터, 레이버 액세스 센터...

(8) 뉴 미디어와 올드 미디어의 활동의 상호 연관과 결합 : 활용이 가능한 근거와 강점

- 라디오의 경우, 비디오의 경우... * Old Media = Radio (90년대...- 브라질, 네덜란드...)

- 매일의 일상과 밀접하게 접근한다.

- 다른 일을 하면서도 향유할 수 있다.

- 소규모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 무차별하게 살포가능하다. (소수 가입자 위주가 아니다.)

- 값싼 테크놀로지이다.

- 그 자체로 지극히 인터랙티브하다.

■ 전략, 전술, 고민

(1) 정치 상황, 노동운동...예상

(2) 뉴 미디어의 도입을 둘러싼 사회내의 계급적 편차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

(3) 비디오에 대한 회고와 전망

1) 비디오의 가능성 : 제작, 대중의 참여, 운동적 가능성(상대적 열세의 극복)

2) 비디오는 기술적 소재일 뿐이다. : 퍼니스트 혹은 대안적 미디어로

3) 비디오에 있어서조차,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매체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차이 : 산업 전반의 변화, 대중과의 괴리, 무정부주의적, 활동가의 무지...(변화...)

(4) 재정과 인력, 그리고 공간, 그리고 근거지

- 자본의 문제 (상업주의의 문제)

- 기금의 문제 : 없다면 망하고 (Cendit, Magic Lantern의 3년간 프로그램의 문제)그러나, 초기 투자에 있어서는 필요 = Funding = Infrastructure

- 미디어 센터, 기업...

(5) " Information Superhighway & Public Interest "

정치적 영향력의 부재와 상업적 서비스의 독세속에서도, 전문집단과 자발적인 활동가의 노력

- 정보, 그리고 그에 기초한 판단, 그리고 조직된 힘 (명실상부한 대중운동으로서)

3.6. 서울대 공대새터 강연

3.6.1. 총평

지난 2월 24일 정보연대 SING은 96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새내기새터배움터(***편집자 주: 신입생 Orientation 이하 새터)에서 정보관련 강연을했다. 새터에 참가한 인원수의 문제와 장소여건이 마땅치가 않아 같은 강연을 3번씩 반복해야만 했으므로, 시간에 쫓겨야만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지만,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처음 해본 이번의 강연은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준비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시스템세팅에 관련된 문제는 바쁜 일정에 쫓긴 공대학생회와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싶다. 다음기회에는 좀더 세련된 기획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래에 실린 글은 강연문 전문과 그에 대한 청중들의 감상글이다. 강연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시간은 약 40여분 정도 소요되었다.

3.6.2. 강연문 : 너희가 정보를 믿느냐?

손끝 하나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세상!

- 삼성전자의 광고카피 중에서

누가 너에게 생각하라고 했나? 나는 너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 영화 토달리콜 중에서

■ 들어가며

소설 '장미의 이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나는 '지식정보의 힘'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를 선택할 것 같다. 진리의 모든 체계를 신성한 삼위일체의 양식에 기반하여, 그것을 모든 신분체계, 사회체계, 심지어 지식의 체계에까지 확장, 결국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념을 낳게 한 중세 암흑기의 세계관과 이제 막 태동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합리적사고방식, 계몽주의로 대표되는 인문주의가 벌이는 흥미진진한 일대격전. 그 싸움은 당연히도? 윌리엄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인간형이 뜨겁고, 화려하게 승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소설이 흥미있게 읽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인공 윌리엄 수도사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형으로 생각하기(보다 정확히는 교육받았기)때문이라고 한다면 무리가 있을까? 한가지만 더, 이 소설이 영화화됐을 때 윌리엄수도사를 분한손 코넬리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성인들의 동화 007시리즈"의 주인공 본드역의 선구자였다는 사실에서 필자가 묘한 아이러니를 느낀다고 말한다면 너무 건너뛰는 것이 될까? 이지적이고, 활동적이었던, 그야말로 지식과 합리성의 힘을 대변했던 윌리엄수도사의 현대판은 냉전이테올로기와 자본주의체제의 수호자 007이다?!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꺼내려고 하다가 이야기가 너무 옆길로 센것은 아닌가 싶다. 소설과 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이제 오늘의 몸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인 것 같다.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재미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므로..

■ 우리들 주위를 소리없이 배회하는 유형, "정보화사회"의 일그러진 두 얼굴

한 사회를 연구해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그 연구의 방향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미래에 관한 비전,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대한 꿈에 관한 것이라면, 광고는 그것을 징후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꽤나 중요한 자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고는 현대의 신화, 꿈이 아니던가! (텔레비전, 라디오등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삶을 살아가야하는 우리들의 눈과 귀는 그야말로 24시간동안 무방비 상태로 광고의 무차별음단폭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의 자아는 '코카콜라' 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모를 지경이다.) 특히나, 미래에 관련된 이미지를 광고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분야는 소위 첨단산업, 특히 정보에 관련된 산업일텐데, 그런 광고에서는 요즘들어 부쩍 전에는 보지 못하는 단어들(가득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멀티미디어, VIRTUALREALITY, INTERNET, 화상회의, VOD, GIL, NIL.. 등등의..

복잡한, 그래서 일견 화려해보이는 단어들을 통해서, 그러한 류의 광고들이 제시하는 미래상은 테크노피아, 휴먼테크 등의 인간의 가치가 마음껏 발휘되는 아름다운 이상사회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빼놓아 댄 수 없는 광고로서 각 대기업들의 신입사원채용광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작업은 한 기업에 있어서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형을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그광고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한 단면을 볼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입사원채용광고의 경우, 예전의 딱딱한 카피 문구들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나온 카피 문구들은 '특별 튀는 창조력을 갖춘 바로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끼를 모집합니다.' 등의 개인의창의성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28).

이런 광고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우리사회가 지금 그리고 있는 미래사회의 모습은 지식을 중심으로 한 보다 발달된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반 네트워크가 점점 발전되어 전체적인 사회유기화의 수준이 높아지는보다 편리한 사회, 그리하여, 이전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적인 관료형의 인재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개성적이며 다양한 분야의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인간형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회는 보다 다원화되고 인간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일 것이다. 이런현상은 몇년전부터 갑자기 많은 미래학 서적들, 신경영전략류의 책들, 그리고 정보화사회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느정도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니, 지금 남한의 상황은, 드디어는 그런 슬한 미래학 서적들이 그렸던 미래 사회에 대한 이론적 대표자인 엘빈토플러까지도 우리나라 모기업의 광고에 나오게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과연 지금의 우리들의삶은 그렇게 행복하다 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삶은 과연 10년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창의력의 발현과 개성을실현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가?

남들보다 시계를 5분 빨리 맞추어 놓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컴퓨터를잘 다룰 줄 안다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창의성의 개발이며 개성의 발현일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하고 싶어 하는가? 차라리, 그렇다기보다는저 앞에 앞서가는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그리고 뒤에서 추격하는 사람들에게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를 악물고 영어학원과 컴퓨터학원을 전전하며, 파김치가 된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폭 쓰러졌다가 다시 새벽이 되면 다시 전경터로 나가야 하는 것이 그놈의 국가경쟁력강화이테올로기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1996년 남한땅위의 인간들의 눈물나는 자화상이 아닌가? 만약에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젠 우리는 그러한 막연한 의문을 보다 정교화시키고,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아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엘빈토플러씨... 질문 있는데요!

위에서 다수 미래학자들의 견해라고 언급한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은 광고를 통해서 징후적인 추론을 통한 것이었으므로, 보다 엄밀한 논의의 전개가필요 할 것이다. 강연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그들의 논의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사회를 후기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새로운 전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체제의 변화가 오고 있다.
- 이전의 국가 중심의 경제관에서 개별기업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 이제 제조업중심의 공장굴뚝시대는 가고, 지식중심의 정보산업의 시대가 왔으며, 육체노동보다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기를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된다.
- 기업의 관료적 시스템은 새로운 사회에 맞게 변화하여야 하며, 현재 그러한 과정에 있다. 그 결과 중간 관리층은 사라지고, 개인들은 창조력 그 자체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 정치의 영역에서는 공간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만 가능 했었으나, 통신의 발달로 전자민주주의(텔레데모크라시)가 현실화되고 있다.

28. 최근 발표된 교육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보다 이러한 경향을 확실히 감지할 수 있다. 실제의 결과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전의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개개인들의 개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것이라는 생각을 들게한다.

수많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거를 들어가며, 이러한 논리를 강변하는 그들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는 결정적인 한계는 그들의 미래사회학관은 기술결정론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결정론이란 말안장이 중세사회를 가져왔고, 중기기관이 자본주의체제를 탄생시켰다는 식의 기술을 사회변혁의 원동력으로 일면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기술이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가치를 보다 발전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사용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는 그 기술을 개발해낸 사회의 선택의 문제이며,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결정과 연관된다. 따라서, 우리가 정보사회에 관련된 담론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논의에 대한 사회경제적, 역사적 맥락을 짚어낼 수 있을 때에만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정보사회가 이야기되는 맥락을 한 번 살펴보자. 앞에서는 주로 남한의 경우만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세계적 차원의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정보사회라는 말을 유행하게 하는데, 미국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후 팍스아메리카나를 구가하게 했던 대부분의 산업기술은 이제 일본, 독일, 그리고 NICS에 의해 무역역조가 생길만큼 남아버렸거나 따라갈 수 없는 분야가 되어버렸다. 이젠 더 이상의 이전의 대량소비체제와 복지국가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이윤창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것의 결과는 매년 시달리게 되는 쌍둥이적자와 높아만가는 실업률로 이어져, 드디어는 복지수준을 낮추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멕시코와 같은 인근 나라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경제블록(NAFTA)을 형성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리엔지니어링' 등의 신경영전략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재교육, 대량해고를 단행 기업의 감량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이윤창출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역의 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국주의 시절부터 전통적인 수단이었던 힘을 동원하는 방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선택된 새로운 이윤창출을 위한 상품은 전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문화영역의 각종 서비스업과 환경과 정보분야. 정보 분야에서는 WTO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았고, 환경분야에서는 그린라운드를 통해 제 3세계 나라들에게 이를 강제시킨다. 이렇게 시장을 힘으로 형성한 미국은 정보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그것을 위한 기간 네트워크로 국가정보하부구조(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을 발표, 2015년까지 1조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국단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세계시장 전체를 범위로 확산, 미국 및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정보하부구조(GII)의 구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역내 국가들을 연결하는 초유럽 정보망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은 아시아정보하부구조(API)를,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정보하부구조(APII)의 건설을 각각 제안하고 있다²⁹⁾.

이와같이 지금 사회전체적으로 무수히 쏟아지는 환상적인 정보에 관련된 담론들의 이면에는 자본주의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상품으로서의 정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는 정보사회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명확한 비판의 지점을 획득할 수 있게된다.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미래에 도래할 정보중심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평등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이상사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모순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보빈자와 정보부자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³⁰⁾.

분명히, 현대의 생산발전단계에서는 지식/정보가 생산수단의 핵심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거대 독점자본의 손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가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사용될 정보/지식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미래는 테크노피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텔레스크린을 통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감옥(판옵티콘)일 뿐이다.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는 즉시, 그것은 바코드와 POS시스템을 통하여 거대기업의 중앙전산실에서 곧바로 시장데이터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 묘사한

29. " ... 이점에서 엘빈토플러의 <제3의 물결> 역시 60년대를 정점으로 무역수지와 재정에서 쌍둥이 적자, 월남전의 패퇴, 이란 인질사태, 국내 정치상의 혼란, 경기침체등을 통해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가 쇠퇴함에 따라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던 미국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 <제3의 물결>은 좀 더 실용주의적인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구미에 맞는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위로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플러 미국식복음의 전파자인 전도사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정보사회의 '전도사'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강정인, 정보사회와 원격민주주의, 계간사상 1995년 가을호.

30. 강명구는 그의 논문 '정보통신과 정보민주주의'에서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과 오디오, 컴퓨터와 컴퓨터통신의 이용에 관한 실증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이들 결과를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몇가지 중요한 함의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도서관 이용의 자료와 인쇄매체에 관한 분석이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듯 정보테크놀로지의 소유여부와 그것의 사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 두번째 분석결과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새로운 정보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보급이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통신은 ... 신문잡지에서 보듯 불평등한 소유와 사용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자료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두가지 함의는 정보테크놀로지의 발전 자체가 정보의 생산과 사용기회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들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137개의 감시기술을 위한 고안품들중에서 100개가 오늘날 바로 실용가능하다고 한다. 돈이 지불되어야만 한 통화의 전화, 한 bit의 정보, 한 화면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결국 돈이 없기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미국성인의 1/3이 문맹이라는 반원시적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감옥이 등장하고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생산력의 발전은 자연과 인간의 육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양식에서 지식정보가 사회적 생산의 핵심을 이루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핵심적 계기에 놓여있는 지식정보는 그 특성상 사유화되고 독점화되기보다는 누구나 접근가능하게 공공의 영역에 놓여질 때에 사회전체적으로 더욱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다³¹⁾.

미래학자들은 정보의 이러한 특성에만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현실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도외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지금 우리들의 정보는 두가지 갈래의 길 위에 놓여 있다. 지식/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해서 무한한 생산력의 발전을 이룩하는가와 거대자본의 지식정보독점으로 또다시 새로운 야만의 시대를 경험하는가의 사어에. (이미 석상할 정도로 수 많은 SF영화와 소설들이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 소설 1984년, 블레이드런너, 포트리스, 토달리콜 등의 영화는 비록 그 해결의 방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암울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현대에서의 여러 가지 징후들로부터 파악해 볼 때, 우리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과거 노동자들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컴퓨터파괴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것이 좋았는데 하는 식의 복고주의에 다름아니다. 우리의 올바른 대응방법은 현실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의 변화과정을 선도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이루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 벌써 포기해 버리기에 아직 이르다.

■ 암울한 미래의 유쾌한 전복자, 그대의 이름은 해커

우리는 지금까지 정보사회에 관련된 주류미래학자들의 낙관론이 가지는 한계와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한계란 요약하면, 결코 상품으로 취급될 수 없는 정보를 상품으로 만들어 가면서 새롭고 이윤창출을 계속해야만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모순일 것이다. 한 개인의 노동력을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강제력을 동원해야 했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제 정보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지적재산권보호운동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정보는 개인의 독점적인 소유의 대상인 상품이 아니었다. 뉴튼의 만유 인력의 법칙에 지적소유권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라. 과연 지금과 같은 역학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폰노이만은 기술을 가능한 전체 공공에게 접근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특허권을 반대하였다고 한다. 개인의 지적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은 거대기업의 독점적이윤추구를 보장하는 것일뿐인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유품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사회를 상정해야만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지식/정보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개인의 생산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생산이다. 따라서, 그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한 보편적인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유를 이야기할 때 흔히 하기 쉬운 오해는 그것이 모든 불법복제를 정당화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보면, 모든 사회적정보는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사적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정보의 공개와 사적인 정보의 보호는 사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즉, 개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든 외부의 권력기관에 의해서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점점 더해만 가는 정보빈자와 정보부자간의 양극화현상을 막기 위한 보편적 접근은 정보를 공기와 물과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고 상상해 보라. 물은 이미 상품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정보는 어떠한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와 관련된 분야는 이제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자본은 이를 독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다. 점점 상품의 논리가 퍼져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통신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4000만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군사/학술망으로부터 출발한 인터넷은 이제 세계 각지의 네트워크를 묶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되었고, 자유로운 소통을 욕망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덩치를 키워나가며, 아직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 않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과 통제도 없으며,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갖가지 실험이 행해지며, 다양한 성격을 가진 수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쌍방향적인 소통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상업적 가능성을 포착한 자본은 이미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31. 이와 관련하여 흔히들 하기 쉬운 편견하나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히 특허는 개인에게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특허는 결코 개인에게 자신의 지식에 대한 독점적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참고로 특허법 1조를 보자.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1조) 즉, 특허권은 그것을 통한 공개를 장려하고 비밀을 공개하고, 발명자에게 특권을 주어 발명을 장려하고, 기업간의 중복개발을 방지하여, 결국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혁, Copyleft운동을 제안하며, SingASong vol 1.에서 인용)

변모해 나갈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단일한 중앙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탈중심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권력형태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인터넷의 철학에는 많은 것이 있을 것이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기존 미디어에서 사용자는 채널을 돌리거나 스위치를 끌 권리만을 가진 정보소비자에 불과했으나 인터넷 모델에서는 기존의 수동적 정보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 사용자로 변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소비자가 따로 구별되지 않고, 누구나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보를 선택하므로, 정보생산자/소비자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

이러한 인터넷의 철학과 전통에 걸맞게 거기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활동중일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통신의 기능들을 활용(온라인 서명, 항의메일보내기 등)하여 강력한 저항단체로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진보적인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 APC(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사회와 환경변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의 결합, 협력 및 활동을 돕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빈자와 정보부자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컴퓨터기술에 대한 성적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여성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새상네트워크와 이들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은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도구에 대한 광범하고 평등한 접근은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일차적으로는 기술에 관심을 둔 전문가 그룹이지만,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연구내용, 자금지원, 분배 등 기술개발을 규정짓는 정치적 과정, 여성, 인종의 불평등에 관한 제반의 사회문제로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EFF(Electric Frontier Foundation)같은 단체는 통신공간에서 네티즌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밖에도 Lead or Leave는 X세대의 정치참여를 외치며, 단기간에 100만이 넘는 회원을 가진 단체로 급성장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GREENPEACE, SIERRA CLUB 등의 환경단체, 그리고 DSA(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등의 사회주의조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정보의 공유를 기치로 COPYLEFT라는 재미있는 기호를 만들어 낸 GNU라는 단체가 있다. 해커들의 영원한 이상, 최후의 해커라고 칭해지는 리처드 스톨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GNU는 현재, UNIX의 상용화에 대항하기 위하여 Linux라는 운영체계를 만들어서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은 모두 인터넷상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이 소스코드와 함께 공개된다. 이들 활동의 재원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이라는 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운영은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서 일정기금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저급처럼 독립적인 기업아래에서 정보생산자가 활동하던 방식과는 대별되는 정보소비자와 정보생산자의 새로운 결합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감동적인 강령에는 현재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상용화와 지적소유권의 문제, 정보공유라는 가치에 대해 잘 서술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구해서 읽어보기를 바란다. 이들은 상업화로 오염되어 가는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모범적인 대안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대자본의 침투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인터넷공간 및 PC통신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모임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하이텔의 바롱모(바롱정보통신을 위한 모임), 통신탄압사건으로 유명한 천리안의 현철동(현대철학동우회), 나무우리의 천우물, 진보적 BBS로 01410망을 통해서 접속가능한 참새상, 그리고 정보공유를 주장하는 정보연대 SING등이 있다. 이들은 통신공간에서의 검열에 대한 반대운동,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5.18 연대서명운동',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원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01410대책위' 등의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들은 '통신연대'라는 연합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통신공간에서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보연대 SING은 정보의 독점적 소유에 기반한 현사회의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사회관계와 독점적 권력의 지양,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네트워크상의 수평적 개인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현재의 생산력에서 대체가능한 대안적 질서의 구축을 제안하며, 정책팀, 기술팀, Web기획팀 등의 팀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전자신문 SINGaSONG을 발간하고 있다.

■ 마치며...

굴업도 핵폐기장의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애초부터 핵폐기장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정보를 통제하고 엄청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며 그러한 사실을 숨겼다. TV에는 깨끗한 에너지 핵이라는 광고를 연일 내보냈으며, 심지어는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는 그곳에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아갈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많은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싸움으로 굴업도 핵폐기장건설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류의 헤프닝은 계속이어질 것이다. 얼마전 미국 의회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가능하게하는 통신규제법안이 통과되었다. 프랑스의 문화장관은 판금된 미테랑의 주치의가 쓴 책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인터넷은 치외법권지역이 되면 안된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국제법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그리고 음란물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통신공간에서의 검열을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미래사회가 인간의 가치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장미빛 유토피아일지 빅브라더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되는 거대한 감옥일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지배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에 대한 독점과 개인들에 대한 통제, 검열을 실시할 것이며, 거대기업들은 자신의 독점적 시장의 확보를 위해서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보다 인간적인 공간을 꿈꾸며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미래사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³²⁾.

3.6.3. 강연 감상글

3.6.3.1. 96 공대새터 정보강연을 듣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95학번 박성원)

강사님의 달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강사 선정은 OK였구요. 병산의 일각만을 보고도 저는 역시 정보라는 분야를 따로 다루는 동아리³³⁾라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할당된 부족한 시간을 십분 활용하셨습니다. 매우 정말 참 좋았습니다. 이걸 아부가 아닌 전체적인 평가이구요. 세세한 감상은 아래에...

■ 수준과 소재 면에서 : 괜찮았어요

부식들에 올린 글을 보고 신입생들에게 너무 많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강연을 듣고 나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눈물을 머금고 자른 그 노력을 알겠구요. 일단 박수... 짹짹. 광고카피와 영화의 장면의 인용은 이러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소재 선택 면에서는 일단 성공이라고 봅니다. 독창성보다는 새내기에게 무리없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글이니까... 한 친구가 "새내기보다는 우리 정도 수준에 더 맞는 내용이였다"라고 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구요. 제가 그보다 수준이 높아서인지, 새나기를 높이 평가해서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연결 면에서 :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글에서나 강연에서나 좋은 내용에 비해 단어 사용에 문제가 있어 전체의 뜻이 모호해 지는 경우가 있네요. 이걸 다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리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리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이 그냥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비판의 대상인지에 대한 입장 표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네요.(물론 거의 다 비판이었죠?) 구체적 예를 들자면 기술결정론에 대한 부분에서 증기기관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후에 출현한 것이지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부연설명 정도가 있어야 기술결정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강연을 하는구나 할게 아닙니까. 우리야 이미 기술결정론은 비판할 건덕지도 없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지만, 신입생들은 광고 하나하나를, 영화 하나하나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헛갈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찾아보면 이런 거 꽤 있어요.

■ 내용 면에서 : 시간이 웰수라

현대의 국제적 산업기술의 양상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대강 넘어갔던 부분이라 할 말이 별로 없지만, 이니셜 문자로 표현된 여러가지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잘 하실 생각이었을 거라고 믿구요. 의외로 정보 공유, GNU, Copyleft, 해커에 대한 이야기에 강조점을 두지않더군요. 팍팍 강조를 했으면 싶었던 부분인데... 신입생들도 많이 알 거라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설명에 그쳤다는 생각 안 들어요? SING이 잘 아는 부분이 바로 여가 아니었나요? 이걸 시간이 충분하다는 걸 안 후에 강의한 부분인데도(무슨 말인지 알죠?) 최소한 통신에 올린 글 정도의 설명이 강연 때도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텔레데모크라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주제에서 벗어난다 싶더라도 정치적인 이야기도 좀 넣었으면 하구요. 현대 정보화사회의 구체적 폐단과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아닌 "인류가 낳은 생산력의 발전으로 현대사회는 이리이러한 병폐를 안고 있다" 와 같은 상식적인 이야기는 끝에서 잠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어떨지...(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지.) 강연이란 게 다 그렇긴 하지만, 적절한 강조와 시간배당이 쉬운가요, 어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 마치며...

정말로 잘 한 강연 흡잡으라니까 너무 힘드네요. 진짜루. 그게 글 잘 못쓴이유. 그리고 지금 좀 바빠서... 죄송... 소리해오

32. 참고자료 : Sing A Song #0 / Sing A Song #1 / 경제와 사회 95년 가을호 / 사상 95년 겨울호 / 노민해님의 글
33. 정보연대 SING은 서울대내 동아리가 아닙니다. '사회단체'를 지향하고 있는 모임으로 '서울대'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전문성과 활동성을 동시에 갖춘 동아리로서 멋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시기바라구요.

강연과는 상관없는 말 몇마디... 그런데 이런 딱강한 동아리는 좀 더 사업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깊이 파고 공부하는 건 자유지만, 정보의 중요성이든지, 정보를 지배하려는 권력 뒤에 숨은 엄청난 이데올로기에 대해 우리 일반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통신상에서-열심히 하시는 건 알구요-뿐만이 아니라 관악에서도) 이런 강연은 때 세터때마다 꼭 있어야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3.6.3.2. 감상글 두 번째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95학번 송정부)

정보연대 SING의 "너희가 정보를 믿느냐?"라는 강연을 듣게 되었다. 요즘, 안그래도 넘쳐나는 정보의 물결 속에서 그러하기에 더욱 커지는 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그러한 강연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 이 되었다.

그런데, 이 강연이 갖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하여 "새터"에서 이루어졌음을 생각해볼 때, 뭔가 미비한, 혹은 부적절한 점을 발견할수 있었다. 우선은, 강연의 내용이 청중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내용이었는가 하는 점이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의 96학번 새내기들의 지적 수준을 과소평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껏 12년 이상의 오랜 제도권 교육을 받기만한 이들이 얼마나 새로 접하게 된 사실들에 대하여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나 혹은 나의 대학 생활 처음을 돌이켜보았던 데서 비롯된 기우라면 다행이겠지만, 아무튼 나는 그러한 일에 대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려다보니 정작 자세히 말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요약적인 전달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문제점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대학 생활을 얼마간이라도 해온 "우리"로서야 뭐 연재고 몇 번쯤은 들어본 내용이라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실로 인해 아니,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마치 새내기 대상이 아니라 차라리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우리를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다면 더 적절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들, 즉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려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적은 이야기를 적절한, 쉬운 설명과 함께 차근차근 전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갔다면 더 나은 강연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작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연은 참으로 유익했던 것 같다.

3.7. [여성과 사회] 기고글 : 인터넷상의 여성정보 (이혁)

■ 들어가며

작년 한해는 한마디로 '인터넷의 해'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인터넷 특집을 다룬 여러 잡지중 뉴욕타임즈에서는 마셜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를'를 재인용하여 '만일 매체가 곧 메시지라면, 이제 그 메시지는 웹(World Wide Web)이다' 라는 말을 헤드라인으로 올렸다. 마우스만을 누르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편리함과 그래픽, 동영상, 음악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확장성은 웹을 인터넷의 대표적 서비스로 만들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등 한국의 대표적 BBS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이네트, 넥스텔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생겼으며 올해들어서 현대, 삼성등 대기업들도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다. 정부 또한 2015년까지 각 가정까지 정보고속도로를 깔 예정이다.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주로 사용하던 인터넷을 일반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에 비해 사회단체나 운동조직들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한국내에서 보기는 어렵다. 외국의 경우 수많은 비정부조직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관련 연구와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글의 많은 부분들은 '라우라 헌트(Laura Hunt)'가 쓴 '여성연구/페미니스트 정보를 위한 인터넷상의 자료(Sources for Womens Studies/Feminist Information on Internet)'를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2장에서는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서비스인 고퍼(gopher), 아키(archie), 웨이즈(wais) 등을 소개한다. 고퍼(gopher)는 메뉴구조에 기반한 인터넷 정보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고퍼(gopher)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가 어디있는 지 확인한 후 Telnet이나 FTP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웨이즈(Wais)는 'Wide-Area Information Server'의 줄임말로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찾아보기위한 서비스이다. 아키(Archie)는 인터넷상의 공개된 파일들의 인덱스 서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3장에서는 메일링 리스트나 뉴스그룹을 소개한다. 인터넷 상의 의사교환은 주로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자우편을 주고 받기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자신의 계정을 갖고 있어야한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메일링 리스트나 뉴스그룹에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게 된다면 자신이 보낸 편지는 그 메일링 그룹의 모든 가입자에게 가게 되고, 다른 가입자들의 편지도 받아보게 된다. 고퍼(gopher), 뉴스리더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뉴스그룹의 내용들을 읽을 수도 있다.

4장에서는 웹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대표적 여성관련 웹페이지들을 소개한다. 웹(World Wide Web)은 인터넷 보편화를 보편화 시킨 서비스이다. 복잡한 유닉스 명령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마우스만을 클릭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넷스케이프 같은 웹 브라우저로 웹뿐만 아니라 고퍼, 아키, 웨이즈등 인터넷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웹을 중심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통합되고 있다.

■ 고퍼, 아키, 웨이즈

고퍼는 디렉토리구조의 메뉴를 통하여 정보를 찾는 서비스이다. 대학기관등 많은 기관에서 고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퍼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인터넷 이름(Domain Name)을 알고 있으면 유닉스 프롬프트상에서 'gopher 서버의 인터넷이름(Domain Name)'을 치면 된다. 그후 화살표와 엔터를 사용하여 주제를 선택하여 자료를 찾으면 된다.

다음 그림은 'inform.umdu.edu'의 gopher서비스에 접속한 화면이다. 여기서 화살표를 움직여 '4. Educational Resources'를 선택한후 엔터키를 누르면 다시 다음 그림과 비슷한 메뉴구조의 화면이 뜬다. 여기서 다시 '2. Academic Resources by Topic'을 선택한후 엔터키를 누른 후 거기서 다시 '24. Womens Studies Resource'를 선택하면 된다.

'inform.umdu.edu'는 메릴랜드 대학의 서비스로, 여성관련 연구에 대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자료의 많은 부분은 다음에 설명할 'WMST-L의 Listserv'의 여성연구로부터 제공된 것이다.

키워드로 조사를 할려면 '/'를 누른 후 자신이 찾고자 하는 주제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상위 메뉴로 이동하려고 하면 'n'을 누르면 된다. 기타 사용법은 '?'를 누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고퍼서비스중 여성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이중에서 '페미사 리스트 서브 아키'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의견교환을

모아 놓은 곳이며, '고퍼도나'는 이탈리아어로 제공되는 고퍼이다.

인터넷상의 여성관련 고퍼정보

- 미네소타대학의 여성센터 (University of Minnesota's Women's Center) : rodent.cis.umn.edu
: University of Minnesota Campus Information -> University of Minnesota's Women's Center
-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컴퓨터 전문가 모임(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 gopher.cpsr.org : CPSR Main directory -> Gender & Minority Issues
- 케니온 대학의 여성, 성관련 연구 (Keyon College Women's and Gender Studies)
: gopher.kenyon.edu : Kenyon College departments and programs
-> Academic departments and programs -> Women's and Gender Studies
- 페미사 리스트 서브 아카이(FEMISA Listserv Archive) : csf.colorado.edu : Feminist Scholarship
- 텍사스대학(University of Texas) : whiteman.gar.utexas.edu : Other Gophers -> Women's Studies
- 고퍼도나(Gopher Donna) : gopher.idg.fi.cnr.it : Gopherdonna
- OIES의 여성연구를 위한 센터(Centre for Women's Studies in Education at OISE)
: porpoise.on.ca : The Collection of online education resources at OISE
-> Centre for Women's Studies in Education
- indirect의 고퍼 서비스 : gopher.indirect.com : Internet Direct - Our Gopher Server
-> Reference Materials -> Virtual Reference Desk -> Women's Studies and Resource

웨이즈는 인덱스화된 자료를 조사하는 서비스이다. 고퍼와 비슷하나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나가는 점에서 다르다. 'telnet 인터넷 주소(Domain Name)'로 연결한 후 Login이 뜨면 'wais'로 접속하면 된다. 'help'나 '?'를 누르면 그 사용방법을 알 수 있다.

아키는 인터넷상의 일반에게 공개된 파일들을 인덱스로 조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웨이즈와 비슷하게 'telnet telnet 인터넷 주소(Domain Name)'로 연결한후 archie로 접속하면 사용할 수 있다. 접속후 help를 치면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알 수 있다.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등에서도 아키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우누리'의 경우 'go internet' 한후 '아키'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 아키제공 서버이다.

- telnet archie.sura.net
- telnet archie.unl.edu
- telnet archie.ans.net
- telnet archie.rutgers.edu

■ 메일링 리스트, 뉴스그룹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려면 가입 전자우편을 보내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메일링 리스트의 편지를 받아볼 수 있다. 메일링리스트의 가입방법은 서버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부분의 가입방법은 이 글의 뒷부분에 정리된 인터넷 계정으로 편지 본문에 다음과 같이 넣어서 메일을 보내면 된다.

subscribe List Name [당신의 E-mail 주소] [당신의 이름]

그러면 그 처리결과 메일이 되돌아 온다. 만약 주소는 맞는 데 잘 되지 않는다면 편지 내용에 'help'를 적어서 보내면 자세한 사용법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메일서버에 존재하는 메일링 리스트의 목록을 받아보고 싶으면 'lists'라고 넣어서 보내면 잘 정리된 리스트 목록을 받아볼 수 있다. 다음은 나우누리의 인터넷메일(go imail)을 이용하여 WMST-L이라는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는 것을 갈무리한 것이다.

인터넷 주소 : listserv@umdd.umd.edu
 ← 메일링리스트 서버의 E-mail 주소
 제 목 (60Byte이내) : . ← 아무거나 입력해도 된다.
 보내실 편지의 본문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1. 문서(Text) 2. 이진(Binary) 0. 취소
선택> 1
- 입력 및 전송방법을 선택하십시오.
1.줄쓰기 2.쪽쓰기 3.PICO 4.VI 5.Zmodem 6.Kermit 0.취소
선택 > 1
- 줄쓰기 (끝낼때는 새로운 행 첫칸에 [CTRL + G] 또는 [.] =
*1: lists <- listserv@umdd.umd.edu에 있는 모든 메일링 리스트 목록을 원할 때
*2: subscribe WMST-L LeeHyek <- WMST-L이라는 리스트에 '이혁'이란 이름으로 가입할 때
*3: help <- 자세한 사용법을 알고 싶을 때
*4:

위와 메일을 보내면 조금후 답장이 온다. 위의 경우는 메일을 통해서 서버에 세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실행시킨 것이다. 그래서, 메일링리스트목록, WMST-L 가입축하 메시지, 사용방법등 세봉이 넘는 전자우편 답장이 온다. 만일 보낸 메일이 잘못되었다면 왜 잘못되었는지 답장으로 즉시 알려준다.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되면 몇주간은 그 리스트에 대해 논의되는 흐름에 따라가길 바란다. 그리고, 메일을 쓰는 사람들의 성향과 그 리스트의 목적을 파악한 후 참가하기 바란다.

■ 월드 와이드 웹

여성관련 웹사이트만도 인터넷 상에서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웹이란 말 그대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그래서 매시간 내용과 연결(links)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잘 정리된 인덱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쉽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은 여성관련 사이트를 정리한 인덱스들의 주소(URL)이다.

- http://www.yahoo.com/Social_Science/Women_s_Studies/
- http://www.yahoo.com/Society_and_Culture/Gender_Issues/Women/
- http://www.yahoo.com/Society_and_Culture/Gender_Issues/Women/Indices/
- http://odyssey.lib.duke.edu/women/cyber.html
- http://english-www.hss.cmu.edu/feminism.html
- http://humanitas.ucsb.edu/shuttle/gender.html
- http://asa.ugl.lib.umich.edu/chdocs/womenpolicy/womenlawpolicy.html
- http://umbc7.umbc.edu/~korenman/wmst/links.html
- http://www.law.indiana.edu/frc/webresources.html
- http://www.igc.apc.org/women/feminist.html
- http://women-online.com/women/
- http://www.mit.edu/8001/people/sorokin/women/index.html
- http://feminist.com/reso.htm
- http://www.tbd.nrc.ca/~mansfield/feminism.html
- http://www.rpi.edu/~schmel/gender.html
- http://mevard.www.media.mit.edu/people/mevard/women.html

운동단체들의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소개, 활동내용, 현재의 문제, 다른 단체들과의 연결 등을 제공한다. 특히 당면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잘 알려진 여성관련 웹사이트로 추천 할만한 곳으로 APC(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소속의 'WomensNet'가 있다.

'WomensNet'은 여성의 권리 증가를 목적으로 정보의 공유, 방송, 협력을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여성, 활동가, 조직들의 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이다. 컴퓨터 네트워크 도구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증가시키기위해 노력 하며 그들이 기술적 보조와 훈련을 통해 온라인으로 들어오게하는 것을 돕고 있다.

여성, 활동가, 조직들의 생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가상 정보에 접근권을 도와주며, 그들의 일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베이징에서

열린 NGO회의 이후 소식을 자세히 알 수 있다.

■ 글을 마치며...

인터넷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개방 네트워크(Open Network)였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올리고 있다. 자료의 사용료도 받지 않는다. 그야말로 사회주의적인 공유의 이상에 다가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인터넷 검열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일반에게 보급되면서, '정보제공' 자체가 상업화가 되고 있다. 맥루한은 방송·통신사업이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을 확장시키지 않고 도리어 내향적 자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할 것없이 '정보패권'을 앞세우며 정보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서부의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열리는 이 '서부'에 무엇을 만들고,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세상의 진보를 바라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네트워크'란 말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는 이 '네트워크'라는 공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얼마안되는 기간이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감동받은 것은 수많은 단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사안에 따라 서로 연대하여 그것을 실질적인 사회의 힘으로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웹을 통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발생한 문제를 신속히 알리며, 수많은 메일링리스트나 뉴스그룹을 통하여 자료교환과 토론을 하고 있다. 한사람의 조그만 목소리가 4천만이 넘는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두명의 일본인에 의해 시작된 프랑스 핵실험 반대 서명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지면이 한정되어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지 못한 것 같다. 인터넷 사용법은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등에서 구해볼 수 있다. 조금 오래된 문서지만, 'Zen and Art of INTERNET'이라는 글을 추천하고 싶다. 대형 BBS에서 한글로 번역된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여성관련 뉴스그룹과 메일링 리스트

- AMAZONS INTERNATIONAL(amazons-request@math.uio.no) : 'Amazons'란 말은 성의 역할 등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강한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그들과 그들의 친구, 애인들을 위한 뉴스그룹이다.
- all.lesbian.feminist.poetry : 레즈비언이나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시에 대해서 토론하는 유즈넷 뉴스그룹 (Usenet News Group)
- bionet.women-in-bio : 생물학을 전공하는 여성들을 위한 유즈넷 뉴스그룹이다.
- BISEXUAL(listserv@brownm.brown.edu) : 양성애에 관한 주제로 경험, 의견, 생각을 교환하는 메일링리스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 BOOKWOMAN(majordomo@vector.casti.com) : 여성을 위한 메일링 리스트로 여성에 의해서 쓰여지는 글들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곳이다.
- BREAST CANCER(listserver@morgan.ucs.mun.ca) : 유방암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곳이다. 연구자, 의사, 환자,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주된 가입자이다.
- dari.news.reproduction : 로이터, AP(the Associated Press)등 뉴스들에 나온 생식에 관한 기사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 dari.news.women : 로이터, AP(the Associated Press)등 뉴스들에 나온 여성에 관한 기사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 CYBERSEX(listserv@soundprint.brandywine.american.edu) : 컴퓨터 영역에서 최근에 생겨난 기술이 성적 욕망을 어떻게 바꾸며, 정의내리고,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는 곳이다. 온라인 섹스, 에로틱한 소프트웨어, 하이테크 섹스도구, 집에서 만든 비디오 등을 포함한다.
- ECOFEM(listserv@csf.colorado.edu) : 지역적인 문제에서부터 전세계적인 문제까지 여성과 환경에 관한 논의를 하는 리스트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진다. 지역활동에 대한 정보, 입법활동, 국제조약/협약, 출판, 논문요약,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메일링 리스트이다.
- EDEQUITY(majordomo@confer.edc.org) : 교육의 평등에 대해서 토론하는 리스트이다.
- EDUCOM-W(listserv@bitnic.educom.edu) : 여성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과 교육에 관한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는 리스트이다.
- FAB(fab-request@phil.ruu.nl) : 생명윤리에 대해 알고 싶은 페미니스트에 초점이 맞추어진 리스트이다.
- FAMILYLAW-L(listserv@lawlib.wuacc.edu) : 가족법의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메일링 리스트
- F-EMAIL(mailbase@mailbase.ac.uk) : 인터넷워킹은 압도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나 사실은 여성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는 제안하는 것을 주된 관점으로 해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에 있어서 성의 차이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도모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국의 메일링 리스트이다.

- FEMAIL(femail-request@luceme.eng.sun.com) : 전세계의 페미니스트들의 공유된 의사소통 통로를 제공하는 리스트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가입도 환영받는 곳이다.
- FEMALE-L(listserv@alijku04.edvz.uni-linz.ac.at) : 오스트리아의 여성연구 리스트이다. 페미니스트 연구와 교육, 회의에 관한 정보, 새로운 책, 알리고 싶은 사항, 기타 여성연구와 관련된 온라인 자료 등을 독일어나 영어로 교류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 FEMECON-L(mailserv@bucknell.edu) :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를 위한 리스트이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경제학에 관한 정보, 질문, 답변등이 주로 오고는 곳이다.
- FEMISA(listproc@csf.colorado.edu) : 페미니즘, 성, 여성과 국제 관계, 국제 정치, 국제적인 정치경제학 등에 관한 의견교환 리스트이다.
- FEMJUR(listserv@listserv.syr.edu) : 페미니스트 법학자를 위한 리스트이다. 페미니즘, 여성, 그리고 법률에 관한 이슈와 이론에 관해서 토론하는 포럼이다.
- FIST(listserv@dawn.hampshire.edu) :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리스트이다.
- FMST-L(uotago@stonebow.otago.ac.nz) : 페미니즘 이론, 철학에서의 페미니스트적 관점, 최근의 페미니스트 논쟁, 출판, 연구, 서적, 필름에 대한 리뷰 등을 다룬다.
- GAYNET(majordomo@queernet.org) : 대학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에 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춘 리스트이다.
- GENDER(comserve@vm.its.rpi.edu) : 커뮤니케이션과 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리스트이다.
- GENDER-SET(mailbase@mailbase.ac.uk) : 성,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에 관한 연구의 토론을 위한 리스트이다.
- GEOGFEM(listserv@ukcc.uky.edu) : 지리학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리스트이다. 이론이나 경험적인 이슈, 책 리뷰, 논문 요청, 회의 정보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 GLOGSOC-L(listserv@bingvmb.cc.binghamton.edu) : 게이레즈비언 사회과학리스트이다. 사회학자, 인류학자, 역사가, 정치학자, 경제학자, 철학자들이 주로 가입한다.
- GRANTIE(listserv@nic.surfnet.nl) :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로서, 성, 새로운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등의 영역에서 연구를 돕고, 이론이나 연구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장의 역할을 한다.
- H-STATE(listserv@msu.edu) : 여성, 어린이의 복지에 관한 이슈를 포함한 복지, 사회복지의 역사, 정책등에 대한 리스트이다.
- H-WOMEN(listserv@uicvmuic.edu) : 여성의 여성에 관한 것으로 학자와 선생님을 위한 포럼이다.
- ICWP-L(listserv@ubvm.cc.buffalo.edu) : 희곡을 쓰는 여성을 위한 메일링리스트이다. 여성 희곡작가를 위한 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for Women Playwrights)를 위한 것이나, 회원이 되기전 석달동안 리스트에 가입할 수 있다.
- INTERNET-WOMEN-HELP(majordomo@best.com) : 인터넷과 관련된 행사와 이슈의 다양한 영역에서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기위해 여성에게 제공되는 포럼이다. 질문과 답변만을 대상으로 한다.
- INTERNET-WOMEN-INFO(majordomo@best.com) : 페미니스트 웹 사이트의 위치, 신작 서적의 리뷰등 여성과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위한 장소이다.
- LGBPSYCH(neil@psych.mogill.ca) : 심리학을 전공하는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인 대학생 사이에서 정보교환, 지원, 토론을 위한 포럼이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열려있다.
- LIBFEM(libfem-request@math.uio.no) : 페미니스트 사이의 교환을 위한 리스트이다.
- LIBWAT(LISTSERV@UBVM.CC.BUFFALO.EDU) : 도서관에서 새로운 기술이 여성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리스트이다.
- LIVINGLIVING-REQUEST@QICLAB.SCN.RAIN.COM) : 육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위한 리스트이다.
- MAIL-MEN(MAJORDOMO@CS.ST-ANDREWS.AC.UK) :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남성의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경험'이 주제가 될 수 있다.
- MATFEM(LISTPROC@CSF.COLORADO.EDU) : 21세기를 위한 페미니스트 프로젝트를 세우기위한 의도에서 이론적, 활동가적 관점에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리스트이다.
- MENOPAUS(LISTSERV@PSU.HMC.PSU.EDU) : 폐경기의 여성을 위한 리스트이다.
- MOMS(MAJORDOMO@QICLAB.SCN.RAIN.COM) : 레즈비언 어머니를 위한 리스트이다. 여성만이 참가있다. 그리고, 가입자만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 MUJER-L(LISTPROC@LMRINET.BSE.UCSB.EDU) : 멕시코계나 라틴계 여자미국인에 관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한리스트이다.
- MWCF(JUZAK@AECCOM.YU.EDU) : 미국 화학자협회(the American Chemical Society)가 후원하는 리스트이다. 화학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게 직업과 개인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하기 위한 고심다. 협력자, 조수를 다루는 법, 고민거리, 어려움, 실업, 경력 등이 다루어진다. 가입을 하려면 본문에 "subscribe MMCF" 라고 해야한다.(따옴표를 포함해서)

• NOGLSTP(NOGLSTP-REQUEST@ELROY.JPL.NASA.GOV): 게이 레즈비언 과학자와 기술가 조직(National Organization of Gay and Lesbian Scientists and Technical Professionals)의 리스트이다.

• PERSONALIST-FEM(Majordomo@qclab.sou.rain.com): 페미니스트적 성향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것과 관련있는 일, 생각, 경험 등을 교환하는 리스트이다.

• POWR-L(LISTSERV@URIACC.URI.EDU): 여성 심리학 자료 리스트이다. 미국 심리학 협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Division 35'와 심리학 여성 협회(the Association for Women in Psychology)에서 후원한다. 현재의 주제, 연구, 교수학, 공공정책 등에 대한 의견교환과 정보가 실린다.

• PSYCWOMEN(PSYCWOMEN-REQUEST@FRE.FSU.UMD.EDU): 여성심리학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목적으로하는 학생들을 위한 리스트이다.

• PWINET-L: 미국 심리학 협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여성심리학을 다루는 부서인 'Division 35'에서 페미니스트 심리학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가입을 할려면 FRIEZE@VMS.CIS.PITT.EDU로 가입의사를 밝히는 메일을 보내면 된다.

• QAPA-L(LISTSERV@BROWNM.BROWN.EDU): 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동성애자 의견 리스트로, 네트워킹, 자료 공유, 정치적인 문제 토론, 경험 공유 등에 관한 내용이 올라온다. 아시아 태평양 동성애자 전자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리스트이다.

• QSTUDY-L(LISTSERV@UBVM.CC.BUFFALO.EDU): 동성애 이론, 레즈비언/게이 연구 등에 관한 학술적 토론을 위한 리스트이다.

• RPA-L(LISTSERV@KENTVM.KENT.EDU): 로맨스 소설, 영화, 텔레비전 쇼, 광고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리스트이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여성이다.

• RUFMMN-L(LISTSERV@BINGVMB.CC.BINGHAMTON.EDU): 농업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 하는 리스트이다.

• SAPPHO(SAPPHO-REQUEST@MC.LCS.MIT.EDU): 게이와 동성애 여성 그룹을 위한 포럼이다. 모든 여성에게 가입이 열려있다. 가입은 여성만 할 수 있다.

• 5.80 SISTAH-NET(ISTAH-REQUEST@HAMP.HAMPSHIRE.EDU): 아프리카계 미국인 레즈비언을 위한 리스트이다.

• SOCPOL-L(LISTSERV@VMD.CSO.UIC.EDU): 저널지인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의 포맷에 따른 리스트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임에서부터 가족관계, 성적평등까지 국제적이며 학문간의 연계가 필요한 영역을 대상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 STOPRAPE is(LISTSERV@BROWNM.BROWN.EDU): 성차별과 강간에 관한 리스트이다.

• SWIP-L(LISTSERV@CFRVM.CFR.USF.EDU): 여성 철학자 협회(the Society for Women in Philosophy)의 회원과 페미니스트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교류와 토론 리스트이다.

• SYSTEMS(SYSTEMS-REQUEST@DECWRL.DEC.COM): 여성 컴퓨터 과학자들이 연구와 경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포럼이다. 여성만이 가입할 수 있다. 학계, 산업계 여성들이 주로 참가한다.

• WHAM!(LISTPROC@LISTPROC.NET): 절대적인 재생산의 자유, 모든여성을 위한 질적 의료를 요구하고, 유지하며, 보호하기 위한 활동가 그룹인 'Women's Health Action and Mobilization'의 리스트이다.

• WSENET(LISTSERV@UICVM.CC.UIC.EDU): 과학, 수학,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여성을 위한 리스트이다.

• WSHPERD(LISTSERV@SJSUM1.SJSU.EDU): 여성들이 스포츠, 헬스, 체력 단련,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댄스에 관한 의견교환하는 곳이다.

• WMST-L(LISTSERV@UMDD.UMD.EDU): 여성 연구에 관한 학술 리스트이다.

• WOMEN(MAJORDOMO@WORLD.STD.COM): 일반적인 목적의 리스트로서, 모든 여성 그룹과 여성관련 있는 영역의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리스트이다.

• WOMENS-STUDIES(MAILBASE@MAILBASE.AC.UK): 영국의 여성 연구 네트워크 협의회(the Women's Studies Network Association)의 회원과 여성 연구를 하는 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협의회, 최근의 간행물에 관한 정보, 공지 등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메일본문에 Join womens-studies라고 해야한다. 'subscribe'가 아닌 'join'이다.)

• XXANDLAW(OWNER-XXANDLAW@LAW.WISC.EDU): 법을 전공하는 여성을 위한 리스트이다. 여성에게만 열려있다.

4. Vol. 1 #3

4.1. 편집자의 변 146

4.2. About Internet Community 146

4.3. SING is ACTing! 147

4.4. 제3회 서울대 민교협 교양강좌 148

4.5. 프로그래머가 본 Copyright 151

4.6. [차원]에서 153

4.7. [대학생신문] 기고글 182

4.8. 통신연대 윌레 포럼 185

4.1. 편집자의 변

"SING a SONG은 국내의 정보화사회의 논자들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계신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SING a SONG 제작의 취지를 읽어 보았다. 벌써 3호를 맞이하게 되면서 처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기 위함이다. 스스로 자문하여 본다. '혹시 단순한 SING 홍보로 비추어진 것은 아닌지?', '정보운동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결국으로 '과연 우리의 활동상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었는지?'... 솔직히 이 모든 물음에 '잘 해왔노라'고 대답할 자신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변화'이다. SING a SONG도 변화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인쇄물들처럼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함은 물론 아니다. 어쩌면 그 경쟁을 초월할 수 있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 다양한 이들의 정보운동을 그에 대한 입장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논의하고 때론 싸우며 배워야 한다. 정보연대의 활동을 파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활동을 비판받기 위해 알려야 한다. 마감시간 전에 지면을 채우기 위해 꾸며대는 공허한 글도 거부하여야 한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이 대개 그러하지만 '다음을 기대해달라'고 항상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변명이어서는 안된다. 그 안에는 수많은 자기 채찍질과 이를 악물은 굳은 다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아직 그 형식이 미약하지만 두번째 글로 SING is ACTing을 정기적으로 실기로 했다. 이 코너에서는 SING의 활동을 자유로운 모습으로 담아낼 것이다. 특별히 이번호에는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학술지 '차원'의 글과 그 글에 대한 짙막한 입장을 함께 다룸으로써 SING a SONG이 진정한 정보운동 논의의 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편집자 개인적으로는 선배분들이기도 한 '차원'의 필자분들과 편집진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4.2. About 'Internet Community'

진보적 네트워크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5월 1일 개통

~ 인터넷 커뮤니티는

- 1) 진보적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연대 SING에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 2) 인터넷의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 사회단체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제구축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합니다.
- 3) 진보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진보단체의 커뮤니케이션의 중대와 활동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아이템으로 진보단체가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 지원되는 서비스

- 1) World Wide Web

인터넷중 대중에게 가까운 웹서버를 제공합니다. KPD(Korea Progressive Directory)와 SSN(Social Science Network)를 통하여 한국내 진보세력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합니다. 일반적인 웹페이지의 단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웹 BBS, DB 연동 등의 기술 지원 또한 할 것입니다.

- 2) Mailing List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바로 메일링 리스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BBS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인터넷 메일을 통한 소통,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바로 메일링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메일야키, FTP 메일등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3) 이 밖에 gopher, usenet, FTP 등의 서비스도 지원할 것입니다.

4.3. SING is ACTing! (이혁)

■ Intro

새롭게 대표가 되고 난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너무나 빠르게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시점에서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다. 왜 우리가 이 땅, 이 시간에서 수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바쁜 일정속에서 우리 자신이 타성적으로 생활속에서 흐름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관성적으로 활동하고 살지말자는 말로서 이 글을 시작한다.

■ 최근의 활동상황

현재 특별 활동으로 정책팀, 기술팀, 연대사업팀이 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전체 운영회의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은 메일링 리스트가 중심이 되어서 메일을 통해서 운영진반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정책팀은 최근에 다시 모여서 네그로폰테의 'being digital'과 이번호에 실린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학술지 '차원'의 글에 대한 검토를 했다. 그리고 이미 'SING'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보내진 'Copyleft' 관련 논문의 번역작업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내 정보관련 정책, 이슈 등에 대해서 민감하게 계속적으로 반응하면서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활동적 맥락에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술팀은 현재 '자치도서관' 관리 및 DB검색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추진중인 'Social Science Network'를 위한 첫출발인 것 같다. 1차 개발 완료후, 웹과의 연동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료서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연대사업팀은 현재 민주노총 웹 사이트 개설, 사무노조연맹 컴퓨터 교육 및 네트워크화, Server관리 등의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민주노총 웹사이트 관련한 사항은 메일링 리스트나 참세상 'jinbo 4 2' 게시판에 올라가고 있다.

■ Server상황

3월달에 56K로 인터넷과 연결된 이후,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현재 설치된 서버는 sing.cybercom.co.kr, kpd.cybercom.co.kr, mail.cybercom.co.kr, romantic.cybercom.co.kr이 있다.

sing.cybercom.co.kr은 SING의 활동과 관련한 웹서버가 돌아가고 있다. 정식 개통일은 5월 1일로 잡혀있다. 현재 새로운 기획하에서 웹페이지가 만들어 지고 있다.

kpd.cybercom.co.kr은 한국진보단체디렉토리(Korea Progressive Directory)가 들어갈 것이다. 민주노총 웹페이지가 5월 1일 개통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반핵평화회의 등의 여러 단체랑 진행중에 있다.

mail.cybercom.co.kr은 메일링 리스트 서버가 돌아가고 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메일링 리스트는 sing(정보연대 공개 리스트), ngo(한국사회단체를위한 리스트), kctuweb(민주노총 웹페이지 관련 리스트)가 있다. 공개된 메일링 리스트일 경우, 현재까지는 무료로 만들어 주고 있다.

romantic.cybercom.co.kr은 ftp, irc, newnet 등의 서비스를 할 예정에있다.

■ 마치며

다음달에는 내부활동정리글이 아닌 'Action Alert'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스쳐지나가는 데, 활동에 치여 그러한 것들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 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의제기할 수 있고 대책및 대응을 하는 Sing A Song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외부사람에게 공개된 - 만드는 과정 자체부터 함께 하는 - Sing A Song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하게 된다. 이 글을 읽는 그 한사람부터 메일링 리스트를 가입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마칩니다.

4.4. 제3회 서울대 민교협 교양강좌 : 정보민주주의인가 문화제국주의인가?³⁴⁾

4.4.1. 인터넷과 사회운동 (허진영)

지난 3월 28일 문화관소강당에서는 민교협 주최로 '정보제국주의인가 전자민주주의인가'라는 제목의 공개강좌가 열렸다. 이 글은 그 자리에서 발표한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한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운동의 현황과 활동사례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인터넷상의 주목할만한 사회단체

인터넷 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의 모임, 동성애자들의 모임, 환경운동단체, 과학기술자들의 모임 등 그야말로 밤하늘의 별들보다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단체들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하고 있다.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조직)라고 불리는 그들은 환경, 성, 과학기술, 남북문제 등 일국차원에서 해결되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뜻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 모든 단체들을 다 소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몇몇 주목할 만한 사회단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APC(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URL <http://www.igc.apc.org/>

APC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진보단체들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APC에 접속하면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진보단체에 접속할 수 있다. 1987년 영국의 GreenNET와 PeaceNet, Econet, ConflictNet, ConflictNet, LaborNet으로 구성된 IGC(Institute for Global Communications)의 성공적인 활동을 출발로 해서, 1989년 스웨덴의 NordNet, Canada의 Web, 브라질의 AlterNet, 니카라과의 Nicaragua 등 세계도처의 많은 네트워크가 더해져 국제적인 망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APC는 다음해인 1990년에 이 네트워크의 발전과 운영을 돕기 위한 재단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약 133개국에서 31000명의 활동가가 가입해 있으며, UN의 conference에서 공식적인 UN과 NGO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APC는 현재 UN의 1등급 자문기관으로 있다.

APC의 Progressive Directory인에는 PEACENET, ECONET, CONFLICTNET, LABORNET, WOMENSNET이라는 다섯개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운동영역의 활동단체들을 만날 수가 있다. 일례로 LABORNET에서는 MBC노조의 파업관련소식을 접할 수 있다.

-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URL <http://www.cpsr.org/>

CPSR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에 대한 컴퓨터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1981년 핵무기 개발에 컴퓨터시스템이 사용되는 것을 우려한 컴퓨터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CPSR은 현재 미국에만 22개의 지부를 가진 단체로 성장했다. 그들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원칙으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 우리는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대중의 토론과 개입을 지지하고 촉진한다.
- 우리는 사회적 기술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사실적인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기술 혼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에 반대한다.
- 우리는 국내와 국외 모두의 컴퓨터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조사한다.
- 우리는 정보기술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장려한다.

34. 제3회 서울대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교양강좌에서 정보연대 SING은 인터넷과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과 강연을 하였다. 여기에 그 강연문을 실는다. 아울러 주제 발표 논문인 강영구 교수님의 "정보민주주의인가 문화제국주의인가"는 참사상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다.

- EFF (Electric Frontier Foundation) URL <http://www.eff.org/>

EFF는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네티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된 압력단체이다. 전자의 미개척분야(Electric Frontier)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유용하고 혜택이 되게 하며, 이러한 활동이 자유의 보호와 정보의 공개적 유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미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전세계적인 공동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EFF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날 2월에 미국상하원을 통과하고, 클린턴이 서명한 통신품위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EFF의 활동내용은 그들의 온라인 뉴스인 EFFector Online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FSF(Free Software Foundation) URL <http://www.cs.pdx.edu/~trent/gnu/>

FSF는 잘 알려진 GNU로 유명한 단체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복사, 수정, 분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자본의 이윤논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Free)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프로그램의 공개와 자유로운 사용에 저작권이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체계로서 Copyright에 반대하여 Copyleft라는 대항개념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사용자들의 기금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방식은 현재의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년에 두 번 나오는 GNU Bulletin을 통해서 그들의 활동내용을 알 수 있다.

■ 통신검열법안반대운동에 관하여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시간과 공간, 인종, 성별 등의 모든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어내었지만, 그와 더불어 인터넷의 한 귀퉁이에서는 색스산업도 발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음란물의 유통을 걱정된 미국의 도덕군자들은 사회통제를 사명으로 여기는 정부 관료들과 힘을 합쳐, 지난 2월 상하원을 통과하고 클린턴이 서명한 '통신 개혁법' 제5장에 소위 '통신품위법'을 슬쩍 끼워넣는데 성공했다. 음란물을 통신망에 게시, 혹은 송신하는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도 시설을 제공한 통신업체는 징역 2년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한 것이다. 얼핏보면 도덕이나 표현의 자유나 진부한 논쟁에서 도덕의 승리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통제과 관료들이 음란물 단속을 이유로 민간통신망에 무단출입할 평계를 잡은 것이다.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사회적책임을 위한 컴퓨터전문인모임(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등의 미국 시민단체, 연구단체들은 대체로 통신개혁법의 탈규제경쟁강화 방안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끼워넣기식으로 통과된 '통신품위법'에는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곧바로 언론인연합, 출판인협회 등 전통적인출판 단체들과 결합하여 인터넷활성화를 위한 시민 연대(Citizens Internet Empowerment Coalition)를 결성, 효율적으로 통신품위법 무력화에 착수했다. 첫번째의 강력한 조치는 법률적대응으로, 연방법원에 통신품위법 집행정지를 가져본신청했다. 통신품위법이 미헌법 수정조항 제1조 -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2월 15일 이 법이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법의 시행을 임시 정지시키고 3월 20일부터 본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법무장관 르노는 2월 23일 통신품위법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금지하는데 동의했다. 곧이어 그들은 온라인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하여, 검열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파란색리본을 웹페이지에 달기 시작했다. 그리고, 2월 22일에는 '24시간동안의 민주주의'라는 구호로 인터넷 데모를 시작하여, 인터넷상에 대자보를 써붙이고, 정보민주화운동명망가들의 연설을 온라인 중계하며, 백악관에 미국헌법 복사판을 대량 우송한다. '24 시간 동안의 민주주의'의 성공에 힘입은 이들은 3월 하순부터 시작하는 본심재판과 그 이후를 대비해 '워싱턴에서의 행진, March on Washington'이라는 온라인장기가능성을 기획한다. 24시간만 데모하는게 아니고 재판이 끝날때까지 열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여론을 확대, 형성해가고, 6월 30일에는 실제로(Off-Line)으로 워싱턴에서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커뮤니티 네트워크

인터넷을 구체적인 생활에 이용한 사례로 지역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컴퓨터와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들로 이루어진 지역망이다. 커뮤니티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지역주민들이 이루는 그룹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이것은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선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단순히 전자게시판 기능만을 가진 것에서부터, 거대한 상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유닉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이다. 특히나, 인터넷에 접속가능한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해외의 연구소의 자료나 컴퓨터 회사, 학술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는 과연 어떤 것일까?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전자메일과 토론 그룹을 지역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그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사업체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버스의 운행시간표, 평생교육프로그램, 직업정보, 지방법, 특정행사의 홍보, 학교의 점심메뉴, 자동차전문가나 법률가, 도서관원, 특정압력단체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 서점의 도서목록, 음식점의 메뉴, 여행안내자료, 자동차수리, 건강정보, 신문기사검색,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보고서 등 그 지역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자메일이나 자료검색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과 채팅을 한다든지, 인터랙티브 게임을 한다든지, 음성과 영상자료를 주고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지역의 사람, 외국인들과 함께 국가적인, 그리고 전지구적인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 정리하며...

주로 외국의 단체들과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의 경우에도 통신을 이용한 사회운동의 예는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그 수준은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며, 그런만큼 국내의 운동단체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물론, 국내의 경우 기반시설이나 사회적인 마인드가 뒤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황금시장을 놓고 연일 벌어지는 자본의 각축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런 핑계만을 대고 있기에는 우리의 갈길이 너무나도 바쁘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매체를 통해 대안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은 진보운동진영이 항상 고민했던 과제였다. 인터넷이라는 또하나의 새로운 매체를 보다 공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³⁵⁾.

35, 참고글 : SING A SONG Vol.1 #0, 안유석, 가짜를 죽여라. // SING A SONG Vol.1 #0, 이혁, 인터넷상의 주목할 만한 사회단체 // 참세상 JINBO 3 게시판, 양신규, 정보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연대투쟁의 조그만승리들

4.5. 프로그래머가 본 Copyleft³⁶⁾

4.5.1. zomo's diary (양기창³⁷⁾)

KUS is no longer underground anymore.
I'm not complaining. I'm not saying that underground is good and the other is wrong.
I remember the days when I was young and furious enough to believe such foolish things...like "I'm deprived of access to system by unknown dark forces and I should fight to get the power back which might have belonged to me long long ago"
Close your eyes and imagine the bits moving at the speed of light. Think about it.
you can exist here and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t the same time. There couldn't be any eighteen year old boy who could resist and deny this overwhelming distortion of reality.
So the boy jacked into the system boldly and thought this wouldn't be anything like fucked-up school, shitty life and cruel parents and wouldn't betray his desire.
"The deterministic computation and finite instruction set won't betray me and my deeper ego which even I don't know what it looks like...", he thought.
He thought himself as a crusade and submerged into deeper subculture.
There were many guys who could share his fatal innocence and attitude. who were found to be another fucked-up teens or twentysomthings.
....

4.5.2. KAIST Underbuilt Society : 정보 자유를 위한 무한한 도전 (조용상)

그날은 억수 같이 비가오는 밤이었다. 그날도 지금은 거의 멸종되가는 FAST5 단말기 앞에 앉아 그들은 network의 전자적 유희를 즐기고 있었다. 웬지모를 감감함. 우리는 개방된 세계, 개방된 정보를 갈구했다. 우리는 모두 꿈 많고 열정에 넘치는 학부 1학년이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키보드를 치는가? 마침내 우리는 하나의 공유할수 있는 신념으로 눈이 닳았다. 그 이름 KUS. 그날 밤 유난히 강렬한 천둥소리가 귀를 때렸다. B, L, C모군 등 초기멤버에 얼마 안있어 당시 1학년 최고의 프로그래머이던 K군이 참여했고 또 고교시절부터 security쪽에 한가닥 날리던 Y모군도 손을 잡았다. 초기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니뭐니해도 주위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hacking, security하면 무조건 나쁜것으로만 인식하던 삭막한 시기였다. 물론 지금도 별 달라지진 않았지만 kus가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자리잡을 수 있던 것은 멤버들끼리의 굳은 단결력과 믿음, 그리고 갈고닦은 솜씨로 추척해 내는 cracker들의 그림자들 이러한 무공(?)을 바탕으로 조금씩 주변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전자계산소에 계셨던 분들의 우리에게 대한 많은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학교내 중요한 시스템에 합법적인 사용 권한을 학부1학년들이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줬었고, 또 우리는 보답이라도 하듯 외부에서 침입하는 cracker들의 꼬리를 속속 잡아내고, 경고도 하였다. 어떤 일간지에서는 이를 두고 해커전쟁이니 하는 소리를 해대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동안 우리는 크고작은 행사에 끊임없이 참여했으며, 많은 document, tutorial을 남겼다. 대부분의 KUS멤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nternet의 상업화에 많은 우려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정보의 공유, open system, open world를 위한 탄생이었던 internet이 몇몇 대기업들에 의해 돈벌이

36. SING a SONG 편집팀에서는 이번 SING a SONG 3호에서 kaist출신의 해커(?)인 양기창씨와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양기창씨는 인터뷰는 별로 ooi하지 않라며, 다음의 글과 KUS 소개글(다른 사람의글)을 보내주었습니다.
37. 다음 글은 양기창씨께서 쓰신 zomo's diary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zomo는 영화 "running on empty"에서 주인공의 개이름입니다. 양기창씨가 무척 영화광이라는 것을 예전의 컴퓨터잡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대해 GNU정신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netizen으로서 서글픔을 느낀다.

또한 그것이 internet에 대한 비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데도 크나큰 모순을 느낀다. 멤버들은 "최초의 국내망이었던 HANA-SDN의 상업망 Komet으로의 흡수 소멸로써 국내 인터넷의 순수시대는 종말했다." 고 토로한다. 결국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 치는 풀뿌리 사용자들은 비싼 요금을 내고 상업망을 쓸수밖에 없다. "internet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자체가 되었을때 비로소 존재의의를 가진다." 라고 멤버중 가장 화려한 해킹 테크니션인 H군은 주장한다.

현재 우리는 kus-advisory 라는 security 문서들을 작성 배포하고 있으며, security@baikdu.kaist.ac.kr 메일링 리스트도 운영하고 있다. 보다 많은 도전적인 참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open system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hacking script 들은 공개하고 있다. "subscriber가 그것들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였음은 물론이다." 며 이 mailing list를 관리하는 K군은 말한다.

우리 모임의 이러한 특성상 신입회원 선발은 대단히 까다롭다. 그래서 멤버수는 다른 동아리에 비하면 현격히 적은 편이다. 컴퓨터와 전산망에 기초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기타 대인 관계, 심지어 이성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open system추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라고 현 리더인 N군은 단언한다. "가장 중요한 건전한 생각이 있다면 전산망 지식정도는 과기원 학부생정도면 일주일만 가르치면 된다." 고 창단 멤버인 L군은 말한다. 그런 조건들을 잘 갖춘 후배들은 요즘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 많지가 않다. 요즘은 나우콤 같은 곳에 security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교생들이 많은데 조금만 더 학교 공부를 해서 당당히 KUS의 문을 두드렸으면 한다.

KUS는 5월중에 결성 이후 최초로 대규모 독자적인 tutorial 행사를 갖는다. N군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은 다가오는 중간고사 준비와 더불어 툴툴하게 자기 발표자료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마도 국내최초로 realtime hacking 실연을 해 보일 예정이다. 그 때문에 요즘 매주마다 TCP/IP세미나를 모여서 한다. "internet protocol 인 tcp/ip는 그 구조적인 결함때문에 어딘가 항상 bug가 존재한다. 그것을 먼저 발견하여 예방책을 공유해야 할 것." 이라고 RPC책을 보며 세미나를 준비하던 C군은 말한다.

하지만 KUS가 당면해 있는 문제들은 적지 않다. 결성된지 5년이 되자면 아직껏 번듯한 우리들만의 system이 없다는 것, 그래서 외부기관의 상담 요청자들에게도 선뜻 알려줄 대표 e-mail address, 그리고 WWW homepage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지원해 주려고 애를 쓰지만 예산상 쉽지 않다. 어느 뜻있는 기업에서라도 조건없이 선뜻 system하나 기증해 주었으면 하는게 우리의 바람이다. 그래서 security ftp server, BBS 등을 돌려보는 것이 꿈이다.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system이 없어 몇몇 회원들은 인근 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용 system 구입비용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쉽지않다. 얼마전에 생긴 동아리방 셋팅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졸업을 하고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을 한 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식, 이상을 위해 쓸수 있을 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가끔 어떤 거대한 벽과 부딪혀 싸운다는 느낌을 갖는다. hacking을 한없이 터부시하여 그로인한 network의 폐쇄화, 딱 막힌 정보들, 이윤추구를 위한 internet, 서로 연동되지 못하는 상업망들, 그러한 정보 자유를 구속하려는 벽들, 그 답답함 속에서 필연적으로 잉태되는 미성숙한 cracker들의 몸부림들..... 우리는 그러한 장벽을 허물기위해 해킹을 공부하는지도 모른다.

KUS가 해쳐 나가야 할 일은 아직도 많다. 나날이 변해가는 network 관련지식, 해킹 기술들을 습득, 발견해서 예방책을 연구해야 하고, 점점 지능화 되어가는 cracker들에 대한 추적, 그리고 open internet에 대한 꿈과 노력을 우리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KAIST Underbuilt Society의 존재가치가기도 하다.

오늘도 우리는 개방된 세상을 꿈구며 키보드를 친다. 타닥타닥 뻑~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혁명을 가능하게 한 새로운 정보의 처리방식으로서의 디지털 혁명과 이로 인해 구축된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적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변화양상들에 대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각들이 지닌 함의와 한계들을 지적해 보고 새로운 사회가 민주주의의 확대를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미래사회를 기존의 산업사회와 단절짓고 새로운 정치적 실천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정보의 새로운 처리방식에 대한 검토로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4.6. [차원]에서³⁸⁾

4.6.1. 정보통신기술혁명과 정보민주주의 (송용준)

■ 들어가며

"무역상사 과장 X씨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다. 5년전 새롭게 구축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X씨는 소위 '재택근무'라는 것을 시작한 이후로 아침마다 반복되는 행위이다. 스크린에 나타난 오늘의 일과와 업무량을 보고 X씨는 오늘이 무척 바쁜 하루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우선 오늘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인 것이다.

투표일인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린 전자투표방식에 대한 안내 공고가 올라와 있었다. "자신의 통신망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전자투표관리위원회와 접속한 후 자신의 직업코드와 연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화상데이터를 전송하고 대기하시면 약 30초 후에 화면에 투표용지가 나타나오니 원하시는 후보에 키보드, 마우스 혹은 여타 입력기구를 사용하여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결과는 투표가 완료되는 18시이후 20분 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던 X씨는 빠르게 투표를 마친 이후에 해외의 바이어와 인터넷을 통해 무역상담을 시작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였다. X씨는 화상통신 시스템을 통해 막 수학시험을 끝낸 딸이 시무룩해 하는 것을 위로하기도 하고, 아내가 흡소평을 통해 마련한 새 가구들의 자랑을 들어가면서 점심식사를 마쳤다. 약간의 휴식을 취한 X씨는 오후 1시에 접속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주치의와의 상담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정기검진을 받는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오늘은 저녁식사 이후까지 할 일이 남아 있을 것 같아 계획했던 외출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X씨는 할 수 없이 가상현실을 통한 산책이나 즐김으로서 외출을 대신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이 하이미디어.멀티미디어 시대의 생활모습일까?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컴퓨터를 이용하면 편리함의 세계가 그리고 불평등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로 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는 수많은 예언가들을 통해 강요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모습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일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동력은 무엇일까? 특히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정보민주주의' 또는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 또는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혹은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라고 부르며 하는 추동력으로서 '정보통신기술혁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곧 지금까지의 사회와 미래 사회가 구별되게끔 하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약간의 기술적(技術的)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혁명을 가능하게 한 새로운 정보의 처리방식으로서의 디지털 혁명과 이로 인해 구축된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적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변화양상들에 대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각들이 지닌 함의와 한계들을 지적해 보고 새로운 사회가 민주주의의 확대를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미래사회를 기존의 산업사회와 단절짓고 새로운 정치적 실천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정보의 새로운 처리방식에 대한 검토로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 being digital

38. 이번 SING a SONG #3호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학술지인 [차원] 4호의 특집 "정보민주주의"의 글 4편을 실고 이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한 정보연대 정책팀을 함께 하기로 한다. 글을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필자 여러분들과 [차원] 4호 편집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집상 '주'를 삭제한 점 너그럽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진부한 느낌을 받게 되는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다시 언급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하여도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생산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보information'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는 물질적 제화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소비를 통해 고갈되지 않는다. 어느 한 사람이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같은 정보에 대한 다른 이의 접근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 누구나 같은 시간에 같은 정보를 '소유'할 수 있다. 물질 자원의 결핍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이론의 제1공리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아날로그와 디지털

정보라는 것은 우주의 시간이 생성한 이후 존재해 온 것이다. 우주의 탄생 이후 모든 변화양상은 바로 정보인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생명체의 출현 이후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곧 생명체는 개체의 보존을 위해 각자의 유전자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인류 또한 유전자 정보를 갖춘 정보체이며 뇌와 여러가지 신경과 세포들은 주어진 여러가지 정보를 검색,처리함으로써 신체를 통제한다. 인류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류는 주위환경에 대한 정보를 기록,저장,검색,운반하는 방식을 개발하게 된다.

인류가 개발해온 다양한 정보의 부호화 방식은 20세기에 이르러 두가지 특징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바로 아날로그analog와 디지털digital이 그것이다. 먼저 analog는 색깔,소리,전파 등의 고유한 물리적 속성 - 진동,세기 등 - 을 그대로 기계에 도입한 것으로, 전류,전압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으로 수치와 크기를 표시하는 부호화 방식이다. 아날로그 부호는 물질형태의 직접적인 모방이다. 지도가 그 좋은 예이며, 오디오 테이프 녹음역시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정보처리방식은 몇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은 자연적인 정보의 양식이며, 재생시 원음의 파동에 충실하고, 파동이라는 연속적인 데이터data 형식을 지니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변형이 쉽고, 전송효율이 좋지 못하여 완벽한 복제가 거의 불가능할뿐 아니라 반복재생시 마모되어 저장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한번 왜곡이 일어나면 연속적으로 왜곡이 진행되기에 그 교정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비해 디지털 부호화는 디지털digit, 즉 숫자라는 말의 형용사인 디지털은 물리적 양을 극히 짧은 시간으로 나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로 표시하는 방식을 뜻한다. 디지털 방식에서는 소리와 점,선,색 등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숫자라는 단일한 기호로 환원되며 여기서 편집과 보관,전송의 무한한 자유가 나타난다. 정보가 디지털화 되면 정보의 단위는 비트bit가 된다.

"비트는 색깔도, 무게도 없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그것은 정보의 디엔에이DNA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원자적 요소이다. 비트는 켜진 상태이거나 꺼진 상태, 참이거나 거짓, 위 아니면 아래, 안 아니면 바깥, 흑이거나 백, 이들 둘 가운데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우리는 비트를 1 혹은 0으로 간주한다."

1과 0, 또는 on/off과 같은 2진법에 기반한 디지털 방식은 비연속적이고, 단순한 속성을 지니므로 전송시 왜곡을 방지하며 완벽한 복제를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방식은 인간의 감각이 포착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므로 정보의 입출력시에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처리의 정확성,신속성,효율성과 여러 속성의 정보를 하나의 회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중성multiplexing,확장성을 지니므로 인해 점점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정보처리방식이 동일하며, 어떤 정보라도 동일한 포맷으로 융합data fusion할 수 있게 됨으로써 멀티미디어multimedia가 가능해지고 비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비트, 즉 '비트에 대한 비트'가 생기게 된다.

-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와같은 디지털 방식의 장점들은 정보통신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즉 모든 형태의 정보가 0과 1이라는 숫자로 통합화되고 기존의 구리선보다 한번에 더 많은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광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융합됨에 따라 한 나라전체를 넘어 전세계를 엄청난 양의 영상과 음성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광속으로 오고가는 하나의 망network으로 통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우리는 초고속 종합정보통신망 또는 정보고속도로라고 부른다. 이러한 초고속 종합정보통신망은 미래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사회의 필수적 기반시설infrastructure시설이며 각 나라 각 지역별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계획들이 입안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이야말로 최우선 기술정책으로 보고 2010년까지 국가정보기반구조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을 통하여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부터 '하나로망'으로 불리는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들어갔으며,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한 전국적인 망 구축을 위하여 2015년까지 모든 가정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보가 권력에서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처리방식의 디지털화와 이로 인해 가능해진 초고속 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해 미래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지위가 격상하게 되며, 이는 물질적 제화의 생산이 중심이었던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사회 즉 '탈산업사회'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사회는 생활양식에 있어서 기존의 산업사회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가 권력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정보의 처리방식이 변화되면 사회구조나 정치적 권력관계가 변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산업사회는 관료제와 같은 거대조직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조직내의 권력은 자본이나 소유보다는 정보의 획득, 처리, 통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국가이건 사회주의 국가이건 간에 권력의 소유는 사회 시스템의 통합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권력의 원천은 생산수단의 소유가 아니라 통합수단의 지배였다. 산업사회의 초기에는 이러한 통합수단의 소유와 생산수단의 소유가 일치했으나, 생산양식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통합의 역할이 분리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며, 결국 정보는 조직 내의 권력의 근원이며, 또한 정보는 최종목표가 아니라 권력획득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정보활동은 바로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수요는 한층 더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행위를 독점하는 자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권력을 잡게 된다.

이와같이 정보가 권력에서 중요하다면 정보통신혁명은 권력의 문제,민주주의의 확대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라는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혁명은 지금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혹은 악화시킬까)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바로 정보통신혁명에 의해 도래하게 된 정보화사회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정보화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여러 가지 시각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직접민주주의의 시대는 오는가?

정보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통신기술이 모든 이에게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점유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 주장한다. "기술의 발달은 통신에 필요한 하드웨어의 값을 저렴하게 해줄 것이며 이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만이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비록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가난한 사람과 부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간격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권력은 지식에서 나오며 정보통신기술은 지식을 세계의 도처에서 보급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은 광범위하게 공유될 것이다."라고

이러한 주장의 그 대표적인 논자들로는 토플러Toffler와 네이스비트Naisbitt를 들 수 있다.

- 토플러의 (제3의 물결)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정보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 산업사회의 민주주의적 한계점을 지적한다. 그는 산업사회에서는 그 국가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였으며, 대의민주제는 이러한 엘리트 및 슈퍼엘리트에 의한 피라미드 형의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테크놀로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진행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사회체제의 중심단위였던 국가의 위치가 무너지게 되고 권력의 단위가 지방화되는 하향 분해운동과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을 국제규모의 연합체나 조직에 그 권력을 안도하는 상향초월운동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의민주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드러내 주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투표율의 저하, 무소속 의원의 증가 그리고 정치적 무력증, 무관심 및 냉소주의의 증대가 나타남을 들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운영을 위해 결정해야할 사항의 수 또한 증가하게 하며, 결국 이를 소수의 엘리트들이 모두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의 권한의 광범한 확대와 일반시민들의 민주적인 정치참여를 통하여 분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21세기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는 다수결원리와 소수세력이 융합한 '소규모 다수결주의mini-majoritarian'로서, 다수결주의의 결과인 가짜의 다수파로 의견의 차이를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규모 집단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위에 소수파가 다수파를 형성하도록 전체 체제를 근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표자에게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가 대표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반직접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의 원리이다.

마지막으로 '결정권의 분할decision division'을 제안한다. 이 원리는 결정권의 집중을 분산시켜 결정권이 소속된 곳마다 그것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같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근거로서 토플러는 직접민주주의를 제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게 한 산업사회 초기의 제약조건이 테크놀로지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네이티브의 {메가트렌즈Megatrends}

네이티브 또한 토폴러와 마찬가지로 대의민주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의 증가는 식견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증가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행동과 주주, 노동자, 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의 참여의 증대를 통해 기업체의 의사결정과정에도 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일반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 사회전반의 불평등 구조가 개선될 것임을 주장한다.

"컴퓨터는 피라미드를 단숨에 깨뜨릴 것이다. 우리는 수직적이고 피라미드적인 경영체계를 사람과 사람들이 하는 일을 추척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다. 이제 컴퓨터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제도를 수평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다."

결국 피라미드형 구조가 결함을 나타내기 시작한 60년대 말부터 사람들은 또 다른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이른바 네트워크 구조에 의한 정보의 교환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사회활동을 하는데 유력한 수단이 되었다. 세상을 변혁하려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상, 동일한 목적을 내걸고 각 지방별로 집단을 이루어 행동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낙관적 견해들의 한계 ; '기술결정론'이란 굴레

이상과 같이, 정치적 차원에서 낙관적 견해는 정보테크놀로지가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과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드러내 주고 시민들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권력이 기존의 엘리트 계층에서 대중에게로 이전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논의는 아터튼Arterton의 다음과 같은 말로 집약할 수 있다.

"기술발전에 힘입어 모든 시민들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사용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상징하는 말로 그들은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의 장미빛 전망은 다음과 같은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바로 기술결정론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기술결정론이란 사회적 관계로 파악해야 할 정보기술을 중립적인 생산력으로서만 파악함으로써 기술의 본질을 간과하고 기술이상주의에 빠지고 만다.

"많은 유토피아적 사상이 그렇듯이 토폴러 역시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하기보다는 기술적 처방에 의존해 있다. 곧 플라톤, 베이컨, 마르크스를 포함하여 유토피아 사상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문제를 기술적 문제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토폴러 역시 이처럼 강한 기술주의적, 기술결정론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사회변동의 독립변수로,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를 종속변수로 보는 접근시각은 체제색명성이라는 평가로 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시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보다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러한 기술이 등장하게 된 사회구조나 필요성과 연계시켜 보지도 않으면서, 단지 기술의 등장 이후의 사회적 성과나 이용성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내재적인 성질로 본다는 점에서는 기술결정론technical determinism으로 그리고 사회구조적 변동에 요인을 제공한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어보고자 하는 이들은 '원인적 요인'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설명해 왔다.

결국 낙관론자들의 주장은 정치적 메커니즘이 설명되지 않고, 기술의 오용, 남용을 막을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현실사회의 불안전함과 불평등성을 은폐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신화이자 이데올로기화 되고 있는 것이다.

■ 장미빛 미래는 장미빛 꿈일 뿐인가?

이와같이 기술결정론에 기반한 낙관론자들의 견해가 하나의 신화이며 이데올로기임을 폭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혁명이 현재의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화하고 현 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수단임을 주장하는 입장이 바로 비판적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특정한 기술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한다.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도입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기술은 결코 현재제에 역행하는 것일 경우 결코 수용될 수 없으며, 결국 정보통신혁명이라는 것은 현재의 소유와 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유지,강화하는 수단이며, 지배층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효과가 과대포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부터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견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카츠만Katzman의 '지식/정보 격차

벨Bell은 종래의 산업사회에서는 부와 정치적 권력이 중요성을 띠었으나 탈산업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갈수록 이론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이 권력의 기반이 되어 종래 산업사회를 특징짓던 계급갈등이 완화되고, 교육이 권력에 접근하는 주된 통로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개인과 사회에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을 급속도로 증가시킬 것이며, 이른바 정보폭발information explosion의 우려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개인이 저장,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카츠만을 비롯한 논자들의 일반적 지적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대두로 인해 다양한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가 일단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능력 - 단순한 개인적 능력만이 아닌 조직 동원력과 같은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관계에 의한 능력까지 포함한 - 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따라 정보의 실질적 점유능력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결국 오늘날 지식과 능력에 따라 '정보 부자'와 '정보 가난뱅이'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정보의 불평등 구조는 계속될 것이며, 더 나아가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카츠만은 이와같이 예상되는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식/정보 격차knowledge/information gap'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도입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명제의 논증을 통해 도출하고 있다.

- 1)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채택하면 이미 높은 차원의 정보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닉과 테크놀로지는 그 이전의 정보격차가 줄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정보의 격차를 만들어 낸다.

즉 이미 존재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이용의 불평등, 즉 지식/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채택함에 따라 이미 높은 차원의 지식/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용의 능력 또한 더욱 높기 때문에 기존의 격차보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도입 이후의 격차가 더욱 증가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결국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다고 해서 기존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상존하고 있다. 결국 정보화 사회에 대한 낙관론은 단순한 꿈에 불과한 것이다.

- 쉐러H.Schiller ; '자본주의 위기경제의 돌파구'

쉐러는 그의 저서 (현대자본주의와 정보지배논리)(원제 Information and Crisis Economy)에서 현대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 이윤의 창출에 있어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러한 세계경제의 체제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새로운 정보 테크놀로지라 주장한다. 즉 새로운 정보 테크놀로지는 기존에는 상품의 영역이 아니었던 공공분야들, 특히 도서관,국가공공정보자원,교육분야,(공영)방송과 같은 공공의사표현의 영역을 상품화하고 사유화함으로써 한계에 이른 위기경제를 돌파하여 세계체제를 현재와 같은 종속과 불평등의 체제로 유지하려는 선진 자본주의의 국가와 초국가기업 Trans-National Corporation의 전략이며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결국 위기경제 돌파의 수단으로 선진국과 TNC에 의해 도입된 정보 테크놀로지는 모든 문화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정보로 통합시켜 상품으로 생산하게 하며, 일단 생산된 정보는 반드시 판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 정보의 파괴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근거도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더 나아가 정보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전자 트랜스border 데이터의 흐름electronic transborder data flow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간에도 정보의 흐름이 자유롭게 됨으로 인해 후진국과 제3세계에 대한 선진국과 TNC의 지배를 지금보다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이것이 군산복합체와 결합됨으로써 현 자본주의적이고 지배,종속적인 세계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필연적으로 세계의 산업적 힘과 군사력의 지배적 구조에 맞춰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세계적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계속해서 거기에 봉사하게 된다."

이와같은 쉐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보통신기술혁명에 대한 낙관론자의 주장들은 세계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나 분석이 없이 일부의 조그만 가능성을 확대해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지배체제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뿐인 것이다.

- 비판론자들의 한계 ; '증후적 기술symptomatic technology 또는 음모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통신기술의 가치중립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사회적 근원을 은폐하고자 하는 신화적 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추상적으로 분화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그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사회적,총체적 형태와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시각은 정보통신기술을 그것이 발현되는 사회적 구조적 변동이 외부로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중후적 기술론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술은 사회적 관계의 중후로서 나타나며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기술이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 준다는 것은 현 권력관계의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 주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이 사회적으로 도입되는 기술이라는 것은 이와같은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한 지배계급의 음모의 일환이라는 '음모론'적인 색채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와같은 중후적 기술론·음모론적 분석은 충분한 입증자료에 기반한 추론의 타당성 등 충분히 현실설명력과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단순한 비판과 이데올로기적 폭로에 그칠뿐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긍정적 의미를 모두 사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회관계·사회체제 전반의 혁신의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된다. 결국 비판론자들의 입장은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 정보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아라!
: 거시담론에서 미시담론으로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 견해와 비판적 입장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기술결정론'과 '중후적 기술론'이라 지적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은, 낙관론의 경우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의 생산력에 있어서의 급속한 발전이 사회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지로, 비판론은 사회관계 혹은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현재의 불평등을 유지·강화할 것이라는 논지를 통해 모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산업사회라는 하나의 총체적 관점을 탈산업사회 혹은 정보사회라는 또하나의 총체적 관점으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같은 총체적·거시적 담론으로 정보테크놀로지를 바라 본다면, 각각의 논자들이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관점과 방향타를 잡아준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입장의 이데올로기적 기반하에서 낙관론과 비판론이라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으며, 다만 테크놀로지에 대한 무한한 환상이나, 거부외에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문제는 바로 낙관적 견해대로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만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보는 것도 완전히 긍정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비판론자들이 바라는 현재 사회관계·생산관계의 변화가 쉽게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는 데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문제는 정치 참여주체들에 의한 실천의 문제이며, 이러한 실천 가능한 영역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의 과정 즉, 지금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보테크놀로지 속에서 정보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한 여러 관점들, 즉 정보테크놀로지의 특성과 사용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아터턴Arterton ;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분석

아터턴은 토폴러와 네이스비트와 같은 낙관론자들이 직접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고 비판한다. 즉 기술적 변화가 사회변화를 초래한다는 단순한 기술결정론적 주장들은 거의 면밀한 조사나 경험적 연구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터턴은 미국내에서 시청자전화참여형, 반송우편투표, 상호작용적 CATV, 원격회의와 화상회의, 컴퓨터회의, 전자우편과 비디오텍스videotex 등을 통해 실시된 13개의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대화, 그리고 정보교류가 정보화된 정치체제를 이루는 초석임을 주장한다. 또한 그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시민과 정치인의 직접적 접촉의 증가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시민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대중에 대한 정치가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이중성을 지적한다.

결국 텔레데모크라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들이 확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결정은 기술적인 면보다는 정치제도에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텔레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는 개선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도 없고, 이상적으로 완성할 수도 없음을 지적한다.

- 로든Laudon

로든은 정보기술의 민주적 가능성을 찾기 위해 정보기술을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적 잠재력에 따라 자료변형 기술data-transforming technology, 대중참여적 기술mass-participation technology, 상호작용적 기술interactive technology의 세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 세가지 기술의 성격에 따라 '관리적 모델의 민주주의', '대중주의적 민주주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모델이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로든의 분류에 깔려 기본적 전제는 일정한 정보기술들의 발전에는 매우 상이한 민주주의의 모델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정보기술이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데에 상이한 종류의 사람들의 기존 역사적·조직적·환경적 영향에 따라 정치·사회적으로 상이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이 민주적 함의를 고찰할 때는 각 기술이 지닌 접근가능성과 통제와 상이함이 누가 영향력을 얻고 잃으며, 누가 어떤 결정에 언제,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차별성을 가져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포스터Poster ; '정보양식mode of information의 개념'

마크 포스터는 전자통신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에 주목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필요로 하며, 또 기호의 추상적인 기호의 소통에 있어 그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함축한다. 따라서 전자통신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언어적 차원을 독해할 수 있는 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르크스Marx의 생산양식 개념을 본따 '정보양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보양식의 개념은 총체화의 난점을 피하기 위해 탈구조주의적인 시각을 차용한다.

특히 데리다Derrida와 푸코Foucault, 그리고 리오타르Lyotard의 논의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연계점들을 찾으려는 탈구조주의적·탈현대적 post-modern 정치의 가능성을 찾는다. 곧 주체 혹은 개인의 정체성의 주장보다는 해체된 의명성으로서의 컴퓨터 통신의 정치참여, 새로운 감시와 통제의 판옵티콘으로서 등장한 데이터 베이스, 다양성의 공동체를 주장하고 "대중에게 메모리 뱅크와 데이터 뱅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주라"라는 말로 집약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가는 길에

지금까지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왔다. 정보화 사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원동력으로서 디지털혁명, 그리고 그 속에서 대두된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수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로 나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그렇다고 정보화 사회 혹은 탈산업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우리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의 확대의 길목으로 '참여의 정치'를 제안할 수 밖에 없다. 정보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그 밑에 깔려 있는 음모가 어떻던 간에 그 속성상 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적 관계로서의 정치의 영역은 정치참여자의 실천에 의해 그 관계의 재정립이 결정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끝없는 외경이나 현재 사회에 대한 너무나도 암울한 인식만으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부만이 아닌,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환적이고 실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실천하는 주체로서 개개인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그 속에 정치적 실천의 가능성을 찾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정보통신테크놀로지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태의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즉 컴퓨터의 등장이후에 생활형식과 문화적 변화양상, 즉 internet과 같은 전세계적 정보통신 network의 등장으로 인해 변화된 양상 등에 대한 민속지학적 접근ethnography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사회적 사용형태에 대한 분석으로 정보통신테크놀로지 속에 내재해 있는 민주주의의 확대 가능성의 영역들-정보통신기술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정보의 통제와 상품화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과 이를 바탕으로한 공공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사용형태를 통한 가능성의 모색이 정치의 참여확대를 위해 실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분야와 영역의 움직임들-환경·성·문화·미디어 등의 시민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의 정치활동이 아닌 현실공간real space에서의 정치활동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국 현실은 정보영역에서 민주주의나 야만이나의 치열한 암투의 시기인 것이다.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통해
뇌세포를 파괴하려는 은밀한 시도
새로운 세대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치열한 암투
몸 속에 저장된
비밀 서류의 '대외비'를 제거하고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해독하기 시작한다."

—하재봉 비디오/천국중 [비디오/플로피디스크]의 일부분
정보통신기술혁명과 정보민주주의

4.6.2.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 : 인터넷 Internet (노상훈)

■ 들어가며

최근 몇 개월간의 신문을 가져다 놓고 가만히 보면, 폭발적으로 지면의양이 증가한 분야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터넷에 관한 기사이다. 정론지라 스스로 말하는 신문에서 부터 각종 스포츠 신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 자체가 굉장한 이슈로 포장된다. 또 이러한 신문들은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거나 혹은 테크놀로지를 주도해가는 주체정도로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이하 WWW) 에 대한 기사는 매일 어느 신문에서나 거의 한 면 정도를 고정란으로 할애하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속력으로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다.전국민의 폭발적인 관심과 환호속에 과연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루어 지고있는 것일까.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아무런 제한없이 무한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바로 1996년의 대한민국에서? 흔히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모든 담론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예기의 수준들은 하나같이 중요한 지점이 가리워진 채 유통된다. '발전' 이데올로기와더불어 테크놀로지는 절대선인 양 그려지는 것이다. 예컨대 DRAM (Dynamic RAM)과 SRAM (Static RAM)에 대한 설명은 유보해두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몇 메가 DRAM이 세계 몇번째로 양산이 되었으며, 그래서 자기네들의 기술력은 최고라는 등... 물론 보는 사람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기술 수준이 높아진 것인 양 얘기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이는 모든 기술 담론에서 정당화된다. 이 글의 주요한 관심사인 인터넷도 예외가 아니다. 인터넷은 어느새 우리 시대의 정신적 지식자본의 역키스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운용되며, 어떤 사회적인 함의를 지니는가 하는 것은 고스란히 팔호쳐진 가운데 말이다.

근래에 들어와 인터넷과 WWW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컴퓨터를 모르면 현대사회, 정보화사회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는 야만인이나 원시인의 취급을 받고, 그 마녀 재판의 결과 '컴맹'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어제의 일인 것만 같은데, 그로 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만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인터넷을 모르면 또 무능한 인간으로 대접할 체비를 이미 갖춘 듯 하다. 몇 년전에 도스니 컴퓨터니 몇86이니 하는 말들이 지녔던 상징적 자본을 이제는 인터넷이 고스란히 이어 받은 것이다. 인터넷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보화 마인드, 인간 개별 능력지수, 현대사회에의 적응력, 전투력의 척도이자 구별/차별의 검색기로서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또 정보화와 세계화에 주눅든 이 시대의 정언명령으로 기능한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헤쳐나가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TOEIC과 Internet...

흔히 인터넷과 WWW은 무한한 정보의 바다이자 보고로서 자리매김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라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인터넷은 자체가 엄청난 사업의 하나로 얘기되며, 뛰어난 광고매체로도 거론된다. PC통신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한번쯤 WWW에 접속해서 그 안을 항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관심분야를 다루고 있는 사이트에서부터 시작하여, 헐리우드의 신작 개봉 영화를 미리 보고, 클린턴과 담소를 나누고, 세상 어느 곳이든지 들려서 자신의 족적을 남기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과 잡담도 하고 말이다. 때로는 사무실도 없이, 컴퓨터와 모뎀만을 이용해 기획력과 상상력으로 성장하는세계적인 회사를 꿈꾸기도 한다. 앉아서 세상을 둘러 본다는 매력때문인지 WWW은 각종 기업체의 참여와 홍보, 광고, 통신망의 발달, PC의 대량보급, 접속비용 감소, 멀티미디어 기술 발전, 근거리 통신망, 상용 인터넷 서비스 업체 CIX의 증가와 더불어 폭발적인 사용자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한정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로 파악된다. 바야흐로 손끝 하나로 모든 정보를 지배하는 테크노피아의 세계가 온 것인가. 인터넷의 발전은 여러가지의 변화와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변화와 변화의 동력, 그리고 인터넷이 제기하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 인터넷에 대한 통념들

먼저 간략하게나마 인터넷의 연혁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미국방성은 과학,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성 내에 ARPA 라는 조직을 만들고, 1970년대에 소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자원을 보호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대학과 국립연구소를 대량정보 수송수단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ARPAnet가 구성되었는데, 70년대 후반, ARPAnet의 대부분이 비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자 비군사적 용도는 독립을 시키고, 국방성은 새로이 MILNET를 구성하게 된다. 이후 국립 과학 재단이 ARPAnet를 모델로 새로이 NSF net를 구성하고 ARPAnet를 80년대 후반에 흡수한다. 인터넷은 교육기관과 정부기관등을 중심으로 network를 구성하였고, 지금은 세계 각지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전세계를 망라할수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한마디로 인터넷을 표현하자면, "인터넷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인터넷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기존의 정부단체와 개인들을 연결시켜주는 CIX의 등장인 그것이다. 흔히 인터넷 상용 서비스 회사로

불리는 CIX는 인터넷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멀티 미디어 텍스트, 하이퍼 텍스트를 지원하는 월드 와이드 웹은 보다 쉽게 대중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보겠다.

- 인터넷의 구조와 개념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인터넷에는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와 데이터 베이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네트워크에 접속된 자신의 컴퓨터에서 원거리에 있는 (자신의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컴퓨터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서 그곳에 있는 자료들을 자신의 컴퓨터로 받아올 수도 있다. 여러가지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순식간에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물리적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불편없이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친리안, 하이텔 등의 통신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무수히 많은 게시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게시판은 수많은 다양한 관심사들과 주제들로 범벅되어 있는데, 이를 유즈넷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폭발물, 마약, 포르노, 신비주의, 그로테스크, 혁명, 록, 죽음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 방대한 자료들과 의견들이 산재해 있다. 이렇듯 무수한 정보의 보고인 인터넷이 운용되고 있는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위에서도 계속해서 밝혔듯이 인터넷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기에 '실체'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하나의 사회처럼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그 안에서 질서들을 만들어 나간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인 공동체 혹은 집단이 그러하듯이 인터넷도 자체내에 공동체의 구성요건과 최소한의 규범들을 만들어 내는데, 흔히 네티켓 Netiquette 이라고 알려진 것이 그것이다.

인터넷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그것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 소사이어티이며, 이는NSF의 차원에서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 유지하는 IETF와 장기적인 연구를 하는 IRTF,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IBA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들은① Netizen의 보호, ② 공공(!) network 의 구성, ③ 모든 시민의 발언권의 신장을 위해 EFT를 가지며, 이는 전자 민주주의의 창조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인터넷은 지방 분산화가 되어있어, 누구도 소유하거나 총체적인 위치에서 운영하지 않는다. 물론 인터넷에도 그 중추 back-bone 를 이루는 NSF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각 네트워크는 각자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그 비용도 그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 인터넷에 대한 통념들

일단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인터넷은 엄청난 정보를 그 가장 큰 미덕으로삼는다. 사실 인터넷 자체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고, 모든 네트워크에서 이에 접근이 가능하기에, 세계 어떤 곳에 있는, 무엇에 관한 정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모두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없는 정보는 찾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이는 컴퓨터를 매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검색되고, 정리된 정보를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바다라는 별칭에 걸맞게 인터넷에서는 '항해 Navigation' 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인터넷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가상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가지는 의미는 더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 인터넷의 소유주가 없다는 점은 그 공간이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공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해방공간 혹은 반자본주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내비친다. 지방분권화 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기존 사회질서의 중앙집중식 권력관계와는 거리가 있는 조직원리로서 자체적으로 민주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의 이용자들이 모두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각자 가질 필요없이 이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생산관계에 있어서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과 권력을 해체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춘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에서는 평등권력과 직접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예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유통되는 정보의 방대한은 실질적인 검열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따라서 어떤 정보라도 자유로이 - 실제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 유통될 수 있는공간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여타의 미디어들이 소유, 검열등의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새로운 미디어로서도, 그리고 새로운 공간으로서도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소비되지 않고 누적되어, 전 인류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셈이다. 더구나인터넷에서는 모든 자료의 공개와 자유로운 접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의 이상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for free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많은 자료가 개방되어 있으며(각주 8의 익명 계정 anonymous account 참고) 또한 누구나 이곳에 자료를 더할 수 있다. 정보/자료의 내용에 있어서도 검열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라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듯이 보인다.

인터넷은 새로운 조직의 운영원리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으로 작용한다. 위에서 네트워크의 특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언급이 되었겠지만, 실제로 인터넷은 여러 분야에서의 새로운 조직원리를 제안한다. 이에 관해 네그로폰테는 TV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즉 TV 네트워크가 하나의 시작(소스)이 있고 수많은 동종 싱크 (homogeneous sinks : 신호가 가는 곳) 를 가진 위계적 분배장치라고 한다면, 컴퓨터는 모든 사람이 소스와 싱크로 행동할 수 있는 이종처리장치 (heterogeneous processor) 의 망이다. 일방적, 강압적이고 위계있는 커뮤니케이션 질서에서 탈피하여,

쌍방의 소통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질서로의 진입이 제시되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가정하는 수평권력과 평등성은 이러한 사고에 기반한다. 이는 단순히 정보화사회라고 하면 단골처럼 회자되는 제택근무 정도의 예가 아니다. 사실 인터넷은 단순히 무엇무엇을 어떻게 바꾼다기 보다는 사고방식 자체, 그리고 생활양식, 노동의 패턴 등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 인터넷의 경제와 상업화 : 변질되어 가는 인터넷의 이상

이러한 이상적인 서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관한 서술은 다른 쟁점과 사고의 틀, 그리고 보다 폭넓은 시야를 요구한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인터넷의 이상을 감아 먹어가는 '상업주의'의 등장과 확산이다. 일단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생각만으로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드웨어의 사양에 관심이 멈춰지고 만다. x86이상의 CPU, RAM은 몇메가 이상, 모뎀은 14400 bps 이상, 등등...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사양을 갖춰야 한다는 것만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망을 갖췄느냐의 여부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계로의 출입구의 검색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보의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그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오히려 인터넷의 사용에 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더 폭넓은 방식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면만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모든 다른 상업주의가 그러하듯 장점과 단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무엇이 겉면이고, 무엇이 그 안에 있는 진짜 알맹이인지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인터넷에 작용하는 상업주의의 원리를 시장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인터넷을 상업화의 방향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인터넷의 미래에 관해서 가장 손쉽게 상상할 수 있는 점은 인터넷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인터넷의 엄청난 시장성을 자본이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그런 움직임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시작 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국경을 없애고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TNC와 초강대국의 해게모니를 꿈꾸는 미국은 이미 초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그들의 미래로 결정할 듯 하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할 NII와 GII를 상상해 보라. 만약 이 거대한 전산망이 유료화 된다면? 논리는 간단하다. 정보고속도로는 대학과 기업, 군, 네트워크, 개인을 연결하는 인터넷의 유료화에 다름아닌 것이다. 전화선이 느리다는 기술적 한계를 광섬유로 극복해내면서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는 식으로 회선 사용료를 부가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초국적 자본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미래의 사회간접자본 SOC 이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를 단지 암울한 시나리오의 다양한 변종 중 최악의 버전 version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수 있을까.

TNC의 세계관리는 이윤추구의 탈국가경계로 집약될 수 있고, 이것이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인터넷은 영어의 사용을 표준으로 하고 있고,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에 접속되어있는 서버의 분포를 보면 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1994년 7월 현재 ISOC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에 전체 인터넷 서버의 63.40%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영국으로 고작 5% 밖에 되지 않아 그 차이는 확연하다. 전체 10위안에 들어보아 2% 정도를 차지할 뿐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가 - 그것도 접속되어 있는 나라에 한해서 - 1% 미만의 서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 웹서버에서는 blue ribbon 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얼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제임스 엑슨과 슬레이튼 고든등 민주/공화 양당의 보수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된 S.314라는 <컴퓨터 외설통신 금지법>에 서명한 것을 반대하는 운동에서 기인한다. 이 법안은 미국내의 통신망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검열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음란물로부터의 보호를 그 명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포함한 네트워크에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25만 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을 살게된다고 한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라는 인터넷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VTW (Voters for Telecommunication Watch) 의 주도하에 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pic (Electronic Private Information Center) 등 인기있는 사이트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배경 화면을 시커멓게 해놓고, 블루 리본을 홈페이지에 신고서, 법안에 동의한 상원의원들의 E-mail 주소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비난하는 메일을 보내자고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 온라인에서 음란 정보물의 유통을 막겠다는 것은 하나의 허울에 불과하고, 인터넷 관련 기술과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이 그 의도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전세계의 인터넷 기술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정보 유통량의 80%가 미국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이외에도 돈세탁, 마약, 마피아, 음란물등의 핑계로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위에서 얘기한 NII, GII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인터넷의 상업화 경향과 관련하여 '표준'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다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규격과 사양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회사마다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낸다면 자료의 공유 및 호환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시장자체로서도 그리 생산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컴퓨터 시장에서는 여러가지의 '표준'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을 제기한 곳에는 이후의 엄청난 시장확장과 이윤의 획득이 예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이 항상 생산적이고, 건전하며, 효율적이지는 않다. 표준은 단순히 만들어진 약속에 불과하며, 이는 사회적인 선택이지, 순수 기술력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진 예를 들어보자면, 거의 모든 PC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MS-DOS는 거의 모든 PC 상에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합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인 것이다. 운영체제로서 가지는 불편한 점의 대표적인 것이 초기에 메모리를 640KB만 액세스 access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는 지금도 많은 프로그램의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소이다. 그래서 요즘은 윈도우즈나 그외의 메모리 관리 프로그램으로 DOS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한다. VCR 시장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Sony의 beta 방식은 부족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시장을 선점한 VHS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외에도 약간 맥락이 다르기는 하지만 마그네틱 테이프에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녹음을 할 수 있는 DAT는 양산기술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음반업자들의 이해에 눌러 실용화되지 못했다.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하이 테크놀로지가 요구되는 분야는 표준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표준자체가 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동영상 압축기술이 한 예가 될 수 있겠는데, 무료로 제공되었던 MPEG-I 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MPEG-II는 유상으로 하여 기술료를 받는 식으로, 시장에서 표준을 지배하게 되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언뜻 보기에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유지, 개발, 수정되는 '표준'은 편리함과 호환성의 이면에 치밀한 이윤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의 표준이 개발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의 프로토콜이다. 인터넷은 전용 프로토콜로 TCP/IP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표준화기구 ISO 의 표준인 OSI를 아직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의 프로토콜이 바뀌거나 굳이 OSI를 지원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사실 테크놀로지에 기반하는 산업에서 표준이 지니는 위치는 자못 대단하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가능성에 더해져서, 하나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인 표준이 정해지면 이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upgrade 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로 인해 다른 것으로 바꾸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운영체제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위에서 예로 든 DOS외에도 윈도우즈, Unix 등이 그러하다. 또한 표준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글을 처리하는 한글코드는 정부표준은 완성형이며, 조합형은 한글의 창체원리에 부합하고 처리하기가 쉬워,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된다. 그런데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즈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UNICODE라는 것을 내세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글코드를 무시하기도 해서, 정부와 소프트웨어 생산업체가 윈도우즈 95의 공식적인 구매 자체 요청을 벌이기도 했다. 그만큼 표준을 장악한 이가 갖는 힘은 크다고 하겠다.

위에서 인터넷은 네트워크를 통한 구성으로 인해 수평권력의 가능성을 지닌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그대로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이다.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자체적으로 이상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독점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형식은 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수평적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서버에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모두 소유할 필요는 없지만, 서버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기 때문에 서버의 독점을 클라이언트의 수준에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신망에서 그러한 점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시스템 관리자의 ID를 얻기위한 것, 초보적인 해킹이 집중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사실 하나의 통신망이 있을때, 그 통신망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통신망안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 이용자가 올려보낸 내용을 검열, 삭제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성원의 가입을 좌우하며, 심지어는 이용자의 ID를 접근 불가능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버도 마찬가지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에 여러 작은 컴퓨터가 접속되어 있는 형태로 사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통신망상에서 하나의 초월적인 주체로 기능하는 판옵티콘적 존재로서의 서버 혹은 중심과 그것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는 터미널, 클라이언트들로 그것을 사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가 가지는 가능성과 양립하는 또다른 의미에서 중앙집중식 모델이다. 물론 이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모델이 지니는 한계를 부분적으로는 극복하지만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는 여전히 지니고 있다.

인터넷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현재 접속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무도 정확한 인터넷의 사용자 수는 모른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각국의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형태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산하는 사람마다 그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1994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된 인터넷 상에서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을 실시한 MIDS와 TIC에 따르면 인터넷의 사용자는 핵심 사용자 그룹 The Core Internet, 정보 소비자 그룹 The Consumer Internet, 기반 그룹 The Matrix 으로 나눌 수 있고, 핵심 사용자 그룹은 250만대의 컴퓨터와 780만명 가량의 사람이, 정보 소비자 그룹은 350만대의 컴퓨터와 1,350만명 가량의 사람이, 그리고 기반그룹은 그 인원이 정보소비자 그룹을 포함하여 2,7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의 규모가 최근 6년간 매년 배이상 증가되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서의 통신에 폭넓은 시장을 제공한다. 더불어 통신시장의 확대는 지리상의 발견과 같은 의미에서 새로운 공간이 전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상공간은 단순한 공간전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시간과 공간 혹은 시/공간이라는 범주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비가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만인을 위한 시/공간으로 인식되던 것은 특정한 사회적 (생산) 관계와 사회적 투쟁에 의해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중세 초기, 유통에서 화폐영역이 확장되고, 공간적으로 상업적 네트워크가 조직됨에 따라 상인들은 일사불란한 상업활동을 위해 보다 적절하고 예측가능한 시간적도를 만들어야 했으며, 그것은 시계의 발명을 요구했다. 불가역적이고 연속된 흐름으로서의 시간은 특정한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여, 분절되어서 계산될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화되었으며, 이는 화폐의 발달과 공간의 탐색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시간의 화폐 혹은 이윤중심적인 변화에 이어 세계의 지도화는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화폐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재편되는

경향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는데, 시간과 공간이 화폐/자본주의의 욕망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하비는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본의 회전시간과 관련해 개별 자본가들이 사회적 평균이상으로 자본의 회전 시간을 가속화시키려는 경향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에는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생산과 노동속도의 경직성, 상환되어야 하는 고정자본, 마케팅 경쟁, 소비지체, 화폐순환의 병목현상등이 그것이다. 물론 그러한 장벽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된 기술적, 조직적 혁신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자동차나 다단계 닭장의) 조립 라인 공정, 물리적 과정들의 가속화 (발효, 유전공학) 에서, 소비부문의 계획적 노후화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유행과 광고), 신용체계, 전자은행등에 이르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

"계시장을 창조하려는, 공간적 장벽을 줄이려는 ... 동기는 항상 현존 하고 있으며, 그것은 생산 (미세한 분업, 공장체계, 조립라인, 영역적 분업, 대도시 집적의 일련의 조직), 유통 네트워크 (교통 및 통신체계), 소비 (가구 및 내수계획, 지역사회조직, 도시에서의 거주지 분화, 집합적 소비) 의 효율적인 구도로 공간조직을 합리화하려는 동기이다. ... 공간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기여한 혁신들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 철도와 전신, 자동차, 라디오와 전화, 제트 항공기와 TV, 최근의 전기통신 혁명이 혁신적인 사례이다."

마케팅 네트워크와 마케팅 공간의 지배는 여전히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이며, 시장점유율을 위한 투쟁은 전쟁을 방불케한다. 이런 자본주의의 욕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인터넷이 구성되고 확장되는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인터넷은 학술적인 목적, 그리고 사회적인 목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것이 시장 확대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 중심으로 운용되던 이곳은 상업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며, 이는 다시 새로운 시/공간과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기업들은 더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시장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새로이 구축이된 시/공간에 대한 생각은 공간의 구체화를 통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관리를 가능케 한다. 더군다나 인터넷 상에서는 상대방 혹은 어떤 주체가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 가상의 공간안에서는 그 사람은 거대한 명명체계에 의해 왜소해진다. Domain Name System 과 IP 어드레스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간에 연락을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실존과는 무관하게 가상 공간안에서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은 아무런 중요성을 지니지 못하며, - 왜냐하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 가상공동체 안에서의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는 ID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하비에 의하면, 공간의 지배는 새로운 공간의 형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전의 모던한 공간은 지속적인 축적의 위기(이윤을 경향 저하)를 새로운 시장의 창출, 새로운 노동통제, 새로운 산업의 창출로 극복하려는 자본의 의지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간과공간의 새로운 구체짓기를 통해 가능해진다. 그리고 통신망은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새로운 이윤 창출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기존의 모던한 공간이 주는 장벽들을 새로운 공간의 창출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이윤욕구와 시장의 확산, 그리고 시/공간의 새로운 전유양식을 편의상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 통신 시장

인터넷의 사용자에 대한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자체가 지니는 시장규모는 엄청나다. 한 예측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1억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될 것이며, 이제 인터넷의 이용자수 통계는 지구의 인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한해동안 북미지역의 인터넷접속 시장 규모는 18억 3천 8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또 오는 2000년까지 접속료는 54억 1천 5백만 달러, 별도 서비스 이용료는 18억 3천 8백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캘리포니아 주의 멀티미디어 리서치 그룹은 밝히고 있다.

통신시장의 확대는 TNC, MNC로 하여금 자신의 마케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더불어 통신과 연계된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멀티미디어 산업등에서 보듯이 TNC는 다매체, 다채널을 가지는 방향으로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대중적이고 집합적인 소비가 이루어져 오던 문화상품들은 편리함이라는 말과 뒤엉켜 주문형 On Demand 과 소비한 만큼의 지불 Pay Per View 로 변형된다. 많은 접속자와 느린 시스템은 계속해서 느린 모델을 가진 소비자들 고속모델의 시장으로유인하고, 이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장의 지속적 유지와 확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 광고, 홍보 / Sponsor

대중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광고가 있기 마련이다. 인터넷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업적인 광고를 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일단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식이 지배적이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자사의 상품이나 이미지를 광고하게 된다. 할리우드의 영화사들의 경우에는 개봉될 영화에 관한 정보와 동화상들을 담아놓고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후 영화관으로 오기를 유도한다. 세계의 유수한 신문과 잡지들도 기사의 일부를 올려놓고 잡지나 신문의 구매를 부추긴다. 물론 그안에는 각종 기업체의 광고가 있음은 물론이다. 각종 컴퓨터 회사들이나 통신 판매회사들도 인터넷상에 가상의 전시관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방문하기를 기다린다. 3차원 입체영상의 기술과 VR 기술이 인터넷에서 실용화된다면 (혹은)나 (코드명 J)에서와 같이 실재하는 공간에 있는 기본으로, 광고를 경험하거나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기본을 느낄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형태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스폰서가 되어간접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와 불법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월드웹을 알리는 사이트에 스폰서가 되거나 핫 와이어드와 같은 사이트에 상업광고를 하는 것등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불법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광고를 할 수 없는 곳에 광고를 하는 경우로 이는 많은 사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개설된 사실을 광고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굉장한 자랑거리와 테크놀로지의 시대를 선도해가는 귀감이 된다는 듯 말이다.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공되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선전효과를 노리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신문 혹은 잡지 하나를 통신망에서 모두 읽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느린 속도, 접속료, 그리고 전화세를 생각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 정보 판매

정보의 집중은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서버의 집중으로 부터 비롯된다. 정보를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곳이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를 그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그만큼 용이하며, 정보의 독점과 관리가 유용한 것이다. 예컨대 shareware나 온라인 쇼핑이 가장 발달된 미국의 통신 서비스인 CompuServe 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중의 하나이기에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나 정보의 확산을 바란다면 다른 통신망보다는 이곳에 올리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보는 방대한정도가 있는 곳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정보 소비자의입장에서든 쓸데없이 많은 사이트를 해매는 것보다는 가장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만한 곳으로 집결할 것이고, 이는 물론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하는 곳으로 자신의 손길을 옮기게 된다. 인터넷에서도 가장 많은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CICA는 마찬가지로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끊임없이 찾는 곳이다.

또한 정보의 공유라는 인터넷의 이상과 다르게, 현실은 정보의 사유화와 정보의 상업화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우증권이 증권정보를 인터넷에 내보내는 문제로 인해 (증권정보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와 갈등을 겪은 바 있고, 똑같은 문제가 동경과 미국 증시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동경 증권거래소는 대장성에 인터넷을 통한 기업공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 불허하는 당국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의 정보들이 하나 둘 유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것은 끔찍하기 까지 하다. 또한 방대한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정보를 대행해서 검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들도 생겨나기도 한다. (아래의 7. 참조)

정보의 판매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음란물과 관련되어있는 곳일 것이다. 각종 포르노물과 포르노 사진, 포르노 시, 소설, 도색잡지들이 있는 사이트나 뉴스그룹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 중의 대부분은 그럴싸한 사진을 몇 장 공개한 후, 회원에 가입하면 한 달에 저렴한비용으로(물론 카드로 결제가 된다) 좀더 진한 자료들을 보내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포르노의 주공급원은 사실 BBS인데, 이외에도 다양한(?) 성적인 상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섹스상품을 유료로 유통시키는 곳 외에도 포르노 관련 뉴스그룹이 있으며, 이곳은 뉴스그룹중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 전자 서류결재 EDI : 물류비용의 감소와 유연적 축적

최근에 소프트웨어의 큰 시장을 형성하는 것의 하나로 그룹웨어를 들 수 있다. 그룹웨어는 하나의 회사내에서의 서류의 흐름을 전산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룹웨어는 전자서류결재와 전자우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런데 이를 회사내의 전산망(보통 LAN)과 회사밖의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게 되면, 전자서류결재 뿐만 아니라 지구의 어느 곳에 있는 거래처와도 전자우편으로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물류비용의 엄청난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위에서 지적한대로이윤축적의 요구에 따라 시/공간을 다시 재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유연적 축적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 전자화폐

인터넷 상에서의 결제가 이루어 지는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사이버 캐시 cyber cash, 디지털 캐시 digital cash 등이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화, 팩스, E-mail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거래한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의 보안시스템이 철저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안과 관련된 여러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의 보안은 신문지상에 빈번하게 오르는 해킹과 해커에 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효율적이고 완벽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관리자의 소홀이나 ID, 패스워드를 가진 사용자들의 부주의를 틈타 여러가지 통신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이용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ID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시스템은 여러가지의 방화벽 fire-wall

과 보안체계를 통해 불법적인 침입자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통신망 자체의 버그나 사삼 Sysop 의 사소한 부주의를 이용하려는 스니커 snicker 나 크래커 cracker 의 시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Dan Farmer가 만든 SATAN (Secuturity Administrator Tool for Analyzing Networks) 이라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 무료로 띄워져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SATAN은 그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보듯이 양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SATAN은 원래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네트워크 상의 여러가지 오류나 버그, 그리고 위험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는데, 만일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해킹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네트워크 침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덴 파머는 SATAN을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띄운 점에 대한 회사(Silicon Graphics Inc.)와의 마찰로 인해 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대기업에서 사이버 마켓을 열려고 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가격인하로 인해 영업이 부진한 용산 전자상가 입주점들은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3월말 정도에 공동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상에서주문수령, 카드결제, 배달등의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느린 선로와 느린 속도의 모델이 새로운 고속모델의 시장을 열어주듯이 이러한 상호 연동효과는 인터넷 보안의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인터넷과 각 시스템이 보안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은 역으로보안과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통신판매

세계 최초의 가상 박람회인 '96 인터넷 세계 박람회'가 96년 한해동안 가상공간에서 열리고 있고, 데이콤은 인터넷에 사이버 마켓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파크'로 명명된 서비스는 일종의 온라인 가상 쇼핑몰로 데이콤의 서버에 유통업체들이 상점을 임대하고, 이용자들이 주문, 대금결제 및 배달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것이다.

Dave Taylor 는 인터넷 상의 각종 상점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는 'The INTERNET Mall'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문서는 백화점과 같이 7층으로 나누어서 각 층마다 미디어, 개인 아이덴, 컴퓨터, 의복, 가구, 음식 등의 온라인 상점의 리스트를 안내하고 있다.

InterNex도 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어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인터넷 상의 가상쇼핑몰 등은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는 통신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결제는 신용카드나 온라인 입금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인터넷 서비스 회사

인터넷 서비스 회사중, 미국에 GNN (Global Network Navigator) 이라는정보 검색 서비스 회사가 있는데, 실제 이 회사는 인터넷 최고의 사이트를 발표한 바도 있다. (95's Best of the Net) 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인터넷의 사이트는 예술 및 오락, 컴퓨터, 음식 및 주류, 대화형 사이트, 인터넷 탐험, 학생 및 교사용 교육분야, 문학, 개인 경제 및 금융, 스포츠, 여행등의 10가지 분야를 전문/비전문분야로 구별하여 망라하고 있다.

GNN과 함께 인터넷 문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Hot Wired는 종합 전자 출판회사로 디지털 출판의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핫 와이어드가 상업광고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광고를 실기를 원하는 기업주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천리안에 있는 'JMI (장 미디어 인터랙티브; go info)'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해주는 업체로 "인터넷 상의 어떤 정보라도 찾아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 인터넷의 대안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상업적인 흐름들은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관철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의 상업화가 아직은 맹아적인 형태이고, 또 인터넷의 정신이 이러한 상업화를 멀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터넷에서 자율적으로 생긴 공동체들이 여러가지의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초국적 자본과 NII, GII를 통한 전세계의 지배라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략에 노출되어 있는 인터넷에서 자유로운정보의 유통이라는 이상을 지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에 관해서 얘기해보자.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주요하게는 '반상업주의'와 '해방 공간의 가상 공동체의 생성'으로 집약된다. '반상업주의'의 물결은 광고의 제거와 저작권에 대한 문제제기로 집약되며, 해방 공간의 가상 공동체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전파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를 도모하려 한다.

먼저 반상업주의로는 인터넷상에 불법적으로 게재되는 광고를 먹여치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개한다든가, 불법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광고 게재 행위를 하는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경고한다든가, 보다 직접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들에게 온라인 상에서의 테러를 감행한다든가 하는 등이다. 또한 포르노 관련 사이트에의 접근을 막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서프 와치 Surf Watch 또는 사이버 패트롤이 그것이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에 기반한 좌파적인 사상의 전파, 각종 인권단체등의 선전, 환경, 평화를 위한 단체들의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 진보적인 민간

운동체의 온라인 연대, 진보적인 학술적 성과의 교환, 정보사회주의, 인터넷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모임, glocalization 시대에 국지적인 문제를 진지구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모임들,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모임들,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새로운 불평등을 막기 위한 모임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저작권 등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그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로 비정부기구 NGO 들로, APC CPSR, SING, Lead or Leave 등을 들 수 있겠다. 그중에서 APC의 멤버인 IGC는 Progressive directory 안에 PeaceNet, LaborNet, ConflictNet, EcoNet, WomensNet 등의 network 를 구축하고 있으며, CPSR은정보 기술 전문가들의 공공을 위한 동맹이며, 서울대 정보동아리인 정보연대 SING은 좌파적인 정보운동을 주장하고 있으며, Lead or Leave는 미국의 신세대 청년 단체로 막강한 여론을 주도하며, 인터넷 포럼 액티오네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통신망을 통해 여러가지 sub-community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들의 활동은 온라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진다. 예컨대 통신검열법의 초안이 작성되자, 이를 작성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항의 팩스나 항의 E-mail, 수신자 부담 전화로 항의전화를 하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또 CPSR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993년 4월에 발표된 클리퍼 칩은 국민들에게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개발되었고, 여기에는 수사당국이 필요로 할 경우에 도청할 수 있는 뒷문 back-door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 나가는 길에

다분히 이상주의적으로 디지털시대의 스케치를 그린 네그로폰테도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는 정보보다는 공동체 community 에 있다. "정보고속도로는 미국 의회 도서관의 모든 책에 접근하는 지름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진지구적 사회조직을 만들고있다."는 말은 디지털 시대에 대한 안일한 상상이 아니며, 이것의 실현을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은 진지구적인 해방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자본의 또 다른 안식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인터넷의 자율정화를 위한 노력들과 통신망이라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어느정도 인터넷의 상업화라는 과정과 양립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인터넷이 무한정한 가능성과 시장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야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On-line이든 Off line이든 관계없이 경계를 아우르는 실천적인 활동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전산망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끝으로 통신망과 그것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 시대의 마지막 해커로 불리우는 리차드 스톨만 Richard Stallman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인 FSF과 그들의 GNU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FSF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복사, 수정 등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즉 정보의 공개라는 순수한 목적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정보의 공개 FREE 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무료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스 source 의 공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상용 Unix 보다 더 좋고 상용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Unix 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슬랙웨어 slackware 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Linux이다. 말하자면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운영체제로 잘 알려져 있는 Unix의 공개 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스가 공개되고, 자유로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에 관한 제규정을 뛰어넘는다. 즉 이들은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공적인 재산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FSF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GNU 프로젝트이며, Linux 가 그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아래는 그러한 이념이 최초로 제기된 GNU 선언문의 일부이다³⁹⁾.

"내가 계속해서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컴퓨터를 사운하기 위해,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도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공개 소프트웨어의본체를만들결심했다....소프트웨어를구입한자는우정과준법중하나를선택해야만한다....나는제조업자들에게는 기계와 돈을, 개인들에게는 프로그램과 노동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중략)...(GNU)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드는 노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것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언젠든지 스스로 자유롭게 수정할수 있을 것이다. ... 사용자들은 더이상 프로그램 소스를 가진 프로그래머나 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수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보상받을 만한 일이란 사회적 공헌을 말한다. ... 나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 프로그램 복사를 제한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일한 기본 방침은 아니다. 이런 방침이 보편화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특허제도는 발명가가 그가 발명한 고안품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는것을 장려하고자 설립된 것이다. 그 목적은 발명한 사람을 돕기보다는사회를 돕기

39. 참고문헌 : 김진수 외, (해커선언), 에스컴, 1995 // 사회과학원, (계간 사상), 95년 가을호, 1995 // 인터넷 웹서버 컨설팅, (인터넷 벗기), 두리, 1995 // 전규창 외, (인터넷 ?!), 성안당, 1995 // 다케무라 미쓰히로 외, (인터넷 - 7일간의 여행), 매일경제신문사, 1995 // 마크 포스터, 김성기 역,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1994 // 데이비드 하비, 구동희 외 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5 // Joshua Eddings, 장시환 외 역, (인터넷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남사, 1994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디지털이다 Being Digital), 박영출판사, 1995 // Paul. E. Hoffman, 진세용 역, (Internet 사용자 가이드), 삼각형, 1994 // 전선용, (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전화선을 끊자고 ?), (월간 길), 96년 3호

위한 것이다. ... 모든 지적 소유권은, 그를 허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여겨져서, 사회가 허용할 때만 정당하게 되는 것이다. ... (중략) ...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더이상 단지 생계를 위해 고되게 일할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세계로 가는 한 단계인 것이다. 사람들은 ...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 더이상 프로그래밍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4.6.3. 한국에서의 정보민주주의 (윤정규)

■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화사회'의 낙관적 담론에 근거한 온갖 장밋빛 전망이 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자본과 권력의 효율적인 사회통제를 위한 숨은 의도가 담겨있고 따라서 지금의 정보화 진행과정과 변모는 사회 전체의 민주화와 평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징후에 대한 지적과 정보화사회에 대한 준엄한 이론적 경고는 많은 이들에 의해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하지만 그 주장들이 기술의 진보에 대한 거부를 피력하거나 구체적 대안없이 피상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새로이 조성되기 시작한 '뉴미디어(new-media) 공간'에서의 비판적인 수용 움직임이나 반시뮬레이션론적인 저항적 흐름은 주변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쉽게 묻혀 버리고 만다.

필자는 본 글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정보화혁명의 매체로 대두되고 있는 PC통신을 대상으로 지금의 이용실태에 대해 통신공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보적(이 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두리문실하지만 일반적 의미를 따르기로 한다)이고 비판적인 움직임들의 여러 양상들이 '매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진보적 PC통신운동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검열, 정보민주주의 등의 '소통'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그렇다면 논의의 남위를 PC통신이라는 정보화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국한시켜 그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문화적·정치경제적 의미를 연구과제로 경정하게 된 동기는, 약간이라도 '진보적'인 이들은 물줄기가 설계도면에 정해진 진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즉 미국의 Teledemocracy론자들의 민주적·평등적·직접 민주주의적 선거혁명의 가능화를 통한 정치영역의 확대 주장, two-way 방식에 기반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등의 마스타플랜은 그야말로 '백일몽'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대신 그들의 예리한 시야에 포착되는 것은 저급한 토론문화와 대화수준, 탈정치화와 소비대중문화에 마비되고 중독된 사용자층 등 현실에서의 자본주의 문화의 타락한 양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모습뿐이다. 결국 모두들 "거기에는 비전이 없어 차라리 손을 떼는 게 나은 것이야"라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생활과 문화'를 넘겨주고 만다.

일반적으로 진보적 통신운동을 바라보는 데 있어 '진보운동'에 초점을 두면 PC통신을 선전선동 및 그밖의 여러 조직활동에 필요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주어지고, '통신운동'에 초점을 두면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체가 형성하는 전혀 새로운 공간속에서의 진보적 흐름이라는 의미가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PC통신이라는 매체의 발달에 대해 진보진영이 지금까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왔는지 하는 것과 통신공간 내에서의 새로운 흐름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어 가아가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 보고자 한다. 본고의 상당부분은 PC통신의 게시판이나 E-mail에서 (허락없이) 발췌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지 않은 것은 표절을 감추기 위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자칫하면 글 전체가 자주번호 투성이로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사실 본인의 역할이란 기존 글들을 조합하고 정리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정도였지만, A4 용지로 거의 100장이 넘는 분량의 글들을 숙독하고 그 내용들을 본인의 관점에 따라 해석해 일정한 단계와 방향으로 Chapter를 나누고 논의를 전개시켜 나간 서투른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입장이 다른 여러 단체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아마도 처음으로 정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표절의 죄의식'을 약간이나마 씻을 수 있었음을 밝힌다.

■ PC통신의 발전적 가능성 - '일상정치'의 실현!

지배문화는 '기록되어 진 것'의 권위에 기초하여 지배력을 확보하는 한편 문자언어로부터 소외된 피지배계급은 여전히 음성언어가 소통되는 일상적 공간에서 저항문화의 싹을 발견한다. 지배계급에 의한 정보접근의 특권적 독점이 해제됨으로써 지배문화가 보다 광범위한 대중 속에서 재생산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다.

대중소통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이는 정보 자체가 상품이 됨으로써 정보의 수용자가 정보의 구매를 선택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공정성에 기반해, 제공자와 수용자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장을 통한 여론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구성해 현실을 오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소통이 정보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하여 정보 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했다면, PC통신은 정보수용자

스스로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과정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통신을 특별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 공간이 피드백feedback과 같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쌍방향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일반 대중이 정보의 수용뿐 아니라 제공까지 하게 됨에 따라, 즉 two-way 방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수의 파워엘리트들의 손에 의해서만 자행되던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대중들까지 확대되었고, 그 과정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친근하게 다가옴으로써 '일상정치'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가령 PC통신을 쓰는 사람들은 시사적인 주제에 대해 이미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면서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던 자신의 견해를 간추려 보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차분하게 글로 정리해 내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무시해 버리기도 하다가 때로는 의심나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거나 공격적으로 반박하기도 하고, 또 전면적으로 공감하거나 모자라는 점을 세심하게 보완해 주기도 하는 다양한 반응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별 자신이 없던 다른 착안점에 따뜻하게 격려받기도 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삼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기도 한다. 투표라는 제한된 틀을 통해서밖에 표현할 수 없던 정치적 견해까지도 일상적으로 토론하면서 변화시켜 나가기도 함으로써 정치가 비로소 일상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일상정치'의 중요성은 나와는 관계없이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지던 여론의 실체가 내가 쓰는 게시물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에서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고작 소극적 불만밖엔 가질수 없던, 그리고 그것조차 말할 공간이 없었던 개인들이 더욱 명료하고 구체적인 견해를 정리하여 토론과정에서 발전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시민'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

정리하면 PC통신은 단순히 정보유통을 고도화함으로써 통신의 효율과 편의를 증대하는 의사소통의 매개로서만이 아니라 쌍방향통신이란 새로운 차원의 의사소통 기제를 통해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나아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그 진정한 내용을 구현하는 매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

■ PC통신 이용 실태에 있어서의 한계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정보화사회의 전망을 과장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PC통신은 지금까지 있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그 무엇이 결코 아니며,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정보전달 및 축적을 위한 다양한 매체들의 연장선에서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우선은 PC통신의 이용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공권력의 개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이텔, 천리안 등 상업적 BBS가 이익을 남겨 되자 유수한 재벌들이 PC통신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자율적인 운영보다는 외부적인 간섭과 감시가 횡행하게 되었고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이 강조되게 된다.

반면 이를 저지하는 저항적 담론의 생산기지로 역할해야 할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스스로의 성격을 인적조적으로만 한정시키고 있다. 정부나 기업,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화된 규모로 정보를 구축 활용하면서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과 맞서 싸우는 시민운동체들은 나라의 한계, 지역의 한계,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보화가 가져오는 많은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뒤진 조직이 되고 있다. 아직도 타자기를 대신하는 도구로 PC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시민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PC통신의 실제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정치적 여론의 추이다. 소위 증산층이라는 소부르주아 계급의 탈정치화 경향은 소통문화를 저급하게 타락시킴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의 무의식적 유입을 용이하게 만든다.

게다가 한국 PC통신의 이용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통신 6개월 이내의 초보자들이다. 이들은 통신 자체를 정보소통의 본격적인 의미로서보다는 하나의 취미와 오락의 일종으로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며 게다가 매체 자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하다. 따라서 건강한 생산문화에 기반한 정서를 지닌 이용자들은 소외되어 버리고 PC통신은 저급한 토크문화의 온상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이는 저급한 토크문화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다수의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유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통신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강력하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메카니즘이란 점을 뒷받침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통신이 기본적으로 '말놀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론의 성실성 역시 하나의 환상으로 토론 내용의 진지함보다는 표현 형식의 화려함이나 감각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주로 큰 반응을 얻고 권위를 얻고 있다. 그리고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독단이 횡행하고 언어폭력에 가까운 알파한 대중선동이 여론으로 둔갑되기도 하며, 따라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책임있는 의사표현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면 시민사회나 통신민주주의는 요원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 PC통신에서는 게시판 이용이 지나치리만큼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역으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빈약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국의 통신문화는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낙서문화'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는 정보의 축적을 통한 효율적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 진보적 통신운동의 필요성

분명 지금의 PC통신 이용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PC통신은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분리를 해체하는 매체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한번더 주지해보면 이는 일상적인 토론을 통한 합의에 의해 권력이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새로운 권력의 창출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는 태에서 PC통신의 일상정치 또는 대중정치를 통한 정치적 진보라는 맥락이 발견된다.

하지만 개별 이용자들의 수동적인 이용에 의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없다. 비판적 수용태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생산에의 적극적 참여와 이를 조직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결국 '조직적 문제제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합리화와 일상화'를 통해서만, 그리고 개인들의 '의지적인'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문화적 관점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바탕으로 한 문제의식을 설정해 구체화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PC통신을 바라본다면 단지 획기적으로 진보된 통신기술이 만들어낸 도구적 시스템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이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계급간의 역학관계만이 PC통신의 정치적 맥락을 이루는 유일한 또는 적어도 가장 유력한 관건이다. 따라서 PC통신을 통해, 또는 PC통신 내에서 진보적인 정치역량이 조직될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PC통신의 계급적 맥락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술의 독점과 이를 통한 정보의 독점에 대항한다는 측면이 중점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계급적 적대관계에 못지않게 문화적 영역에서도 필연적으로 지배/저항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형성된다. 지배문화로서의 대중문화에 대항하는 저항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언제나 대중소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독자적 소통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 PC통신의 '사이버 공간'에서 재생산되는 이른바 '사이버 문화'가 그 자신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저항문화로서 의식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위치지워 나갈 수 있다면 이미 PC통신 이용자층이 광범하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그 잠재적 폭발력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이용문화의 모색과 이용자운리를 바탕으로 운영주체들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이용자운동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상의 필요성에 의해 진보적 통신운동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PC통신의 쌍방향 정보교환을 통해 새로운 시민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 일상정치적 가능성 - PC통신 매체의 정보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정보 제공자인 이용자들 사이에 정보의 유통 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와 이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 없다면 통신 자체는 아무런 긍정적인 작용을 남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PC통신의 이용자들이 이 매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최대한 저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보적 정치문화의 기반이 되는 정치과정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체의 쌍방향성이라는 특징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일상적 정치공간으로서 PC통신을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려는 시도를 기술임으로써만 가능해지며, 또한 이용자 한 사람마다 이 매체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의식을 자율적으로 키워가는 노력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노력이 최근 몇년간 어떤 발전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커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진보적 통신운동의 현황 - 문제의식의 성장에 따라 분류

- 통신외적 공간에 주된 기반을 둔 통신운동 (제 1세대)

94년도 각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각 후보 진영들에서는 대형 BBS에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토론방을 만드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얼마후 현충연에서도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여러 홍보활동을 펼쳤으나, 운동권을 '빨갱이' 취급하는 '애국적 우익인사'들과의 소모적인 말싸움에 지쳐 중단하고 말았는데, 이는 적어도 통신공간을 일방적인 선전선동의 공간으로만 활용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쌍방향교황이 주된 특성이 PC통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인 대중에게 유인물을 살포하듯이 PC통신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공간은 그야말로 '공간'이란 말이 어울리듯 이용자들이 서로의 의견교환을 통해 만들어가는 매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선전선동이 되려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feedback이 필요한데 이러한 통로를 열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단방향적인 작업은 불안정하며 그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PC통신이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진 지역조직들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조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활용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대부분 CUG(폐쇄이용자집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진보정당추진위가 하이텔에서 개설한 [진보광장]이 이런 경우이고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폐쇄성을 지니고 있지만 종합적인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서 회원간의 의사소통이나 전자도서관 구축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하이텔 내의 한국통신노조(KTTU)는 의사소통의 창구로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데 전국지부에 메시지를 남기고 신속한 대처와 각 지부와의 의사소통, 조직관리등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며 중앙본부의 메시지는 5천회 이상의 조회수까지 기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은 아무래도 본 활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PC통신을 다만 수단으로서만 간주하기 때문인데, 통신공간은 현재로서는 이들 조직간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통신공간을 독립된 운동영역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활동하는 통신운동(제2세대)

① 이용자자치운동

조직적인 활용과는 별도로 통신공간 내에 저항적인 흐름이 있음을 감지한 일군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즉자적인 감정의 배설 이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기위안에 함몰되어 있는 진보적 역량 - PLAZA란을 생각해보라! 별 의미없는 소모전만을 양산시키는 그 많은 '과격'한 주장들이란! - 들을

PC통신을 매개로 조직화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을 끝간으로 해 PC통신의 광범위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일상정치적 가능성을 발견해보려는 실험적인 모색이 시도되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진보적인 사고를 지닌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결집시킨 최초의 시도는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이하 [바통신])'이었다. 바통신의 창립선언문에는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은 정보통신속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속에서 하나의 자주적 모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이용자모임으로 출발한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통신운동이 지니는 특징과 한계가 잘 나타나는데, 이미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용자들이 그 주인을 향해 서로의 힘을 모아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 기본적인 지향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주의깊게 생각해보자. '이용자자치운동'. 전혀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cyber-space)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는 운동에 주어 진 또 하나의 과제이다. 무조건 사이버공간을 선전선동의 공간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만도 아니다. 그속에는 하나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을 볼 때 통신공동체를 지배하는 물은 사업자 즉 자본의 논리이다. 통신공동체가 상업화에 몰려도, 기본적인 권리인 통신의 자유가 침해당해도 이용자는 단지 돈을 내는 고객일 뿐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수용자운동처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새로운 운동이 필요한 상황임을 주목한 운동주체들은 상업적 이익에만 치우친 서비스들에 대한 반대와 부당한 계시를 삭제나 삭제권고에 대해 항의하며 PC통신내의 진보적 흐름을 모아 나가기 시작했다. 이어 천리안에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 '사회비평동호회(회평터)'와 나무누리의 '찬우물' 등이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 통신문화의 특수한 환경에 주목할 필요를 느낀다.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갖추어지기도 전에 보급된 PC통신이라는 것이 상업적인 몇몇 대형 BBS들을 통해 소개되면서 외국과는 달리 통신이용자들을 '초기화면'에 길들게 만들어 버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운동'이라는 특이한 형태가 대안적 형태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용자운동에는 분명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센터(center)가 없어서 초기화면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인터넷에서의 통신운동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쩌면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통신운동을 이루기에는 애초부터 너무 큰 장벽과 맞닥뜨려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② 정보에의 접근의 공평 보장 요구 (정보사회주의)

한편 94년 이후에 생겨난 국제적 통신망 이용의 국내 확대에 발맞추어통신운동의 지평도 그 영역을 한층 확장하게 된다. 특히 센터가 없는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대중화로 국내에서도 대학의 학생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정보사회주의'의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통신운동의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의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핵심적 공간인 통신공간에서의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통신은 새로운 억압적 기제에 다름아닌 착취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사회주의' 저항 통신운동체인 [SING]의 입장과 지향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이들은 우선 기존의 '좌파'들이 엘빈 토플러로 대표되는 후기산업사회론자들의 정보사회론에 대해서 일면적으로는 기술발전에 대한 긍정성을 표피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단지 '기술결정론'이란 딱지만을 붙인 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무시해버리려는 방어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현실적인 변화에서 이행의 동력과 가능성을 포착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보영역을 '생산력'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생산관계'적으로 접근하여, 후기산업 사회론자들의 미래 담론이 주는 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현실의 변화로부터는 긍정성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자치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PC통신운동들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일정한 한계가 분명히 놓여져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사회가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순환메카니즘의 자본주의적인 생산방식의 틀, 균열의 진원지라는 파악으로 노동자 중심의 뚜렷한 계급관계에 주목을 놓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한다. 즉 정보를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핵심적 대립점으로 파악하고 정보의 상품화의 반대속에 탈자본운동으로서 정보운동을 사고하며 실질적인 정보생산자들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그들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활동을 매우 가치있게 바라보고 준거로 삼고 있는데, 이 단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복사, 수정, 그리고 재분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상용화된 MS사의 UNIX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는 '리눅스' 체제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GNU 프로그램'을 통한 자본의 이윤증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목표로 하고 있다. FSF는 '자유로운(free)' 정보의 이용을 말하는데 우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웃에게 복사해줄 자유이고 두번째는 프로그램의 소스(source)를 보고 개선시키고 고칠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의 저작권 법률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불법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Copyright) 제도가 정보의 자유화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임을 발견하고,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체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Copyleft란 개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SING에서도 이같은 FSF의 활동이 아직은 정보영역에서의 합의된 규칙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의 상품화'를 전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정보의 공유를 부르짖고 있는 대안적인 세력이라고 인정해 정당한 사회주의 운동의 한 분야로 파악하고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③ 검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음란게시물이나 통신예절에 대한 문제가 PC통신에서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BBS의 주인들'에 의해 통제를 받는 현실이기에 그 문제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즉 쉽게 검열을 받게 되며 심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거나 아이디를 박탈당해 통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주인'의 정치·사회적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사용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93년말과 94년초에 있었던 현철동 사삼 김형렬씨 구속이나 [공산당선언], [김주석 사망에 대한 견해] 등을 올린 회화터 회원들의 입건 사실은 게시물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이고, [창녀론]등을 쓴 김완섭씨의 일련의 음란물은 통신상 예절을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아이디가 박탈된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통신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검열을 통해서가 아니라 통신상에서 '자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야 하는 통신공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새로운 생활공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불온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1995.15 공포시행)이 통과되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여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異論이 없다면 위 규정들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검열이란 형태를 띤 공권력의 개입의 구체적 사례로 지난 여름 발생했던 '한국통신노조방의 일방적 폐쇄와 관련 글 삭제'를 중심으로 무원칙적인 검열 기준과 자의적인 적용 실태를 살펴보겠다. 한통노조가 이에 대해 하이텔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PC통신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법원소송에서, 한국PC통신은 95년 6월경부터 하이텔내의 폐쇄이용자그룹(CUG)인 '한국통신노조와 함께(KTTU)'에 실린 글을 범죄적 내용에 관련이 있거나 타인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는 일방적으로 CUG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노조와 조합원들이 전용게시판의 폐쇄 이후 일반게시판에 자신들의 견해를 나타내는 글을 게시하자 이 글마저도 임의로 삭제하였으며 나아가 일반이용자들이 게시하는 한통노조 관련 글도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삭제하였다고 한다. 현실이 이렇듯 자유로운 정보와 의견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운영자+이용자'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개인적이든 공공연하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것은 철폐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소통을 방해하고 교란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는 결국 정보의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아직 법률로 정비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민적 기본권으로 주목할만한 '평등한 정보접근권(access권)' 또는 '정보의 평등한 향유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모든 게시물이 잠재적으로 합법적 검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무차별적인 검열의 대상이라고 보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었거나 다른 차원에서 '위법(?)'의 혐의를 받는 게시물을 표적으로 삼는 정도가 고작일 것이므로, 문제의 초점은 세삼스레 PC통신에 심의제도를 도입했다는 '정보사업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해 국보법을 비롯한 실정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유독 PC통신 내에서의 이적표현물, 음란물, 유언비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만약 심의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작가 또는 제작자가 사후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PC통신으로 특정될 문제가 아닌 것이기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보법, 전혀 실효성 없이 정세호도용으로 '본때보이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음란에 관한 법규정 따위를 어떻게 바로잡아나갈 것인가라는 보다 핵심적인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가상공간에서의 윤리와 검열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제기는 '정부의 검열은 타당한가'를 둘러싼 공방보다는 '과연 정부의 검열은 가능한가'라는 문제 전환에서 찾아야 하고 (초당 수천개씩 자료가 올라오는 PC통신과 인터넷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불량정보들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겠는가, 문제 해결은 현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의 윤리규범에 대한 이용자들 스스로의 토론과 합의의 통한 자정운동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정부 역시 '사이버 캡'을 배치하기 보다는 이같은 운동을 지원, 육성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통신운동의 방향성 모색 - '연계망' 구성을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PC통신 내에서의 검열 문제는 어쩌면 통신공간 내의몇몇 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일 것이다. 통신공간 역시 통신 외부공간으로부터의 강력한 영향력하에 놓여져 있고 따라서 내부적인 문제로 언뜻 보일지라도 사회현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성과와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곳곳에 포진해 있던 통신운동체들은 일차적으로 상호간의 연대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고민을 통해 통신공간 내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다. 국내 상업 BBS들은 자본의 광고에 의해 마치 통신공간이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통신인구를 포섭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철동, 회화터, 바통모 등의 상업 BBS내의 동호회는 보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다수에게 진보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를 확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상업 BBS로부터 받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 가령 사용자 문제뿐 아니라 센터로부터의 글 삭제 요구와 직접 삭제조치 있다. - 따라서 비상업 진보적 BBS를 만들어야 하며 그속에 전체 진보적 가치를 지닌 정보가 저장되고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쉽게 찾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전체 운동 흐름의 연대와 통합을 도모하자는 문제의식이 빠르게 된 것이다.

이에 본래는 소규모 사설 전자게시판으로 시작했던 [참새상(trunet)]에 통신운동을 고민하는 각 단체들이 속속 참여하면서 전국적 통신망으로 자리잡게 된다. [참새상]은 어쩌면 민간 차원의 최초의 네트워크 구축으로평가할 수 있는데, 시민네트워크·진보적 통신·이용자자치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의 의사소통의 공간을 지양하고 진보적 가치의 저장창고(D-Base) 기능 수행을 통해 광의의 소통 공간을 추진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참새상 내에 '정보연대'라는 통신운동계의 연대조직을 형성해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여러 운동단체들이 연대활동을 벌이는 것이 외국의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상용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 잠재력은 훨씬 크며 운동에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통신간의 연대 뿐 아니라 통신내부와 외부사회조직간의 연대도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마땅하다. 통신 또한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그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연대활동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국내적으로는 통신 내외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진보적 사회단체와의 연결망을 확보하여 공동작업을 추진하고 전체 통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사회단체들을 확보해 현재 산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운동들을 묶어내고 필요시 연대를 주선 혹은 연대에 동참하는 운동이 필요하 하겠다. 예를 들면 '진보청년통신모임(진청이네)'가 노동운동 단체들과 지난 지자체 시기에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통신게시판을 활용해 후보를 소개하고 선거를 감시하고 사후에 지자체선거 평가를 함께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나라 밖으로는 국제적 네트워크와의 결속을 추진해야 한다. 가령 얼마전 열린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전개했던 NGO의 힘의 배후에는 국제연대를 만들어나가는 시민운동과 APC(Association of Progressive Communication)이란 전지구적인 인터넷 조직이 있었음을 주시한다면 현재 고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내의 단체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조직들의 발전된 노하우를 습득하고 상호 교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매체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사용능력이 다소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세계적 연대를 촉진하는 매개로서의 통신운동계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발전된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도 통제와 메카니즘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통제 불가능성'의 문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지적소유권, 정보통신법률 등의 형태로 통제와 억압이 가려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양이 거의 무한대에 달한다는 사실과 내부에서의 지배세력에 반하는 독자적 네트워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쩌면 네트워크와 통신영역이 본래부터 지닌 부인할 수 없는 발전적 가능성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이뤄져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세계에 걸친 연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작업이다. 특히 그것이 진보적 운동의 일국적 한계를 벗어나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이미 global한 문제가 되어 버린 자본의 흐름과 개입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맺으며

이상으로 필자는 진보적 통신운동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모색을 이설뜨게나마 해 보았다. 통신운동이란 결국 통신을 하나의 목적으로 상정한 것으로서 통신에 대한 자본의 침투와 정보의 독점과 통제에 대한 저항, 통신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권리, 이용자 내부의 통신의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한 운동 등 다양한 의미를 포괄한다.

본고를 구성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통신운동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깊은 고민과 성찰에서 도출된것들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풍부하고 우수한 자료를 가지고도 이 정도밖에 쓰지 못한, 즉 깊이있는 전망과 방향을 노정하지 못하고 난삽한 글 짜집기로 일관하고 만 필자의 안일함과 미성숙을 자책해 본다.

4.6.4. 가상, 혹은 익명적 정체성과 새로운 부족의 형성 (정준희)

■ 서론

얼마전부터 조선일보에서는 "어린이에게 인터넷을(Internet for kids)!"이란 기치를 통해 어린이 교육에 있어 바야흐로 인터넷이 필수적인 국면에들어섰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가뜰이나 피아노 레슨이다, 태권도다,영어회화다 해서 한시도 쉴틈없는 '조기교육'의 열풍 속에 빠져있는 이 땅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극성스런 부모들에게 또 하나의 시대적 과업이 맡겨진 것이다. 이제 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소중한 아이들을위해 컴퓨터와

모델과 각종의 장비들은 물론 그들의 수상한(?) 행동까지 감시할 자신들 스스로의 능력을 위해 골머리를 싸안게 될 것인가 자못 근심스럽기 그지없다. 탁월한 시대적 감각을 갖고 있는 조선일보의 여론선도 능력은 이제 그 대상을 환경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했다. 어차피 그들은 패션성 주제를 찾아 떠도는 부나비와 같다고 짐짓 무시해버려도 우리들 머리

위를 무겁게 감돌고 있는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먹구름이 주는 상당한 무게조차 무시하긴 어렵다. 컴퓨터라는 괴물은 이미 우리의 몸을 저만치부터 먹어들어오기 시작한지 오래이고, 이제 PC 통신을 넘어 이른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바로 코 앞까지 들이닥쳐 있는 상황이다. 세종대왕은 문명을 없앴고 **는 컴맹을 없앴다는 한 컴퓨터 회사의 구호가 상당한 설득력으로, 그리고 더욱 상당한 무언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 글은 이렇게 하나의 지배적인 현실(dominant reality)로 구축되어 가고 있음이 분명한(물론 그것이 정말로 '지배적'이냐에 관해서는 또 다른 수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PC 통신에 연관된 커뮤니케이션의 사회 현실을 직관적인 수준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차후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 노트를 구성해 보려 한다. 따라서, 이 글이 분명한 연구문제 및 일정한 가설을 가지고 진행되는 연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연구될 수 있는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가면서 연구에 필요한 여타의 논의들에 연결 지점들을 설정하는 작업이 주가 될 것이고, 그 성과를 학부생들과 기초적인 수준에서 공유하는 것이 중심임이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먼저, 현재 '인터넷'이란 용어를 통해 우리를 압도해 오고 있는 제반의 PC 통신, 즉,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의 기본적인 형태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이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영역들 및 그와 연관된 현상들 중에서 앞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한 논의를 추출해 낼 것이다. 이 글은 그 주된 영역을 새로운 형식의 기술적 하부구조(technological infra-structure)와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창출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놓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영역에서 주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한 간략한 논의와 분석을 더하고, 차후에 진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서술해보도록 할 것이다.

- PC 통신과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PC 통신과 연관되어 다가오는 것들은, 각종의 정보(information), 전자대화(chatting), 그리고 전자우편(E-mail) 등이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PC 통신사의 메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종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이용한다. 이들 정보들은 대체로 무료 제공되는 것들인데, 이용자들 스스로 개발하거나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PC 통신 사용의 일정한 궤도에 오른 이용자들은 전자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장시간의 온라인(on-line)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때때로 이러한 채팅은 중독현상을 일으켜 사회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자우편 역시 초보자 수준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다. 간단한 경조사 편지에서부터 상당량의 문서파일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이 전자우편을 통해 주고 받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에 있어 그 효용이 크다.

이들 대표적인 세가지 서비스는 PC 통신을 통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세가지 양태와도 연결된다.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와 함께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여타 경우와는 달리 피드백이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회적이고 불특정한 특징을 띠게 된다. 전자대화는 아주 다중적(multiple)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창출한다. 그것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목적의식적인 토론에서부터 무목적적인 교류에 이르기까지 아주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창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자우편의 경우는 한 커뮤니케이터가 다수의 커뮤니케이터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일대일로 편지나 자료를 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우편을 시간적으로 축약시켜 놓은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보면 무난할 듯하다.

이밖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현재 이용되고 있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양태는 위에 서술한 바들 과 같다. 이러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근대의 일반적인 지표인 '시공간 압축' 및 '장소귀속 탈피' 현상(Giddens, 1990)을 극대화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Walther(1992)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적이거나 비동시적인 전자우편, 컴퓨터 토론 등으로 텍스트 메시지가송신자의 컴퓨터로부터 수신자의 컴퓨터로 중계되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로서 컴퓨터를 들면서 대체로 전자우편과 전자대화(및 토론)에 집중하고 있는 정의라 하겠다.

이렇듯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과거의 텔리커뮤니케이션 양식들과 구별하여 살펴보는 까닭은 당연히 이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새로운 사회 현상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추동력에 있어 기존의것들에 비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두드러짐'의 주요한 측면은 무엇일까? 이 글은 그것을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으로 잡는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흔히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로서 정의되며, 그것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적 구조는 가상사회(cyber society)라 불려지고 있다. 이제 이 가상의 공간(cyberspace)에 주목해 보도록 하자.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동체

Jones(1995, 김정희, 1996에서 재인용)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초래되는 새로운 형식의 공동체, 새로운 사회구조를 '가상사회(cyber society)'라고 부르면서, 가상사회에서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먼 거리를 가로질러 즉각적으로 정보와 사상을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또한 Baym(1995, 김정희,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이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내에서 외부 세계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그들은 익명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규범,

그 집단에 특수한 표현 형식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상에서의 대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공동체는 여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자대화와 PC 통신 상의 동호회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다. 전자대화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아주 다중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 처음 보는 사람에서부터 오로지 PC 통신을 통해서만 사귀는 사람 및 이미 다른 관계를 통해 알고 있었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대체로 처음 PC 통신을 사용하게 된 사람들은 어느정도 PC 통신에 익숙해져감에 따라(혹은 아예 처음부터) 전자대화에서 얻는 재미가 상당하다고들 말한다. 그들 서로는 길가다가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에(전자토론 같은 경우는 때로 시간적 차이를 두고) 거리(및 그밖의 인구학)상의 차이를 뛰어 넘어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에 매료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 동호회의 경우는 보다 구래의 공동체에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수준의 '동질성(학교, 지역, 연령, 성별, 취미, 특기, 관심영역, 직업등등)'에 근거하여 형성되어 있는 각종의 동호회는 그들만의 교류를 넘어서서 하나의 이익집단 내지 대(對)사회 압력집단화하는 현상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공동체의 일반적 구성요건, 예를 들어 그 공동체에 고유한 정체성의 기반, 규범, 상호교류, 외부에 대한 배타성과 개방성 등을 비교적 분명하고 가시적인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라 할 만하다.

이들 공동체는 때때로 온라인(on-line)상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off-line)상의 관계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양상은 아니라고 간주할 때, 기존의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가 주는 사회적 함의는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성되는 공동체가 기존의 공동체 및 여러 사회관계들을 뛰어 넘어 지배적인 관계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오늘날, 이들 공동체로 구조화된 가상사회가 현실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것은 사회현상의 연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까닭이다. 현재 '민족국가의 위기'로 대표되는 사회집단들의 변화는 기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구획들이 유명무실해지고 새로운 구획의 형성이 미진한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혹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예감하게 하고 있다. 이 글은, 여기서 지적될 가상사회와 가상의 공동체가 이러한 전지구적인 문제들과 궤를 달리하지 않는 문제라는 판단을 기본으로 한다. 즉, 현재의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은 이후의 탈근대적 혹은 후기 근대적 사회 변동과 밀접하게 맞물린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이미 그러한 징후가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 본론

새로운 공동체라는 지적을 이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의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기존의 공동체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후, 그 새로운 공동체를 가능케 위한 조건을 탐색해 보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 글은 이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부족(tribe)'이라 명명하고, 근대적 민족국가 단위의 해체라는 과정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부족화(部族化)' 현상이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미칠 영향과 그 함의를 추론해 볼 것이다.

- 기존의 공동체와 새로운 공동체

본래 근대 이전의 공동체(community)는 '장소 귀속'에 근거한 공동체였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굴리적 공간 속에서 1차적 관계에 근거한 자급자족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이들 공동체의 일상적 기능이자 삶의 모습이었다. 근대 자본주의는 이러한 1차적 공동체를 급속하게 파괴시키고 대신 민족국가(National State)를 탄생시켰다. 이 민족국가는 일종의 '상상적 공동체'로서, 일정한 영토에 근거하여 그것에 귀속된 국민이 배타적 주권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국이 내에서 대체로 완결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해 가는 단위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물론 이 민족국가는 역시 일정한 '장소 귀속'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자립적 경제(autarchy)를 지향한다. 그러나 이들 민족국가는 내부의 다양한 1차적 관계들의 급속한 붕괴와 산업사회적 윤리규범에 기반한 2차적 관계들의 신속한 부상으로 채워져 갔다. 따라서 시공간의 단일 표준화와 계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시간이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시공간이 압축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가 생활의 근간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이 근대적 공동체는 과거의 공동체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막대한 양의 교류가 일상화된 시공간이다. 그리하여 2차적이고 익명적인 관계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길거리에 가득찬 '낯선' 사람들과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게 되었다. 여기서 근대적 공동체는 배타적 민족국가의 경제 내에서 대규모 공장단위와 도시 단위에 근거한 직업적 분할, 계급적공간 분할을 경험하게 만든다(Harvey, 1989). 도시와 작업장이라는 생활적 경제공간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무차별적 대중(mass)들은 일단 계급(class)이라는 거대한 단위로 구분되고, 다시 민족국가라는 틀로 크게 통합된다.

이와 달리 새로운 공동체는 한 축으로는 2차적 관계의 극단화를, 또 한축으로는 과거의 부족적 공동체의 부활을 의미한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공동체는 여러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수준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무엇보다도 이들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네티즌(netizen; network + citizen)'이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존재하는 시민이라는 뜻인 이 네티즌은 크게 보아서, 민족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모든 경계와 구획을 뛰어 넘어 존재하는 가상의 시민들이며 바로 이들이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다시 종으로는 민족국가, 지역으로 하위 디렉토리를 형성하면서 존재하고 있으며, 횡으로는 성별, 연령, 취미, 직업, 관심사 등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통성들에 근거하여 크고 작은 집단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집단들 자체는 새로운 가상공간이자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이라는 인터넷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라고 불리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기존의 각종 경계를 넘어 새로운 규범과 가치들, 그리고 정체성들을 창출하면서 자유로이 교류하고 공존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까닭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 현재의 민족국가 해체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동시에 그 민족국가의 해체 자체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추진해가고 있는 주된 동인 혹은 결과물인 탓이다. (인터넷) 전자대화에서 드러나 듯이 언어, 민족국가적 배경, 계급적 환경, 직업, 연령 등의 1·2차적 관계들이 서로 매우 다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창출되어 있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고 사라지는 모습은 2차적 관계의 극단에서 형성되는 익명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웅변한다. 또한, 얼마전 한국통신의 '01410 유료화' 계획이 하이텔 등의 PC 통신 이용자들의 조직화와 실력 행사를 통해 저지된 사례나, 한 러시아의 인권 운동가의 구속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즉각적으로 팩스를 통해 항의한 바 있었던 유명한 일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공동체는 전세계 전 사회의 구석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이들 공동체는 다양한 소규모 집단들이 종종으로 형성한 네트워크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 마치 소규모 부족들의 거대한 연합과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2차적 관계의 극단화와 과거 부족적 공동체의 부활이라는 사뭇상호모순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그 두가지 요소는 이 공동체의 불안한 존재를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이 공동체의 강력한 유연성을 반영하는 것일까?

- 새로운 공동체의 조건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해지는 조건을 탐색하는 것은 과거의 공동체들과 물질 토대의 수준에서부터 구분되는 양상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글은 그 조건을 크게 기술적 조건과 인적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한다.

① 기술적 조건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모든 정보(문자, 그래픽, 음성)를 디지털화하여 통합시켰고, 이것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무선·유선의 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현재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스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을 갖고 있다. 이 중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음성, 문자, 그래픽 언어, 그리고 상황적 조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등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메스커뮤니케이션으로 갈수록 이들 중 어느 한 두 요소들의 탈락이 일어나게 된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는, 즉 주된 미디어로 컴퓨터가 기능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컴퓨터라는 기술적 요소의 중요성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컴퓨터 관련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따라 이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컴퓨터 기술 발달 수준은 아직 그래픽과 문자가 낮은 수준에서 결합된 정도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향후에는 음성과 화상이 높은 수준으로 결합된 형태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 자체의 발달 속도와 현재 깔려 있는 통신망의 수준이 당분간은 현재의 모습에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충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때, 이는 새로운 공동체의 운명이 컴퓨터 네트워크이라는 기술적 하부구조에 상당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함의한다. 또한, 이와 연동된 사회변화는 과거의 근대 자본주의화가 그러했듯 구래의 중심부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조건의 특성과 그 중요성은 새로운 공동체가 지닌 불투명한 미래를 예상케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하여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수에 의한 조작과 통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소수는 크게 보아 구래의 중심부에 근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한, 이 가상공간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물질 소멸, (예를 들면 정전이나 천재지변 등에 의한 네트워크의 정지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 요인들에 의한 불안감, 온라인과 오프라인, 혹은 실체와 가상(reality and virtuality)사이의 간극 등에 의해 현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웃지 못할 예로, PC 통신을 통해 사귀 남녀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같은 것들이 가상공간에 항존하는 불안정성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인적 조건

새로운 공동체의 기술적 조건의 중요성은 인적 조건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요구하는 기술적 하부구조는 그것에 걸맞은 인적 능력을 기본적으로 한계짓는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또 그것을 적정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공동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봉쇄된다는 것이다. 컴퓨터 네트워크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며, 혹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걸맞은 운용 능력을 적정 수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기능한다는 것은 아예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곧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배타적 시민권을 예상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적 소유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정치제도는 일정한 노동과 그에 따르는 대가, 그리고 민족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시민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 사실 자본주의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복지 제도들을 그 체제에 대한 생산 혹은 기여없이 수혜하는 행위는 그들의 시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제약을 수반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이동 시민'의 존재를 가져오며, 그다지 동일하거나 평등하지만은 않은 자원과 권리의 배분 메커니즘의 원천을 이룬다.

물론, 민족국가의 공적 서비스에 의해 이 부분이 충당될 수도 있다. 즉, 공적 접근이 가능한 매체의 설치,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들의 기초교육 등이 공적 서비스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적 서비스조차 해당 민족국가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며,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의 내용과 그 비용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 또한 짙다. 더욱이, 전 세계적인 탈규제의 바람은 기존의 공적 서비스를 엄청난 규모로 감축시켜 가고 있으며, 모든 시설물의 이용이 소위 'pay per' 원칙에 의해 상업적으로 결정되는 추세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 새로운 공동체의 특성

새로운 공동체는 기존의 공동체와는 구분되거나 때론 동일한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공동체가 향후 걸어갈 길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 글은 새로운 공동체의 기본적 특성을 극단적인 익명성(anonymity)으로 놓고 이 익명성에 의해 생성되는 가상적인 정체성(virtual identity)을 핵심적인 측면으로서 보고자 한다. 앞서 새로운 공동체를 2차적 관계의 극단화와 새로운 부족의 형성으로 특징짓고자 하였는데, 이 중 첫번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익명성에 근거한 가상 정체성을 핵심 특성으로 하는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립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의 여러 측면들을 간략하게 분석해 볼 것이다. 공동체는 그 자체에 고유한 규범을 지니고 있으며 이 규범의 구성이 바로 이들 공동체의 특성을 명정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하여, 새로운 공동체에 어떠한 규범들이 어떻게 생성되어 혹은 생성되고 있는지, 그 속에 내재한 규범의 양상 혹은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익명성과 가상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들의 특성을 사회학적 수준에서 해석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① 익명성

근대의 사회성원들은 익명적인 사회성원들이다. 근대 사회의 익명적 무대에서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만남들은 Goffman(1963, Giddens, 앞의 책에서 재인용)이 '시민적 무관심'이라고 불렀던 것에 의해서 지속된다. 예를 들어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이 서로 보이는 무관심, 즉, 그들의 시선, 침묵, 몸짓 등으로 나타나는 무관심은 근대 사회에 있어 아주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때로 아주 필요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겉으로 표현된 '무관심'은 냉담함이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공손한 거리동이라고 불리워질수 있는, 조심스럽게 관리된 실연(實演)이다. 상대방을 단지 순간적으로 응시하고 다시 앞을 쳐다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은연중에 재확인시켜 주는 태도이다. 이러한 시민적 무관심의 유지에 공공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추정되는 신뢰의 가장 일반적인 전제 조건인 것이다(Giddens, 앞의 책). 이렇듯, 근대 사회의 익명성과 그에 수반된 '시민적 무관심'은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우리는 평소에 '낯익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들과 언제 어느 순간에, 2차적인 관계들을 맺고 때로는 1차적인 관계들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익명적'인 사람들과 무정형의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고, 이런 대중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사슬을 통해 서로 불가분하게 엮여져 있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생성되는 공동체 역시 익명적인 사람들의 복합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되고 존속된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있는 익명성은 기존의 것과는 다소 다른 양태의 익명성이다. 이들의 익명성은 다른 관계들에 비해, 매우 솔직해지는 것과 반대로 극단적인 속임수(예를 들면 자신의 성별을 바꾸어 행위한다든가 자신의 인구학적 속성을 완전히 거짓으로 꾸며낸다든가 하는 것 등)를 쓰는 것의 양자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김정희, 앞의 논문).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해(혹은 온라인이라고 해도) 다시 만나 서로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은 까닭에, 잘 아는 친구나 가족 등과 같이 1차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털어놓지 않는 자신의 속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화제로 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마치 어느 어두운 조명의 바에서 술 마신 상태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때로는 그것보다도 더한 솔직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공동체의 익명성, 그것도 가상의 세계이기에 실제의 세계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지 않으리라는 암묵적인 계산을 바탕에 깔고있는 익명성 덕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극단적인 속임수(flaming) 역시 빈번하다. 때로는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역시 근대적인 익명성의 사회이기에 본격적으로 가능했던 사회적 현상인) '사기치기'가 더욱 일상적인 형태로 나타나기까지 한다. 서울대 공대를 사칭하고 수십명의 여자들을 농락했다는 한 남자의 사례는

이러한 사기치기의 웃지 못할 전형이며, '온라인' 장터를 통해 온갖 치졸한 사기치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온라인' 고발문은 근대적 익명성의 최대치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우울한 자기고발장이다. 물론, 이러한 속임수의 가능성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즐거움의 한 유형이기도 하다. 사실, 전자 대화방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창출한 인물에 맞추어 완벽하게 연기해내는 것은 현대의 침울한 일상에 빠진 단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일탈행위임이 분명하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탈행위가 이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현실'에 물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다지 큰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는 사람도 속이는 사람도 큰 좌절이나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속고 속이는 것에 또다른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솔직함과 사기치기의 양 극단을 핵심으로 하는 익명성의 또다른 측면은 '의견개진의 자유로움'의 증대에 있다. 물라의 '천상유애' 파동이나, 서태지와 아이들의 갱스터 랩 펼치기, 또 최근의 녹색지대의 일본노래 펼치기 등으로 대표되는 일반인의 '감시활동'은 물라의 리더를 자살소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이다. 당시 물라의 기자회견 내용이 "그렇게 자신들을 성원했던 이들이 한 순간에 돌아서 버리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에 비애와 두려움마저 느꼈다"는 것이고 보면 새로운 공동체의 여론 형성 능력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개진의 자유로움'은 때로 왜곡된 형태로 분출되기도 하는데,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노태우 5천억 비자금 사건' 등과 같은 주제를 놓고 전자토론을 벌이는 경우, 이들이 만약 오프라인 상에서 면대면으로 토론했다면 혹은 지면상으로도 토론을 했다면 이 정도까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직설적이고 비틀어지기까지 한 언사들이 난무한다. 평소에는 도저히 그러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던 백면서생들이 격한 애국지사로 돌변하며,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초 자신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극단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가상공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만큼 상당히 용감한 커뮤니케이터들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익명성의 세가지 하위 특성, 즉 솔직함과 사기치기, 그리고 용감함이라는 특성들은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즉 현실과 가상 사이의 간극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제공되는 익명성은 마치 지킬 박사과 하이드씨의 경우처럼 철저하게 재구성된, 즉 (가장 솔직한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건 아니면 철저하게 상상적인 것이건) 자신에 의해 재창출된 캐릭터를 전면내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또한 오프라인(혹은 현실에서의 관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그 '책임성'이 가라앉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특성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주요한 측면을 규정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이 공동체의 자체 규범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

② 가상 정체성

위에서 지적한 '익명성'에 의해 결과적으로 창출되는 것이 가상적 정체성이다. 여기서 '근대적 주제', 일정한 기의를 향하여 체계적으로 배열되고 집중되어 있는 기표의 체계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주체는 단일하고 통일된 주제라는 기존의 관념에 반하여 '의미의 끊임없는 미끄러짐(Lacan, 1966, 이진경, 1995에서 재인용)'과 '다중 주제(multiple subject)'를 제안하고 있는, 이른바 '포스트모던' 논자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물적 징표이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화면 위의 글자나 ;, <, > 등과 같은 에모티콘(emoji)으로 바꾸어 표현한다. 그리고 순간순간의 맥락단서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재창출된 정체성을 보완한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는 가상공간 속에서 다수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변형시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실제 모습을 궁금해 하면서 그 사람이 쓰는 글을 통해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상대방의 말이 가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 대화의 내용을 완전한 사실로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보통 상대방의 실제 모습에 대해 있어 버리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 가상적 자아와 실제 자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컴퓨터 상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정체성들과 상호작용할 뿐이다(김경희, 앞의 논문).

그러나, 이러한 가상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갖게 마련이다. 가상과 실제 사이의 간극과 긴장은 종종 실제의 영향에 의해 가상이 굴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실의 영향력이 여전히 생활적으로, 관성적으로 지대한 까닭이다. 따라서, 소위 'kill file'이라고 부르는, 운영자에 의한 아이디 삭제 등의 조치를 어느 정도 두려워 하기도 하고, 타인의 아이디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학적 정보를 순간순간 참조하기도 한다. 또한, 동호회와 같은 (후에 서술될 '부족적' 특성을 지닌 공동체) 경우, 그들이 실제 지니고 있는 성향이나 속성 등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가상 정체성은 궁극적으로는 실제의 정체성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상과 실제가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불일치하는 것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 특징과 장점(?)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공동체가 (단지 물질적인 차원에서) 비물질적 공간인 네트워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상성'을 띠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물적 특성에 기반하여 창출되는 몇대어린 특성들이 '가상성'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컴퓨터 매개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전혀 새로운 인구학적 속성을 지닌 가상적 인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도 가상 정체성의 한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하겠다.

③ 규범적 특성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새로이 창출되는 공동체의 구성원대표하는 말로 '네티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규범적 원칙을 대표하는 말로 '네티켓(netiquette; network + etiquette)'이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이 그것의 기술적 속성상 소수의 선도적인 그룹에 의해 시작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전문적 동질성에 기반하여 상당히 밀도 있는 규범들을 세워 나갔다. 이들이 초기에 세워 놓은 규범은 오늘날에도 비교적 영향력 있는 원형으로서 유지되고 있고, 비록 그것이 불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의 'kill file' 경우와 같이 그릇된 자료나 대화 내용의 유입은 이러한 초기의 규범들을 유명무실하게 방지시켰고, 때로는 이 규범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특정인을 스타덤에 오르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치 시민의식 없는 졸부들의 시민사회가 급격한 근대화과정에서 초래되었듯이, 기술적 하부구조와 그것을 운용할 기초적 능력만을 소지한 네티즌들의 방대한 유입은 이들의 재교육 기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네트워크와 공동체에 상당한 변동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초기 인터넷 개척자들이 '국제적인 흥동가'로 타락한 인터넷을 떠나 '그들만의' 가상공간을 새로이 구축하려 하고 있다는 보도에서와 같이, 구분되는 규범들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기존의 네트워크이 재편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탈규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조건에서, 다소 부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간의 규범은 일정한 항상성(homeostasis)에 도달하기까지 지속적인 시도와 실수(trial and error)를 겪게 되는 조정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 지적 가능한 것은, 이들이 가상공간에서의 행위가 현실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선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서울대 사칭 사건'이나, '온라인 사기매매', 그리고 한 소녀가 전자대화방에서 들은 성적인 욕설에 충격을 받아 자살하게 된 사건과 같은 사례들에는 물리적 제제가 존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다수에 의해 소수의 극단적인 일탈행위가 배척을 받는 수준의 제약에 머문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소위 '창녀론'을 통해 문단으로 등단한 작가의 경우처럼 기존 규범에 대한 함으로 '오호려 세인의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되는 일도 빈번한 까닭에 그다지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은 아니다. 이외의 규범들은 무척 자유로운 까닭에, 기존 공동체나 사회의 규범 잣대를 이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실패하기 마련이다. 물론 네티켓에는 대화방에서의 예절을 적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대화방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기존 잣대로 보면 상당히 '버릇없고' 비인간적인 것에 경도되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화방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상당한 충격과 좌절을 겪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분위기를 스스로 즐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새로운 부족의 형성과 그 사회적 함의

이제 이 글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새로운 '부족(tribe)'의 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바라보려 한다. 이는 앞서 2차적 관계의 극단화와 기존 부족의 부활이라는 모순적 측면의 두번째 특성을 고찰하는 것의 연장이다.

① 새로운 부족?

부족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원시적인' 냄새를 풍긴다. 따라서 2차적 관계의 극단화 즉 세련화라는 현재의 경향에도,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물적 하부구조와도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용어로 보인다. 하지만, '부족'이라는 용어가 주는 또다른 의미는 현재의 새로운 공동체를 미래의 예상 가능한 형태로 분석하게 해 주는데 있어 무척 유용하다.

부족이란 일정한 혈연적 관계에 기반하여, 하나의 지배자를 두고 종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나의 부족과 또 하나의 부족은 서로 크기도 특성도 다르며 고유의 신화와 언어를 가지게 마련이다. 이는 민족(nation) 혹은 종족(ethnos) 등의 단위들이 가지고 있는 구분적인(distinctive) 특성들 보다 훨씬 더 소규모적이고 또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친교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박승관의 개념들을 빌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박승관, 1996; Park, 1995) '커뮤니케이션 족내혼(communion endogamy)의 형태를 띠며 여타의 부족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즉 '커뮤니케이션 족외혼(communion exogamy)'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특징들을 지닌다.

컴퓨터 통신 동호회(인터넷에 있어서는 각종 뉴스그룹과 사설 BBS)는 바로 이런 부족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마치 하나의 신화를 공유한 부족과 같이, 성별, 연령, 취미, 직업, 관심사 등의 다종다양한 기반들을 중심으로 모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중심 근거를 제외한 다른 속성들은 이들의 모임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최고의 조직 형태인 이들 다양한 동호회는, 심지어 '라면 요리 동호회'와 같이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연령이나 지역, 직업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로 모여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민족국가에서 볼 수 있는 역사특수적이고 인위적인 경계는 더 이상 주요 장애물이 아니며, 큰 이야기에서 작은 이야기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담론들도 탄력적으로 수용된다. 극단적인 배제과 극단적인 수용 모두를 거부하는 이들은 2차적 관계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만나 1차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서도 1차적 관계들이 요구하는 강력한 중심성이 그다지 중요하게 되지 않는 독특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PC 통신에서 일정한 계도에 오르게 되면 대체로 한두 가지의 동호회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